KIX MAGAZINE



# 느림의 미학
# 원주

20
26
10

DESIGNED TO PERSIST™

THE SPERRO SV JACKET



ARC'TERYX

KTX MAGAZINE

# contents

2026 10



이달의 여행

052 **느림의 미학, 원주**

고요한 자연을 품고 살아가는 강원 원주 사람들의 삶에는
묵직한 평온함이 스며 있다.




**표지 이야기**

## 강원 원주 한지

닥 섬유가 결마다 살아 있는 원주의 색한지. 쉽게 찢어지고 산화되는 서양 종이와 달리 한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한다. 닥나무를 통째로 삶아 껍질을 벗기고 섬유질만 골라내 종이를 떠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얻은 생명력이다. 산과 들에 맑은 물이 흐르는 원주는 예부터 한지의 고장이었다. 1975년부터 52년째 한지를 만들어 온 장응열 무형문화유산 한지장 보유자는 한지 제작 전 과정을 전통 방식으로 재현해 전형을 계승한다. 전통 한지는 주문을 받아 소량만 제작하고, 공예품 재료인 색한지를 주로 생산한다.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AHILO

홈페이지 www.ahilo.co.kr I 대표 전화 02 2256 7901 I 개설 문의 02 2254 4903
아일로의 2026 FW collection을 전국 아일로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세요

014 <KTX매거진> 초대석

## 고속철도 통합의 오디세이아

대한민국 고속철도가 하나로 통합되기까지 그 10년의 힘겨운 여정을
한국철도공사 김태승 사장이 들려주었다.

018 코레일 이야기

## 반값으로 떠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여행자와 인구 감소 지역을 잇는
지역사랑 철도여행의 이용 범위가 넓어졌다.

020 듣는 여행

## 별빛 내리다

경북 안동의 하회선유줄불놀이에서 별이 되어 쏟아지는 불꽃의 환희를 포착했다.

024 촬영지 여행

## 살인범을 납치했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네 모녀의 복수극 <경주기행>에는
경북 경주의 주요 관광지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026 여행자의 공간

## 반복과 절제의 미학, 박서보미술관

한국 단색화의 거장을 기리는 박서보미술관이 서울 연희동에 문을 열었다.

028 여행자의 방

## 자연과 사람을 잇는 문화 플랫폼, 더한옥헤리티지

웰니스 센터 '라온재'가 개관하면서 더한옥헤리티지가 완성체가 됐다.

030 한국의 멋

## 색동옷 입은 한글

한글의 형태와 소리를 재기 발랄하게 풀어낸 방윤정 디자이너의
'한글 참 시리즈'를 소개한다.

032 한국의 맛

## 든든한 가을 밤참

찬 바람이 불면 따끈따끈한 군고구마가 생각난다.

034 전국 행사 달력

## 10월의 전시·공연·축제 소식

올가을 낭만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행사가 찾아온다.






















2026 WORLD HERITAGE FESTIVAL IN ANDONG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made in ANDONG no.22

BOOK in BOOK

**made in ANDONG**

##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봉정사가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의 무대가 된다.

072 여행의 발견
**풍류가 흐르는 고을, 영주**
인삼과 사과를 수확하는 10월, 경북 영주는 가을 여행지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092 낭만 기차 여행
**대전역에서 빵지순례를 떠나다**
빵의 도시 대전에서 오직 빵을 먹기 위해 빵티칸 순례 버스에 올라탔다.

098 KTX 타고 도보 여행
**나주 빛가람동 나들이**
전남광주 나주에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동네, 빛가람동을 찾았다.

104 이 계절엔 여기
**10월, 안동이 더 즐거워진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월영가람길을 집중 조명했다.

130 전시 보러 갑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현대미술의 거장 서도호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한다.

144 함께 여행
**낯설게 듣기**
다른 존재로 변신하며 소리를 채집해 온 심이다은 작가가
이번엔 길고양이의 하루에 주목했다.

160 플레이리스트
**윤마치와 떠나는 음악 여행**
싱어송라이터 윤마치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꿔 줄
노래 한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다.

**INFORMATION**
코레일 소식·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열차 이용 안내·비상시 행동 매뉴얼

## +일러두기
〈KTX매거진〉은 대한민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약칭으로 표기합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라는 표현을 생략합니다.

##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 바코드
















# 가을철 건강관리, 매일 안마의자로 챙기세요
## 파나소닉 플래그십 안마의자 REAL PRO MAN2



***전문 관리를 뛰어넘는 AI 맞춤 케어***
경험에 의존하던 진단을 넘어 AI가 몸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어깨 위치와 걸림 센서로 관리가 필요한 부위를 정확히 찾아
오늘의 컨디션에 최적화된 마사지를 제공한다.




***체형 맞춤 영역 선택 6136개 포인트의 정밀 마사지***
총 6136개 마사지 포인트의 조합으로 목,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며,
SJ 프레임과 네 개의 롤러가 넓은 신체 부위를 섬세하게 자극한다. 울트라 니드(ultra knead) 기술은
엄지손가락의 섬세한 동작을 모티브로 근육 깊숙한 곳까지 부드럽게 풀어 준다.



***마사지 전 예열로 긴장 완화 즉각 온열 시스템***
무릎 뒤 오금 부위의 즉각 온열 시스템이 마사지 전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주어
보다 깊은 휴식을 돕는다. 130~170도 리클라이닝과 수직형 터치 패널, 블루투스 오디오, USB 포트로
사용성 역시 플래그십에 걸맞게 완성했다.

**10월 1일~10월 31일, 파나소닉 안마의자 이벤트 운영 중** | **판매처** 유명 백화점 및 온·오프라인 파나소닉 판매 대리점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2026년 10월호 KTX MAGAZINE

2004년 4월 1일 KTX 개통과 함께 창간한 <KTX매거진>은
대한민국 고속철도를 대표하는 22년 역사의 월간 차내지입니다.

제23권 제10호 통권 제268호
2026년 10월 1일 발행

**발행인** 김태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이미선 editorwhy@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심인보 inbou@bandicom.com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hsprt.com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2026 원주 만두축제
시장에서 한 판, 즐거울 만두!



10.23.(금) - 10.25.(일)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 (원주천 및 문화의거리 일원)

주최 원주시 주관 원주문화재단

# 어떤 아름다움은 너무 맹렬해서 담을 길이 없다

9월 12일, 마감 한복판에 출장을 가게 될 줄이야. 매달 본격적인 마감이 시작되는 10일부터 최종 데이터를 인쇄사에 보내는 18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실에 붙박고 있는데, 이렇듯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에 기자들도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편집장이 마감 중에 출장을 간단 말인가. 발단은 지난 8월 말, 경북 안동 출장에서 만난 한 지인과의 대화였습니다. 로컬 체험 전문 여행사 '길과 마을' 대표로 금소마을 촌캉스 체험 상품을 성공시킨 그는 '하회선유줄불놀이를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드라마 <악귀>에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함께 관람해 화제가 된 한국의 전통 불놀이.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의 하이라이트 역시 하회선유줄불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만송정과 부용대, 그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 위로 반딧불이 같은 불꽃이 흐드러지게 쏟아진다며, 올해 꼭 10회뿐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부터 폭발한 호기심은 매거진의 아이템으로 확장했고, 생생한 그 현장을 10월호에 싣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단 하루뿐. 마감에 쫓기는 한편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하회마을에 도착한 저는 부용대 앞 모래톱에 운집한 4000여 명 틈에 끼여 생애 첫 선유줄불놀이를 목격했습니다. 소원을 적은 한지에 말린 쑥과 숯가루를 올려 돌돌 만 주머니. 그 하나하나의 바람을 줄에 매단 후 불을 붙이자 마치 우주의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봄 어느 밤의 벚꽃도 저리 근사했던가. 바람의 숨을 받아 화르르 피었다 후드득 떨어지는 불꽃의 생애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찬연한 아름다움을 카메라는 45억분의 1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눈에 비친 모습이 비할 수 없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KTX매거진> 10월호에서 하회선유줄불놀이 사진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휘해 주세요. 어떤 아름다움은 너무 맹렬해서 담을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달 <KTX매거진>은 보는 순간 떠나고 싶어지는 여행 칼럼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원 원주를 찾아 가을빛 내린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치악산바람길숲을 카메라에 담고, 장응열 무형문화유산 한지장 보유자의 외발뜨기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박경리문학공원과 박경리뮤지엄을 방문하고, 선생의 손주인 김세희 토지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나 할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엿봤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선비세상, 무섬마을, 부석사 등을 찾고, 경북 안동에서는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이 열리는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봉정사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인간 중심 사회에서 소외되는 존재에 주목하는 심이다은 작가와 함께 서울 중랑천을 걸으며 청각적 자극에 집중했고, 고양이 A 씨의 하루를 담은 그의 전시 <보편타당한 당신-심이다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서도호의 대규모 개인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끝없는 탐구와 사유로 구축한 그의 작품 세계를 어린 날의 스케치부터 대학 시절의 초기작, '천으로 만든 집'으로 대표되는 주요작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고속철도 통합 기념 칼럼도 준비했습니다. <KTX매거진 초대석>에 한국철도공사 김태승 사장을 모셔 무려 10년의 시련과 역경을 딛고 하나의 철도가 된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오디세이아를 들었고, KTX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는 <코레일 이야기> 칼럼도 신설했습니다. 기차 여행의 재미를 오롯이 느껴 보는 '낭만 기차 여행' 코너를 신설해 그 첫 번째 순서로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빵티칸 순례 버스 투어를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2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는 독자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KTX

편집장 **최현주**



## 고속철도 통합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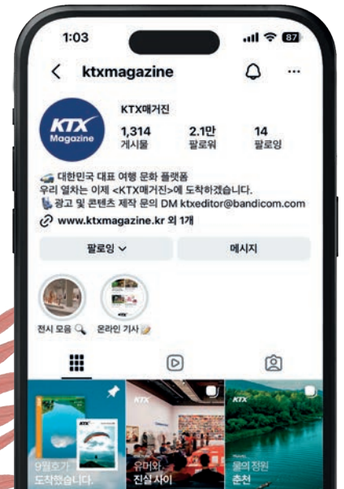
# <KTX매거진> 독자 이벤트

지난 9월 대한민국의 고속철도가 '하나의 철도, 국민의 철도'로 통합됐습니다.
이를 기념해 <KTX매거진>에서 2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는 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04년 4월 1일, KTX 개통에 맞춰 창간한 <KTX매거진>은 한국철도공사가 걸어온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강원 영월의 더한옥헤리티지






**참여 방법**

①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ktxmagazine) 접속**
② 프로필 링크 중 이벤트 링크 클릭
③ **이벤트 참여하기**

**선물**

**1등** 강원 영월의 더한옥헤리티지 '가온 트윈 호텔' 객실 1박(2인 조식 포함)_1명
**2등** 파나소닉 나노 케어 헤어드라이어_2명
**3등** 파나소닉 초경량 무선 청소기 (물걸레 키트 불포함)_3명

**참여 기간**

9월 26일~10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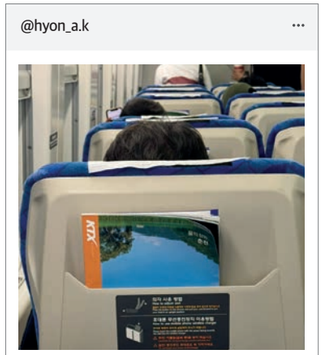
**당첨자 발표**

10월 30일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EDITOR 김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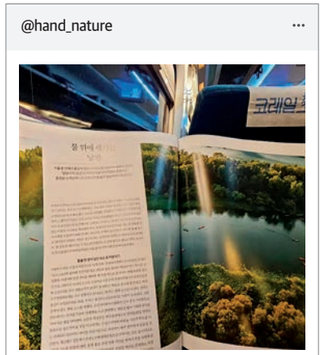
#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hyon_a.k

익숙해진 출장이 그나마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건 바로 <KTX매거진> 덕분이 아닐까. 가고 싶은 여행지가 점점 늘어난다. 오늘은 의암호에서 카누를 타는 '워터 워커'를 상상해 본다.
**#KTX매거진 #춘천 #문경 #출장**



@hand_nature

눈꺼풀이 무거워서일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마음도 가라앉는다. <KTX매거진>을 펼쳐 호수에 비친 구름과 잔잔한 춘천의 물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마음에도 물결이 인다.
**#KTX #KTX매거진 #춘천 #국내여행**

@ktxmagaz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이슬아**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열차에서 <KTX매거진>을 마주하면 안도감이 든다. '이번에도 안 놓치고 잘 탔구나.' 풍경 사진과 문화 소식을 지면으로 만날 때면 닿을 수 없는 세계에 이미 닿았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듣는 여행' 기사는 김천의 숲 한가운데로 나를 데려갔다.



**김정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KTX매거진> 9월호에 실린 단청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단청의 역할이 목조건물의 격을 높이는 작업이라는 설명이 울림을 주었다. 마침 뜨거운 바람이 잦아들었으니, 창덕궁을 거닐며 단청의 아름다움을 두 눈에 담고 싶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10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10월 15일까지

##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과 사연이 실린 달의 잡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일로 물레 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 문의** 02-2256-7901






가 을 철

# 안전한 전기 사용 방법

캠핑편

캠핑 전기안전, 이것만은 지켜요!




영상을 통해 캠핑 시 전기안전요령을 확인하세요.

영상 바로가기!

자연인 이승윤과 함께 떠나는
'캠핑 시 전기안전요령'

1 **릴선은 반드시 끝까지 풀어서 사용하기**
릴선이 말려있으면 전선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주세요

2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금지**
멀티탭에 또 다른 멀티탭이나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는 등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3 **전선 손상여부 확인하기**
전기제품 사용 전에는 전선이 꼬이거나 접혀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해주세요

한국전기안전공사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EDITOR 최현주 · PHOTOGRAPHER 황필주



## 고속철도 통합의 오디세이아

# “10년의 시련과 역경을 이겨 내고 하나의 철도가 된 대한민국 고속철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을 이어 가고 있다. 영화는 트로이 전쟁을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나긴 항해에 오른 오디세우스의 10년 여정을 그린다. 수많은 난관과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끝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통합 과정과 오버랩된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 출범, 2014년 첫 영업 흑자 달성, 그리고 2016년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 후 누적된 적자까지, 대한민국 철도는 출범 이후 수많은 파도를 헤치며 거친 바다를 항해해 왔다. 2026년 새 정부의 통합 로드맵 추진으로 10년 만에 마침내 하나로 완성된 대한민국 고속철도.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고속철도 통합의 오디세이아’를 들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2026년 9월 1일 자로 KTX와 SRT가 통합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영화 <오디세이>와도 많이 닮았는데요. ‘고속철도 통합의 오디세이아’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사다난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우스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듯, 우리 대한민국 고속철도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의 바다를 헤쳐 나가며 마침내 ‘하나의 철도, 국민의 철도’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은 “과연 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철도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철도 통합의 가치를 국민께서 공감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속철도가 분리되었던 당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2012년 정부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권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 요금 할인과 서비스 개선 등 경쟁 효과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철도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2013년 12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형태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KTX와 SRT가 각자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0일 넘는 최장기 파업까지 벌였지만 결국 고속철도 분리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2005년 철도청은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만성 적자 해소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철도공사 출범 9년 만에 사상 첫 영업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SRT) 분리로 인해 다시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SRT로 옮겨 간 수요 탓에 서울역 기준 하루 평균 승객이 1만 명가량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속철도 통합과 분리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같은 노선을 공유하고 같은 차량을 사용하는 두 기관이 왜 함께 존재해야 하는지, 경쟁의 혜택은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숱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경쟁 효과를 인정하는 입장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하나로 합쳐서 중복 비용을 줄이고 좌석 공급과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18년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제가 인하대학교 교수로서 해당 연구 용역의 연구




과거 SRT 열차와 KTX-산천 열차가 연결된 모습. 2026년 9월 1일 고속철도 통합 이후 SRT 로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8월 3일 수서역에서 진행한 고속철도 통합 앱 '코레일+' 출시 기념행사. 고속철도 통합 후 KTX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다.



책임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KTX-SRT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 발생, 선로 배정, 지역 간 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정밀하게 도출하고 고속철도 통합의 경제적 편익과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계 부처 간 이견과 정책적 신중론에 부딪혀 연구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철도 관련 공공기관 노사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도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운영됐습니다. 2년여 동안 KTX와 SRT의 통합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론과 평가가 이어졌지만, 2022년 12월 분과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및 철도 수요 변동성, 경쟁 체제의 순기능 주장과 통합론의 맞대응 속에서 '통합 또는 유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최종 의견을 제출하며 논의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통합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결정적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현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단과 강력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추진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철도 이원화 체제가 낳은 구조적 모순과 경제적 낭비, 그리고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확고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정부들에서 이해관계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유보되거나 미뤄졌던 철도 통합 과제를 국정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대통령의 결단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습니다. 소모적인 분할 경쟁 대신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통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0년을 끌어 온 고속철도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일까지 기관 통합과 열차 운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속전속결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통합 TF를 발족해 열차 운행, 차량 정비, 역 시설과 고객 안내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기관사들이 새로운 구간과 차량에 익숙해지도록 운전 교육과 안전 합동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역 시설, 안내 표지 등 고객 시설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미 10년간 준비해 온 역량이 있었기에 통합 과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차역에 가시면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된 열차가 보일 겁니다. 열차 도색도 마무리하지 못할 만큼 신속하게 진행된 까닭입니다.

**이와 같은 고속철도 통합으로 승객이 가장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국민 편익을 높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전국 고속철도 좌석이 한 주에 11만 6000석 추가되고, 특히 공급이 부족했던 수서 노선은 기존보다 30퍼센트가량 늘었습니다. 양사 통합 앱을 도입해 예매도 간편해졌습니다. 2026년 9월 1일 개통 첫날 전체 고속철도 이용객은 21만 3000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9퍼센트포인트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특히 수서 노선 이용객의 경우 6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3퍼센트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고속철도 통합의 효과는 명확했습니다.

KORAIL

**2005~2026년, 고속철도 통합의 오디세이아**

| | |
|---|---|
| **2005년 1월**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출범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 **2014~2015년** | 출범 9년 만에 첫 영업 흑자 |
| **2016년 12월** | 수서발 고속철도(SRT) 분리 개통 (운영 이원화 및 코레일 적자 전환) |
| **2018년 7월** | 국토부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용역 착수 |
| **2020~2022년** | '철도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논의 끝에 2022년 12월 '판단 유보' 결정 |
| **2026년 3월** | 제12대 김태승 사장 취임 및 현 정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본격화 |
| **2026년 9월** | 한국철도공사·SR 기관 및 서비스 완전 통합 |

**완성된 '통합 코레일'의 첫 번째 사장으로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10년간의 풍랑을 지나왔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고속철도 통합은 여정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제야 우리 철도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통합된 철도망을 바탕으로 일반 열차와 광역 전철까지 연계 교통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으로 향하는 관광 열차를 늘려 국내외 관광객이 더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 전환, 친환경 교통 체계 등 미래 철도를 위한 대비에도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새로운 여정, 그 길 끝에는 더 편리한 이동, 더 가까워진 지역, 더 행복한 국민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 되는 철도, 함께하는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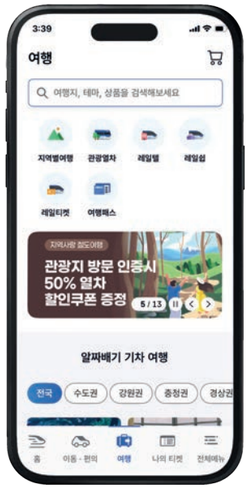
© 안홍범

# 반값으로 떠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여행자와 인구 감소 지역을 잇는 여행 상품이다. 이용객에게 열차 운임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는 활기를 불어넣는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기존보다 이용 범위도 넓어졌다.

한국철도공사가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지난 9월에는 대전 본사에서 '철도 중심 지역 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인구 감소 지역 42곳의 열차 운임 50퍼센트 할인과 관광 명소 체험 혜택을 결합한 여행 상품이다. 2024년 8월에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출시됐다. 자유여행, 패키지, 관광열차 등으로 나뉘는데, 그중 자유여행 상품은 지정된 관광지에서 QR 코드 인증 혹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인증 시 열차 운임 50퍼센트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지역사랑 철도여행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월평균 이용객이 출시된 해와 비교했을 때 209퍼센트 증가했고, 지난 7월 기준 누적 이용객이 47만 명을 넘었다. 9월 1일부터는 고속철도가 통합돼 이용 범위도 넓어졌다. 앞으로 수서역 출발·도착 열차 이용객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경우 열차 운임 50퍼센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깊어지는 가을, 지역사랑 철도여행으로 발걸음 가벼운 여행을 떠나 보자. KTX




지역별
철도여행 상품

## 이달의 추천 여행지

'여행가는 달'(10월 1일~11월 30일) 기간 동안 인구 감소 지역(익산 제외 41곳)의 자유여행 상품 구입 후 관광지 QR코드 또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인증 시 열차 운임 전액을 환급해 준다. 13개 지역(해남, 함평, 장성, 태백, 보성, 임실, 강진, 군위, 괴산, 봉화, 장흥, 의성, 무주)을 여행할 경우, 선착순 20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 2만 원 상품권도 증정한다. 대상 지역 중 임실에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임실N치즈축제가 열리고, 봉화에선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봉화송이축제가 펼쳐진다.



KORAIL
고속철도 통합!
불편은 확~줄고 혜택은 더~커진
새로워진 KTX를 만나보세요

EDITOR 최현주 • PHOTOGRAPHER 김은주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별빛 내리다

만송정과 부용대 정상을 잇는 다섯 가닥 줄에 숯 봉지를 매달아 불을 붙인다.
타닥타닥 파르르 별이 되어 쏟아지는 불꽃의 환희.

QR코드를 스캔하면 경북 안동 하회마을의
하회선유줄불놀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All Inclusive
#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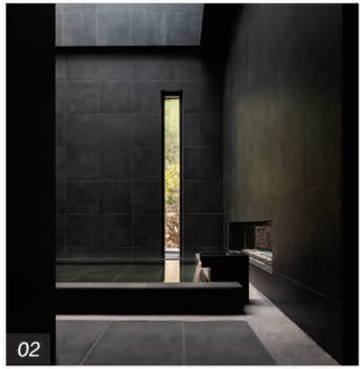
## DATA

| | |
|---|---|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
| 요금 |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br>• 조식 :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
| Check-In | 15:00 |
| Check-Out | 11:00 |
| 객실 수 | 16실 |
| 식사 |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
| 온천 |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
| 부대시설 |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



01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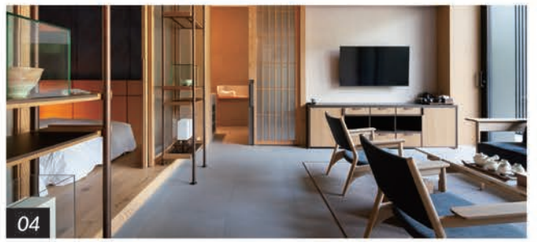


03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04



05



06

##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EDITOR 이미선



# 살인범을 납치했다!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고 경북 경주로 가족여행을 떠난다. 여행의 목적은 복수. 차 트렁크에는 낯선 남자가 실려 있다.**



엄마와 세 딸이 8년 전 수학여행을 떠난 후 돌아오지 못한 막내 경주의 생일을 맞아 경북 경주로 여행을 떠난다. 시종일관 티격태격하지만 화창한 날씨 덕분인지 단체 티셔츠까지 맞춰 입은 네 모녀는 꽤나 단란해 보인다. 그런데 차 트렁크에 낯선 남자가 묶여 있다. 경주를 죽인 살인범이다. 여행의 목적은 복수. 완전범죄를 위해 낮에는 관광지를 다니며 인증 사진을 찍고, 어두워지면 살인범을 죽일 계획이다. 살인 후 매장하기 위해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공동묘지 위쪽 펜션을 숙소로 잡았다. 그러나 살인범이 탈주하면서 전세가 뒤집힌다. 영화 <경주기행>은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난 네 모녀의 복수극이다.

가족의 상실과 사적 제재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지만 영화가 어둡고 비장한 것만은 아니다. 가족들이 알리바이를 위한 사진을 남기면서 경주의 주요 관광지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동궁과 월지에서는 평범한 가족여행객처럼 기념사진을 찍고, 봉황대에서는 일부러 CCTV에 동선을 남긴다. 첨성대에서 엄마는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보며 막내 경주를 떠올리고, 분황사 모전석탑 앞에서는 남편과 막내의 극락왕생을 빈다. 그리고 살인범이 도망친 다음 날, 파란 우비를 입고 거대한 고분이 모여 있는 대릉원을 거닌다. 실제 <경주기행>은 김미조 감독이 경주에서 우연히 목격한, 비 내리는 대릉원을 같은 우비를 맞춰 입고 일렬로 걷는 가족의 모습에서 착안했다.

영화 <경주기행>은 하와이 국제영화제와 피렌체 한국영화제, 바르셀로나 한국영화제 등에 초청되어 '복수극의 전형을 깬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고분 도시 경주, 그곳에서 생과 사를 넘나들며 복수극을 펼치는 네 모녀는 막내 경주를 온전히 놓아줄 수 있을까. KTX




장편영화 데뷔작이자 대학원 졸업 작품인 <갈매기>로 전주국제영화제와 들꽃영화상 등에서 수상하며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미조 감독의 첫 상업 영화. 엄마 옥실 역에 이정은, 세 딸 장주·영주·동주 역에 공효진·박소담·이연이 출연한다.

© 롯데엔터테인먼트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 모집

뉴 멤버십 '소노러스 라임'

더 가벼워진 입회금액
20년 만기 입회금 반환
3,000만원대 멤버십

더 매력적인 혜택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창립 혜택 최대 50%

20년간 부대시설 할인
워터파크·골프·스키 등
주중 최대 70%







이용 가능 사업장 전국 18곳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쏠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경주 · 거제 · 여수 · 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세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EDITOR 김수아 • PHOTOGRAPHER 봉재석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 반복과 절제의 미학, 박서보미술관

**서울 연희동에 박서보미술관이 들어섰다. 박서보 작가가 말년에 작업한 대형 백색 묘법 작품 세 점을 최초로 공개한다.**

지난 8월 한국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를 기리는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작가가 생전에 작업실로 쓰던 서울 연희동 자택 옆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약 2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했다. 개관전 <박서보와 흐엉 도딘: 비움 그 충만>에서는 베트남에서 태어나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한 흐엉 도딘의 회화 17점과 박서보의 회화 25점을 함께 소개한다.

전시 공간은 총 세 곳이다. 지하 2층에는 박서보와 흐엉 도딘의 1990년대 작품을 교차 배치했다. 재료와 작업 방식은 달라도 반복과 축적을 통해 화면을 비워 낸다는 점에서 닮은 두 작가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진다. 2층은 박서보가 오랜 시간 탐구한 묘법의 흐름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1990년대 말 선보인 흑색 한지 묘법에는 아궁이에 밥을 지으며 아들을 맞던 어머니의 사랑이 담겼고, 2000년대에 시작된 색채 한지 묘법에는 자연이 빚어낸 색에서 위안을 받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스며 있다. 그중 강렬한 붉은색의 '묘법 No.100915'는 산을 뒤덮은 단풍을 보며 치유받은 경험이 녹아든 작품이다.

3층 '큐브(Cube)'는 박서보미술관의 핵심이다. 높이 8미터의 정사각형 공간에 작가가 미술관 건축을 고대하며 작업한 대형 백색 묘법 작품 세 점이 나란히 서 있다. 내부로 스며드는 자연광에 따라 작품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 흥미롭다. 한쪽에 자리한 'X.K.N.31'은 흐엉 도딘이 박서보에게 바치는 작품이다. 두 개의 나란한 선은 통역 없이도 각자의 예술 세계를 이해했던, 서로를 닮은 두 작가를 의미한다. 개관전은 내년 1월 3일까지 이어지며 입장료는 5000원이다. 티켓 소지자에 한해 무료 도슨트 투어가 가능하다. KTX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9-54


1


2


3


4

**1** 박서보가 미술관 건축을 고대하며 작업한 대형 백색 묘법 작품. **2** 미술관 곳곳에 조성한 야외 정원. **3** 박서보 작가의 회화에 나타난 색채의 변화를 만나는 2층 공간. **4** 박서보미술관 외관.




대표원장 조찬호 명예원장 이시형

# 내 몸의 '노화 시계'를 거꾸로 일본에서 찾은 줄기세포 치료의 미래

**100세 시대에도 사람들의 바람은 변함이 없다. 오래 사는 걸 넘어 신체 나이를 되돌리고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줄기세포를 활용한 항노화·재생 의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재생 의료 강국이다. 국가 차원의 연구 지원과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실제 치료로 연결해 왔다. 최근에는 외형적인 젊음이나 활력 개선에 대한 기대에 머물지 않고, 노화와 질환으로 저하된 세포·조직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생 의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줄기세포 연구를 이어 온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최근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팀과 함께 일본 고베를 찾았다.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 원장은 이화학연구소(RIKEN) 생명기능과학연구센터(BDR)와 고베 첨단 의료 클러스터, 고베 국제 의료 교류 재단을 둘러봤다. 회춘에 대한 기대를 기능 회복과 건강 수명 연장으로 연결하는 현지 재생 의학 시스템을 살피고, 한일 의료·학술 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 젊어지고 싶은 욕구를 의료 영역으로

일본 재생 의학의 경쟁력은 대학과 국책 연구 기관, 바이오 기업, 의료 기관을 연결하는 생태계에 있다. 연구 기관이 기초·임상 연구를 맡고, 기업은 세포 제조와 제품화를 추진하며, 의료 기관은 임상 적용과 장기 추적을 담당한다. 젊음과 활력을 되찾으려는 개인의 소망을 연구와 산업, 의료 현장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조찬호 원장은 "연구 성과가 산업과 의료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구축된 협력 구조가 인상적이었다"며 "국내에서도 연구자와 바이오 기업, 의료진이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춘을 바라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만 일본 재생 의학은 이를 막연한 '젊음의 회복'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질환이나 노화로 손상된 세포와 조직 기능을 보완하고, 신체 기능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구체적 치료를 목표로 발전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파킨슨병과 중증 심부전을 대상으로 한 iPS세포 유래 재생 의료 제품 2종을 조건·기한부로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iPS세포 유래 제품이 실제 치료 단계에 들어선 세계 첫 사례다. 조 원장은 "재생 의료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해외 연구·의료 기관과 학술 교류를 이어 가며 국내 재생 의료의 임상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줄기세포 시술에 '생활 습관 관리' 더한다

조찬호 원장은 8년간 줄기세포를 연구한 뒤 2007년 '신경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의료원 임상 교수를 거쳐 2016년 청담셀의원을 개원했으며, 현재 대한항노화학회 교육이사와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담셀의원은 조 원장의 연구·임상 경험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 상태와 노화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헬스케어를 시행한다. 노화 징후를 조기에 살피고 관리하는 '프리쥬비네이션(prejuvenation)' 개념도 진료에 접목했다. 여기에 청담셀의원 건강 자문을 맡은 '국민 주치의' 이시형 박사의 생활 습관 관리론을 더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기본으로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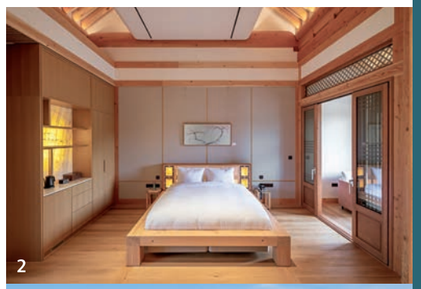
조 원장은 "생활 습관 관리를 토대로 환자 상태에 맞는 의학적 접근을 더하는 것이 건강 수명 관리의 기본"이라며 "연구와 국제 학술 교류를 지속해 안전하고 근거 있는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DITOR 최현주



1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2



3

# 자연과 사람을 잇는 문화 플랫폼 더한옥헤리티지

**독채와 호텔로 구성된 숙박 시설과 레스토랑, 갤러리, 티하우스, 연못 정원 등을 갖춘 더한옥헤리티지. 지난 8월 웰니스 센터 '라온재'가 문을 열면서 국내 최대 한옥 문화 플랫폼이 완전체가 되었다.**

1000년 후에도 한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남을 한옥. 강원 영월 문개실마을 3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한 더한옥헤리티지는 설립자이자 건축가인 조정일 회장의 오랜 상상에서 시작됐다. 12년간의 연구 끝에 나무의 건조 문제를 자체 기술로 해결하고, 강이 휘감아 도는 영월에 터를 잡아 첫 집으로 영월종택 1동을 지었다. 이후 영월종택 2동, 선돌정, 춘하정사, 추동정사를 차례로 지어 한옥 독채 5채를 완성하고, 20개의 객실을 갖춘 한옥 호텔도 선보였다.

그리고 지난 8월 웰니스 센터 라온재를 공개하면서 더한옥헤리티지의 오랜 여정이 하나의 모습으로 완성됐다. '즐거운 울림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뜻이 담긴 라온재는 더한옥헤리티지가 개관 이후 지향해 온 'Art of Korean Living'의 여정에서 비어 있던 웰니스 영역을 채운 마지막 조각이다. 이로써 더한옥헤리티지는 건축과 문화, 미식, 웰니스를 하나로 잇는 완전체가 되었다. 라온재는 깊이·고요·흐름·온기·생기라는 다섯 개의 결로 설계했으며, 각 키워드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목장에게 한옥 건축 과정을 듣는 '깊이', 다도 전문가와 함께 블렌디드 티를 음미하는 '고요', 인피니티 풀에서 플로팅 사운드 배스를 즐기는 '흐름', 나무를 다듬으며 한국 공예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온기', 그리고 제철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생기'가 그것이다.

라온재에서 가장 압도적인 공간은 중심을 차지한 인피니티 풀이다. 750여 제곱미터 규모의 너른 인피니티 풀에 누우면 시선 끝에 선돌과 하늘이 그대로 걸쳐져 우주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라온재 1층에는 가족 고객을 위한 키즈 풀과 프라이빗 스파, 웰니스 라운지, 제철 식재료 기반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몬토(Monto)가 자리하고, 지하 1층에는 건식 사우나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 웰니스 공간이 들어섰다. 라온재는 추후 투숙객뿐 아니라 비투숙객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KTX

**주소** 강원 영월군 남면 문개실길 37-200

**1** 더한옥헤리티지의 웰니스 센터, 라온재. **2** 25명 장인의 손길이 닿은 한옥 호텔. 20개 객실을 갖췄다. **3** 라온재의 인피니티 풀에서 플로팅 사운드 배스를 즐긴다. **4** 신동민 총괄 셰프가 자연주의 다이닝을 선보인다.



4



STAR Yeong Cheon

사전신청QR

반값에 반하다 영천

경비는 50% 덜고, 추억은 두 배로 채우는 여행!

EVENT 기간
2026. 9/1 ~ 11/30

지원대상
타 지역에서 영천시를 여행하고자 하는 1인 이상 내국인 관광객
※ 지원 제외 대상 | 경산시, 청도군, 경주시, 포항시, 청송군, 군위군에 주소를 둔 내국인 관광객, 국내·외 거주 외국인

여행경비환급
최대 50%
모바일 지역상품권 지급

지원내용
숙박 및 음식점 여행경비의 50% 모바일 영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
※ 공고일 기준 모바일 영천사랑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

참여조건
1 여행일 7일전까지 사전신청 필수 (QR코드 접속)
2 지정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3 여행경비 총 소비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결제
4 사업 신청 대표자, 신청 구성원 포함 연 1회 신청 가능
※ 주의사항 및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내 공고문 참고

문의/전화
홈페이지 | https://yctour.kr
영천반값여행 고객센터 | 1660-1745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김은주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색동옷 입은 한글

이응(ㅇ), 디귿(ㄷ), 리을(ㄹ)…. 한글 자음들이 색동옷을 입고 무대에 섰다. 한글의 형태와 소리를 재기 발랄하게 풀어낸 방윤정 디자이너의 '한글 참 시리즈'다. '차차'는 치읓이 춤추는 모습을, '하하하'는 웃음소리를, '이응'은 사람의 얼굴을 표현했다. 단순한 기호에 이토록 다양한 표정과 움직임을 담아내다니 놀랍다.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익숙한 한글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껴 보는 건 어떨까. 노리개에서 영감을 얻은 한글 참은 백팩이나 파우치, 바지 벨트 고리 등에 달면 멋스럽다. 한글 참 시리즈는 리움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KTX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KOREAN CULTURE & TOURISM FESTIVAL

동래성 사람들, 역사와 미래를 잇다!

32nd 동래읍성역사축제

2026. 10. 16.(금)~10. 18.(일) | 동래문화회관 | 동래읍성지 북문광장 | 명륜1번가 | 온천장 일원

주최 |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관 | 동래읍성역사축제추진위원회·동래문화원 후원 | 부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bto 부산관광공사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김은주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든든한 가을 밤참

날이 추워지면 호호 불며 먹던 군고구마가 생각난다. 고구마가 한반도에 처음 등장한 때는 1763년(영조 39년). 조선 통신사로 일본 대마도에 간 조엄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고구마를 보고 종자를 들여왔다. 조선 땅에 뿌리 내려 무럭무럭 자란 고구마는 기근과 흉년을 견디게 해 준 구황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 고구마는 9~11월이 제철. 갓 캔 것보다 일정 기간 숙성한 고구마가 더 달다. 따끈한 군고구마에 잘 익은 배추김치를 곁들이면 달콤한 맛과 칼칼한 맛이 번갈아 입맛을 돋우고, 우유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칼슘을 보충해 영양까지 챙길 수 있다. KTX



2026 Busan Chinatown Culture Festival

제23회
부산 차이나타운 문화축제
2026. 10.16.(금) - 10.18.(일) | 부산역 및 차이나타운 일원

개막행사
10.16.(금) 오후6시
• 거리 퍼레이드
• 식전공연
- 중국 기예단 공연
• 공식행사
• 한중문화공연
- 현대판 연희 공연 '들에디선'
- 부산 화교중고등학교 사자춤
- 중국 전통 변검 공연

주요 프로그램
10.17.(토)
• 동구 마을교육축제
• 야호(夜好) 차이나
10.18.(일)
• 중국 기예단 공연
• 제5회 차이나는 노래자랑
[ 초대가수 신승태 ]

가수 신승태
중국기예단
황금용
상해 예원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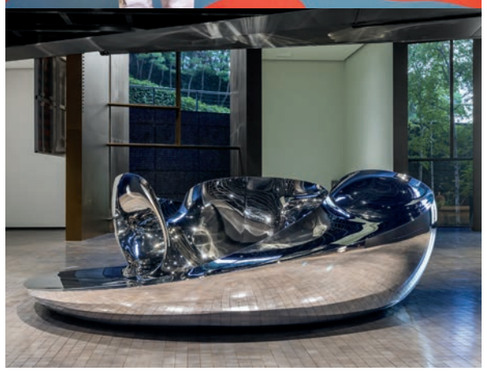
주최 | 부산광역시 동구 주관 | 차이나타운축제위원회

EDITOR 신송희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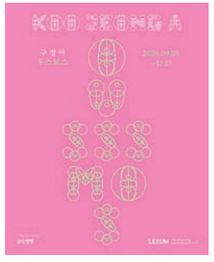


© 리움미술관

### 〈구정아: 우스모스〉

서울 09.05~12.27

구정아 작가가 30여 년간
이뤄 온 작업 세계를 아우르는
개인전이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전시에서는
1990년대 초기작부터 대형
신작까지 총 35점을 선보인다.
빛과 어둠, 향과 사운드,
중력과 자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을 활용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품을 미술관
곳곳에서 마주한다. 서울역에서
402번 버스를 타고 하얏트호텔
정류장에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리움미술관에 닿는다.



**장소** 서울 리움미술관
**문의** 02-2014-6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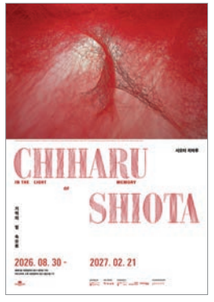




### 〈시오타 치하루: 기억의 빛 속으로〉

대전 08.30~2027.02.21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시오타 치하루의
작업 세계를 소개하는 전시가 대전에서
펼쳐진다. 작가는 수없이 엮어 낸 수십만
가닥의 실을 통해 기억과 부재,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같은 보이지 않는 감정과 관계를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공간을
압도하는 대형 설치 작품부터 실과
유리로 만든 조형물, 드로잉과
영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품을
선보인다. 대전 소제동 옛 철도
관사의 역사를 투영한 대규모 설치
신작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대전역에서 헤레디움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




**장소** 대전 헤레디움
**문의** 0507-1422-2075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 EMK뮤지컬컴퍼니

## 〈유리동물원〉

서울 10.17~11.22

미국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이 무대에 오른다. 생각과 목표가 서로 다른 한 가족이 상실의 아픔을 안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린 연극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과 자유를 향한 갈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 톰 역은 장승조와 권율 등이, 세상과 단절된 채 유리동물을 수집하는 딸 로라 역은 정운선과 임세미 등이 맡아 열연한다. 서울역에서 406번 버스를 타고 서초동예술의전당 정류장에 하차해 3분 정도 걸으면 예술의전당에 도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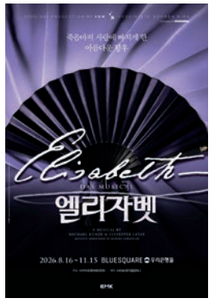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1688-1352

## 〈엘리자벳〉

서울 08.16~11.15

뮤지컬 <엘리자벳>이 4년 만에 여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실존 인물인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의 삶에 허구의 초월적 존재인 '죽음'을 등장시켜 화려한 황실 속 한 인간의 고독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그린다. 강렬한 록 사운드와 서정적인 선율을 넘나드는 넘버가 인물의 감정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주인공 엘리자벳 역에는 린아, 이지수, 이지혜, 박지연이 출연한다. 서울역에서 402번 버스를 타고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블루스퀘어 정류장에 내려 2분 정도 걸으면 블루스퀘어가 나온다.




**장소** 서울 블루스퀘어
**문의** 02-6391-6333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제30회 울산고래축제

울산 10.15~18

국내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장생포에서 고래를 테마로 한 축제가 펼쳐진다.
올해는 30주년을 맞아 울산 구민 300명이
노래하는 대합창 '고래의 노래'와 축제 30년사를
집대성한 아카이브 전시 <고래의 시간>을
준비했다. 고래등 만들기 체험,
고래 탐험대 패밀리 투어, 고래
가족 가요제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인근에 위치한 고래바다여행선,
고래생태체험관, 장생포문화창고를
함께 둘러봐도 좋다. 울산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차로
35분 정도 걸린다.




**장소**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문의** 052-270-9324

## 2026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춘천 10.14~18

춘천을 대표하는 막국수와
닭갈비를 한자리에서 맛보는
축제가 열린다. 로컬 맛집의 음식을
즐기는 것은 기본, 축제 기간에 한해
막국수·닭갈비 포장 키트를 판매한다.
막국수와 닭갈비를 소재로 한 증강
현실(AR) 체험과 원목 닭갈비 뒤집기
같은 이색 프로그램은 가족여행객의
발길을 붙든다. 명동에서는 상가
이용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축제
연계 할인권을 증정한다. 춘천역에서
16번 버스를 타고 남부노인복지관
정류장에 내려 7분 정도 걸으면
공지천 산책로에 닿는다.




**장소** 강원 춘천 공지천 산책로 일대
**문의** 070-7576-1657



가면, 모두의 기억, 탈춤의 흥
2026
안동국제
탈춤페스티벌
Andong Maskdance Festival 2026
중앙선 1942 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2026. 9. 24 (목) - 10.4 (일)
주관 | 한국정신문화재단 KOREA FOUNDATION FOR CULTURES AND ETHICS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국가유산청 Korea Heritage Service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안동시 ANDONG CITY

# 기차 타고 가는 10월 전국 축제

기차와 연계 교통수단으로
즐기는 10월의 전국 축제를
소개한다.

전국 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EVENT**

퀴즈 풀고 KTX 할인 쿠폰 &
이달의 경품 받자!

**응모 방법**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은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응모 기간**
10월 1일~20일

**상품**
KTX 운임 10퍼센트 할인 쿠폰
10명(1인 2매)
두륜산 케이블카 이용권
10명(1인 2매)

**당첨자 발표**
10월 26일, 기차여행 홈페이지
(korail.com/tour/main)에 공지



*찾아가는 법은 평일 오전 출발 기준

## 1 울산



### 제30회 울산고래축제
**기간** 10월 15일~18일
**장소**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찾아가는 법** 울산역에서 차로 35분

## 2 김천



### 2026 김천김밥축제
**기간** 10월 23일~25일
**장소** 경북 김천 사명대사공원 일원
**찾아가는 법** 김천구미역에서 차로 30분

## 3 부산



###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10월 6일~15일
**장소** 부산 영화의전당
**찾아가는 법** 부산역에서 40번 버스를 타고 신세계센텀시티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0분

## 4 해남



### 2026 해남미남축제
**기간** 10월 30일~11월 1일
**장소** 전남광주 해남 두륜산도립공원 일원
**찾아가는 법** 해남역에서 차로 20분

## 5 춘천




### 2026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기간** 10월 14일~18일
**장소** 강원 춘천 공지천 산책로 일대
**찾아가는 법** 춘천역에서 16번 버스를 타고 남부노인복지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7분

## 6 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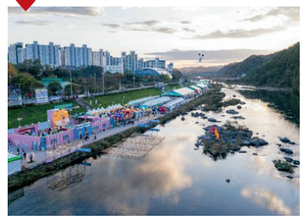
###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
**기간** 10월 2일~11일
**장소** 충남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
**찾아가는 법** 대전역에서 금산행 시외버스를 타고 금산터미널 하차 후 셔틀버스 이용

## 7 가평



### 제23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기간** 10월 9일~11일
**장소** 경기 가평 자라섬 및 가평읍 일대
**찾아가는 법** 가평역에서 도보 20분

## 8 횡성



### 제22회 횡성한우축제
**기간** 10월 7일~11일
**장소** 강원 횡성 섬강 둔치 일원
**찾아가는 법** 횡성역에서 차로 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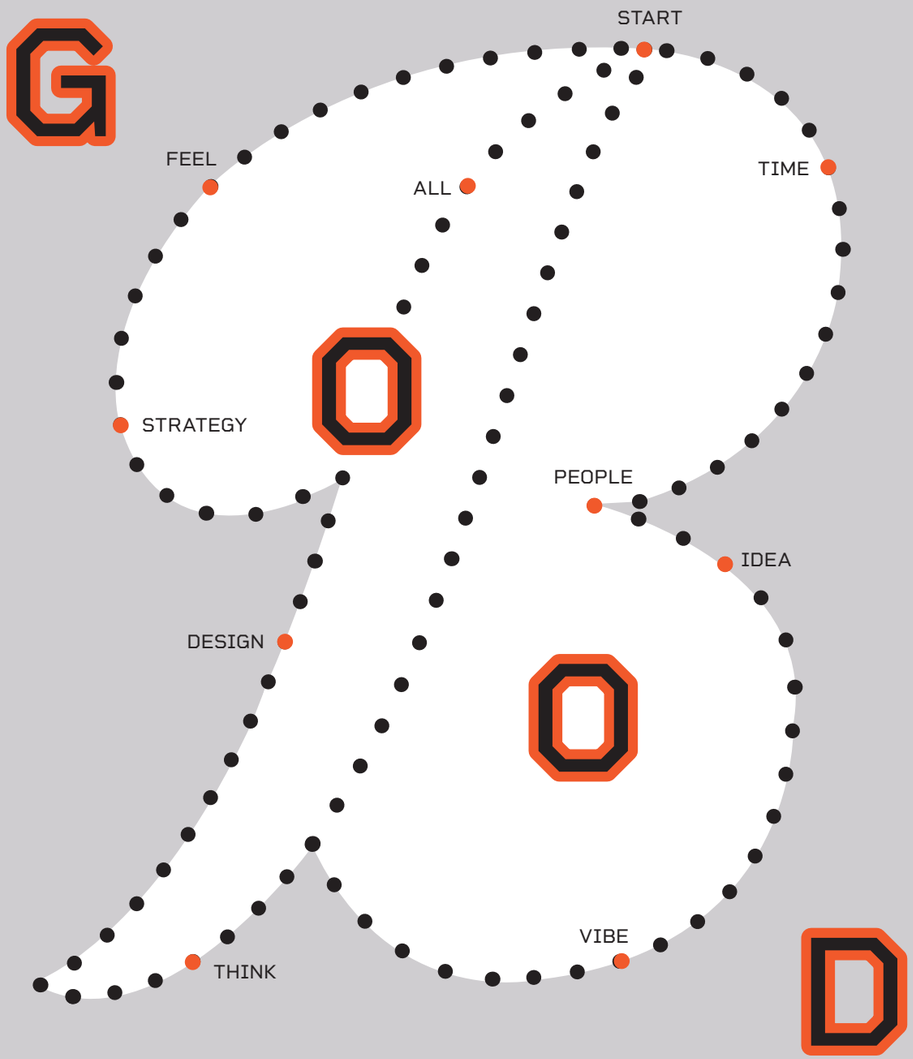
## 9 고창



### 제53회 고창모양성제
**기간** 10월 15일~19일
**장소** 전북 고창읍성 일원
**찾아가는 법** 정읍역에서 차로 30분

# Good People, Good Connections, Good Beginnings

좋은 사람, 좋은 만남, 좋은 시작




bandicom ㈜반디캠 www.bandicom.com 문의 02-2272-1190


경기도 GYEONGGI-DO

천하제일 경기 고려 인삼

10월엔 경기도에서

# 인삼축제

즐기세요!

천하제일 경기 인삼 천경삼

개성인삼농협
김포파주인삼농협
서울동경기인삼농협
안성인삼농협

**이천 인삼건강축제**
10.9 (금) - 10.11 (일)
장소 : 서울동경기인삼농협 이천인삼판매센터
주최 및 주관 : 이천시 | 서울동경기인삼농협 이천인삼건강축제추진위원회

**포천 개성인삼축제**
10.17 (토) - 10.18 (일)
장소 : 한탄강 Y자형 출렁다리 축제마당
주최 및 주관 : 개성인삼농협

**파주 개성인삼축제**
10.17 (토) - 10.18 (일)
장소 : 파주시 임진각 광장
주최 및 주관 : 파주시 | 파주개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

**안성 마춤 인삼직거래장터**
10.24 (토) - 10.25 (일)
장소 : 안성인삼농협 본점 주차장
주최 및 주관 : 안성인삼농협

※ 일자 및 장소는 각 축제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축제 홍보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인삼 온라인 특판전
9~10월 두 달간 농협몰(www.nonghyupmall.com) 에서 경기도 우수 인삼 가공품을 최대 60% 할인판매 합니다.

〈 예산소진시 할인행사 조기 종료 가능 〉

천경삼은 경기도 4개 인삼농협이 함께하는 경기도 인삼 통합브랜드 입니다.

경기농협



# 심봤다! 천경삼을 만날 기회

국내 6년근 인삼 최대 산지 경기도에서
10월 한 달 동안 인삼 축제와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려·개성 인삼의 명맥을 잇는 천경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자리다.




### 진세노사이드가 풍부한 경기 인삼

예로부터 인삼은 하늘이 내린 영험하고 신비한 약초로 여겼다. 생육 조건이 까다로워 사람의 힘만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인삼은 사람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배하는 데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한다.

경기도는 고려·개성 인삼의 주요 재배지다. 한국전쟁 이후 개성 인삼의 전통 재배 기술과 명맥을 계승한 농가들이 경기 북부(포천, 파주)와 남부(이천, 안성)에 정착하면서 오늘날의 경기 인삼 산지가 형성됐다. 특히 경기도는 6년근 인삼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꼽힌다.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우수해 타 지역 제품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최대 1.7배 높다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 결과도 있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든 사포닌 성분으로 항암·항산화 작용과 동맥경화 및 고혈압 예방, 간 기능 강화, 숙취 해소 등의 효능이 보고됐다. 2009년 경기도청과 경기농협, 그리고 서울동경기·개성·김포파주·안성 등 도내 4개 인삼농협이 협력해 통합 브랜드 '천경삼(천하제일 경기 고려인삼)'을 출시했다. 생산에서 출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안전 관리와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이 우수하고,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한 달 동안 이천과 포천, 파주, 안성에서 천경삼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인삼 축제가 연이어 열린다. 천년 역사를 간직한 경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삼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인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 건강 챙기고 행복감 높이는 경기 인삼 축제

축제의 포문을 여는 곳은 이천이다. 1960년대부터 인삼을 경작해 온 이천은 일교차가 크고 결실기 일조량이 풍부해 생육 후기까지 인삼이 충분한 영양을 흡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천 인삼건강축제에서는 서울동경기인삼농협의 수삼과 홍삼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10월 17일과 18일에는 개성 인삼의 전통성을 잇는 개성인삼축제가 포천과 파주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고려 중기 이후 개성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 온 개성 인삼은 한국전쟁 이후 삼농들이 남하하면서 재배지가 확산됐다. 각 시군이 품질을 보증하는 6년근 개성 인삼을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가 열리며, 개성인삼농협의 '한송정'과 김포파주인삼농협의 '천년송삼' 등 대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월 24일과 25일에는 안성에서 '안성마춤 인삼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안성인삼농협 본점에서 개최하는 이 장터에서는 농가가 직접 재배하고 안성인삼농협이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하는 브랜드 '명삼원'의 6년근 홍삼과 수삼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축제장마다 갓 수확한 명품 6년근 인삼과 가공품을 할인 판매하며 인삼튀김, 인삼김치, 인삼주 등 먹거리 체험과 문화 공연, 시민 참여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한다.

온라인에서도 인삼 축제가 이어진다. 9~10월 농협몰 홈페이지(nonghyupmall.com)를 통해 경기도 인삼 가공품을 최대 60퍼센트까지 할인 판매한다. 서울동경기인삼농협, 개성인삼농협, 김포파주인삼농협, 안성인삼농협 등 경기도 관내 4개 인삼농협이 참여해 천경삼의 다양한 홍삼 가공 제품을 선보인다.






제작 지원 농협경제지주




## 천하제일 경기 고려인삼 축제 일정




**이천 인삼건강축제**
**기간** 10월 9일~11일
**장소** 서울동경기인삼농협 이천인삼판매센터
**홈페이지** kginsam.nonghyup.com




**포천 개성인삼축제**
**기간** 10월 17일~18일
**장소** 경기 포천 한탄강 Y자형 출렁다리 축제마당
**홈페이지** nonghyup-gsmall.com




**파주 개성인삼축제**
**기간** 10월 17일~18일
**장소** 경기 파주 임진각 광장
**홈페이지** gimpopajuinsam.com




**안성마춤 인삼직거래장터**
**기간** 10월 24일~25일
**장소** 경기 안성인삼농협 주차장
**홈페이지** asinsammall.com





#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공디자인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 '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이 열린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은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연결과 실험의 장으로 올해 5회를 맞는다. 공공디자인이 이끄는 경험과 연결에 주목한 페스티벌은 진행 방식도 연결과 지역을 강조한다. 단일 전시관에서 열리는 박람회 형태와 달리 전국 각지의 공공디자인 거점에서 전시, 포럼 및 체험 프로그램을 분산적으로 진행한다. 이들 공공디자인 거점은 공간, 건축, 문화, 서비스, 정책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공공디자인 활동과 경험을 시민과 연결하는 페스티벌의 지역 파트너 역할을 한다. 올해는 서울의 문화역서울284를 비롯해 전국 공공디자인 거점 230곳이 페스티벌의 무대가 된다. 서울의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경기 고양의 고양어린이박물관, 충남 천안의 뚜쥬루 빵돌가마마을, 전북 남원의 피오리움, 강원 원주의 원주아트갤러리, 경북 영주의 148아트스퀘어 등 전국의 공공디자인 거점은 지역 커뮤니티, 독서 문화 공간, 지역 체험 공간, 유휴 공간 재생, 사용자 참여 설계 등의 가치를 지니며, 공공디자인을 단순한 공간·시설 개선 사례를 넘어 장소성, 주민 참여, 서비스, 경험까지 잇는 공공 문화 경험으로 확장한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 기간에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전국 공공디자인 관련 대학(원) 8개가 창의적 공공디자인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공공디자인 실험실', 한국과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8명이 '공공'과 '디자인'을 주제로 각각의 활동을 소개하는 페차쿠차, 공공디자인 관련 학계·지자체·기관·기업 등이 참여해 '공공디자인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변화하는 공공 경험과 재구성되는 도시 시스템'에 관한 사례와 담론을 나누는 공공디자인 포럼 등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문화역서울284에서는 페스티벌 전 기간 동안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작을 만나볼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돌봄의 디자인>전에는 김태동, 데이지 지옌 장, 라드(RAD), 최정화 등 20명(팀)이 참여해 공공디자인을 '만드는 행위'가 아닌 '유지하고 돌보는 실천'으로 조명한다.

###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

**기간** 10월 23일~11월 1일
**장소** 문화역서울284 및 전국 공공디자인 거점 230곳







**1** 어린이 워크숍 '햇밀탐험대'(남대영기념관). **2** 어린이 공공디자인전 기획 전시. **3** <돌봄의 디자인> 전시장 전경. **4** 원주아트갤러리 전경. **5** 광주 폴리 현장 탐방.

**제작 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6
Public Design Festival
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공공디자인
2026.10.23.-11.1.
문화역서울284 및
전국 공공디자인 거점

주최 Hosted by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주관 Organized by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협력 Partnered with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남원시 수원특례시 의정부시 천안시 청주시 광주디자인진흥원 부산시설공단 책읽는사회문화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 온양민속박물관 해피빈 designhouse 마르쉐@ 삼다수 edelground

publicdesign.kr/festival




# 공예의 즐거움을 찾아 김해 여행

**올가을 경남 김해를 찾는다면 공예를 테마로 도시 곳곳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가 마련한 '세라투어'는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 전시부터 공방까지, 공예를 만나는 세라투어

부울경 권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의 플랫폼,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세라투어(C.E.R.A Tour)는 공예를 매개로 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기관·기업·학교·동호회 등 10명 이상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센터 체험형, 전시·공방 투어형, 복합 공방 투어형, 맞춤형 단체 투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공예를 가볍게 경험하고 싶다면 센터 체험형이 제격이다.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한 뒤 공예 체험이 한자리에서 이어진다. 현재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전시는 세 개. 익숙한 공공 미술관을 새롭게 바라보는 특별 기획전 <주름과 덧댐>, 인간의 선택이 미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미디어 아트 전시 <카본 클럭>, 세라믹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감정의 세계를 탐구해 온 강경연의 작품을 조명하는 소장품전 <2026, 보이지 않는 UNSEEN>이다. 전시 관람 뒤에는 가죽 카드 지갑 만들기, 우드카빙 티코스터 만들기, 컵 또는 접시 만들기 중 하나를 선택해 2~3시간 정도 체험한다. 완성된 작품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전시·공방 투어형은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한 뒤 지역 공방으로 이동해 공예를 체험하는 방식이다. 작가와 작품 세계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복합 공방 투어형도 있다. 지역 공방을 찾아가 작가에게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듣고, 내 손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완성한다. 다른 유형과 달리 10명 안팎의 소규모로 진행해 작가와 가까이서 호흡하며 공예를 체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율적인 코스를 원한다면 맞춤형 단체 투어를 추천한다. 일정과 인원, 참가 단체의 특성에 맞춰 체험 종류와 장소를 정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 공예의 깊이를 더하는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 전남광주, 진주, 청주, 김해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운영하는 융합형 공예 플랫폼 중 하나다. 각 센터는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와 지역 주민, 관람객이 공예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가을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공예가와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일반인을 위한 '공예사계'에서는 '공예 다반사(茶飯事)'를 주제로 죽공예가 김세영과 함께 대나무 티 매트를 만든다. 공예 입문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진행한다.

부울경 권역에서 활동하는 공예가를 위한 교육과정도 이어진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3주간 열리는 '디지털 공예가 양성 교육' 중급 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히고 이를 실제 공예 창작에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유리공예가 양성 교육 응용반'은 10월 중 진행한다. 기초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이 유리공예 심화 기법을 습득하고 직접 작품을 기획 및 제작한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의 유리공예실과 장비를 활용해 작품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공방에서 작가의 창작 과정을 살펴본 뒤, 내 손으로 만든 공예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여행. 공예를 주제로 한 색다른 김해 여행이 올가을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 2026 세라투어(C.E.R.A Tour)

**신청 대상** 기업, 학교, 동호회 등 단체(10명 이상)
**신청 기간** 2026년 11월까지(사전 예약제로 운영)
**신청 방법** 전화 문의 후 프로그램 및 일정 협의
**장소** 경남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지역 참여 공방
**문의** 055-340-7055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지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파마리서치의 아름다운 순환

강원 강릉 남대천에서 시작된 연어 이야기가 K-바이오 특허로 이어지고, 세계인의 피부 건강을 위한 기술로 확장됐다. 이러한 물결은 다시 사람과 지식, 투자를 강릉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리쥬란'을 글로벌 에스테틱 브랜드로 성장시킨 (주)파마리서치 얘기다.



1



2




4



5

1 파마리서치는 연어 DNA에서 추출한 PN 성분의 스킨부스터 리쥬란을 생산한다.
2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착공한 파마리서치 제5공장 조감도.
3 해마다 강릉에서 개최하는 파마리서치 글로벌 심포지엄.
4,5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이 주최하는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예술을 매개로 지역과 사람을 연결한다.



3

### 버려진 자원에서 발견한 가능성

해마다 10~11월이면 강원 강릉 남대천의 물살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산란을 앞둔 연어들이 먼바다에서 돌아와 하류에 모이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상류로 향한다. 새끼 연어는 바다로 나가 성장한 뒤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온다. 파마리서치는 이처럼 연어가 회귀하고 순환하며 남긴 자원에 주목했다.

강릉과 파마리서치의 인연은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과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가 본격화되던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PDRN과 PN은 연어과 어류의 생식세포에서 얻은 DNA를 정제·가공한 물질이다. 파마리서치는 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의 핵심 무대는 강릉이었다. 2011년 강릉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열어 DNA 최적화 기술 상용화 연구를 본격화했으며, 이듬해 한국수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연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진이 주목한 것은 활용도가 낮은, 인공수정 이후 수컷 연어의 생식세포였다. 부산물로 여기던 자원을 확보해 DNA를 추출하고 정제한 뒤 인체에 맞게 가공하는 연구를 이어 갔다. 강으로 돌아온 연어가 남긴 자원이 강릉의 연구실과 공장을 거치며 또 다른 생명과 건강을 위한 소재가 된 것이다.

### 강릉에서 시작된 기술이 세계인의 일상으로

파마리서치는 오랜 연구를 통해 연어에서 얻은 DNA를 추출·정제하고 최적화하는 독자적 기술 DOT®(DNA Optimizing Technology)로 특허를 취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 '리안'과 '리쥬비넥스크림', 의료 기기 '리쥬란', 피부 관리 '리쥬란코스메틱'뿐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까지 영역을 넓혀 왔다. 하나의 자원에서 시작된 연구가 재생 의학을 넘어 메디컬 에스테틱과 일상의 피부 관리 영역으로 뻗어 나간 것이다. 이 중에서도 PN을 주성분으로 하는 리쥬란은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술 문화를 형성하며 대표적인 K-메디컬 에스테틱 브랜드로 성장했다. 파마리서치는 이러한 제품의 경쟁력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며 한국의 메디컬 에스테틱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최근 한국의 앞선 의료·뷰티 기술을 경험하기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리쥬란은 한국 대표 피부 미용 시술로 주목받으며 K-의료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해외에서 쌓인 브랜드 인지도가 한국 의료 기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인이 한국을 찾는 또 다른 회귀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뿐 아니라 리쥬란코스메틱이 해외시장의 유통 기반을 넓히며 소비자와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시작된 리쥬란의 브랜드 경험이 일상적 피부 관리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코스메틱을 통해 쌓은 브랜드 경험은 다시 한국의 의료·뷰티 기술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 세계를 돌아 다시 강릉으로

파마리서치는 최근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제5공장을 착공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원료 생산 시설과 화장품 생산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용과 지역 협력을 통해 강릉과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넓혀 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강릉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파마리서치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리쥬란의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학술 교류의 장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약 700명의 의료진과 연구진이 모여 DOT® PN의 연구와 임상 성과를 나눌 예정이다.

파마리서치의 '재생' 활동은 강릉 시민의 일상으로도 번지고 있다. 2018년 파마리서치문화재단을 설립한 파마리서치는 2022년부터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강릉의 자연과 역사, 도시 이야기를 현대 미술가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예술 축제로, 강릉 전역을 무대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예술이 전시장을 벗어나 일상으로 스며들어 관람객이 강릉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한다. 내년 봄에는 제4회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가을이면 연어는 고향의 물길로 돌아온다. 파마리서치의 기술 역시 세계로 뻗어 나갔다가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와 사람과 지식, 투자를 불러들이고 있다. 자연의 회귀가 기술의 순환으로, 기술의 순환이 글로벌 브랜드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다. 강릉 연어에서 시작된 파마리서치와 리쥬란의 이야기는 세계를 무대로 성장한 K-바이오의 여정을 넘어 다시 강릉에서 더 큰 미래를 열어 가고 있다.

제작 지원 (주)파마리서치

EDITOR 이미선 · PHOTOGRAPHER 안홍범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느림의 미학
# 원주

섬강의 투명한 물을 끌어와 대지를 적시고, 치악산 푸른 봉우리를 모아 하늘에 이었다.
고요한 자연을 품고 살아가는 강원 원주 사람들의 삶에는 묵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가을의 가장자리를 걸어 표표히 사유의 바다로 향한다.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 하늘을 걷는 기분, 소금산 그랜드밸리

투명한 유리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뱃속에서 수백만 마리의 나비가 춤을 추는 것 같다. 먼 곳에 시선을 두고 천천히 발걸음을 뗀다. 골짜기에 부는 가을바람보다 심장 뛰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100미터 상공에 설치한 소금산 출렁다리를 앞에 두고 만감이 교차한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섬강과 삼산천이 만나는 물길을 사이에 두고 봉긋하게 솟은 소금산과 간현봉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지다. 케이블카를 타고 소금산에 올라 길이 200미터의 출렁다리를 건너 하늘정원을 돌아보고, 암벽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소금 잔도를 건너 전망대 스카이타워에 올라 소금산의 절경을 감상한 다음 길이 404미터의 울렁다리를 건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코스다. 천천히 둘러보는 데 2시간 정도 걸린다. 주말 저녁이면 암벽을 이용해 미디어 아트 '나오라쇼'를 상영한다.

**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317
**문의** 033-749-4860





## 가을의 꽃, 반계리 은행나무

2024년 원주시역사박물관은 국립산림과학원에 반계리 은행나무의 정확한 나이 측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1317년, 국내 최고령 은행나무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는 목편을 추출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수령 추정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수치다. 일반적인 수령 측정 방법과 달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진위와 별개로 반계리 은행나무의 인기는 더 높아졌다. 높이 32미터, 몸통 둘레 16.27미터, 밑둥 둘레 14.5미터에 달하는 이 나무는 마치 일곱 그루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옛날 옛적 고승이 길을 걷다 물을 마신 뒤 지팡이를 꽂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얼마 뒤 지팡이에서 싹이 텄고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 은행나무가 됐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반계리 은행나무 단풍 상황은 네이버 지도 CCTV 테마 탭에서 '국도 42호선 반계IC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5-1



© 원주시청



## 예술을 입고 시민 곁으로 돌아온, 치악산바람길숲

하늘은 높고 구름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가을 초입의 따가운 햇살을 이고 무작정 걷기 좋은 계절이다. 원주의 걷기 코스 중 지난해 10월 개통한 치악산바람길숲은 옛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도심형 산책로다.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 후문에서 구 반곡역까지 11.3킬로미터에 이르며, 구간마다 각기 다른 테마로 꾸몄다. 활력의 숲, 일상의 숲, 힐링의 숲 등 세 개의 숲길을 걷다 보면 구간마다 달라지는 수종과 조형물을 만난다. 옛 원주역을 새 단장한 원주센트럴파크를 비롯해 중앙시장과 연결되는 중앙광장, 무지개 철길로 변모한 유교역 광장,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옛 반곡역사 등 볼거리가 많다. 하이라이트는 원주터널. 입구에서 우주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를 상영하고, 터널 내부에는 바닷속을 헤엄치는 고래를 형상화한 경관 조명이 종일 반짝인다.

**주소** 강원 원주시 우산동 186-8(한라비발디아파트 출발 시)

## 하루의 끝, 붉게 물든 흥원창

충주를 지나온 남한강과 횡성에서 발원한 섬강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움직이지 않는 배 한 척이 정박해 있다. 조선 시대 세곡 운반선인 조운선을 모티브로 한 전망대다. 흥원창은 조선 시대 소양강창, 가흥창과 함께 좌수참에 소속돼 인근 고을의 세곡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강원 영서 지방 5개 고을의 세곡을 수납해 보관했다가 서울 조창(조세로 거둔 현물을 모아 보관하는 창고)으로 운송하던 곳이다. 조창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아름다운 일몰은 그대로다.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곳이지만 남한강자전거도로와 원주굽이길이 지나 행인이 많다. 원주굽이길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포장길을 피하고 흙길과 숲길, 물길, 마을 안길을 연결한 길이다. 흥원창은 20코스로 이뤄진 원주굽이길 8코스에 있다.

**주소** 강원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972





# Wonju, the Beauty of Slowness

A profound sense of tranquility permeates the lives of the people of Wonju, Gangwon-do, who live surrounded by serene nature. With autumn approaching, wander quietly toward a sea of contemplation.

## A Feeling of Walking in the Sky, Sogeumsan Mountain Grand Valley

This tourist attraction makes use of the natural landscape of Sogeumsan Mountain and Ganhyeonbong Peak, which rise on either side of the waterway where the Seomgang River and Samsancheon Stream meet. The course begins with a cable car ride up Sogeumsan Mountain, followed by a crossing of the 200-meter-long Suspension Bridge. After exploring Sky Garden, visitors cross the Sogeum Jando, a cliffside walkway that traverses the mountainside, and ascend Sky Tower Observatory to take in the spectacular views. The route then continues across the 404-meter-long Ulleong Bridge before descending by escalator. It takes approximately two hours to explore at a leisurely pace.

**Address** 317, Jijeong-ro, Jijeong-myeon, Wonju-si, Gangwon-do

## Chiaksan Baramgil Forest, Returned to the Citizens

Opened in October 2025, Chiaksan Baramgil Forest is an 11.3-kilometer urban walking trail created along a former section of the Jungang Line railway. Highlights include Wonju Central Park, a renovated version of the old Wonju Station; Jungang Plaza, which connects to Jungang Market; Wonju Tunnel, decorated with media art; Yugyo Station Plaza, transformed into a rainbow railway; and the former Bangok Station, designated as a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Address** 186-8, Usan-dong, Wonju-si, Gangwon-do (Halla Vivaldi Apartments)

## Bangye-ri Ginkgo Tree, the Beauty of Autumn

Natural Monument, the Bangye-ri Ginkgo Tree is the country's oldest tree. Measuring 32 meters in height, with a trunk circumference of 16.27 meters and a base circumference of 14.5 meters, the tree appears almost as though seven separate trees have grown together. Local lore holds that a good harvest will follow if the tree's leaves all turn yellow at once.

**Address** 42, Banjeori 2-gil, Munmak-eup, Wonju-si, Gangwon-do

# 위대한 유산

**전통 한지 작업장, 대문호의 집, 명상하는 미술관까지.
마음에 쉼표를 찍고 원주가 품은 위대한 유산과 만난다.**

## 백 번의 손길, 원주 한지

서울 종로의 한지가헌에서 한지 공예 전시를 본 적이 있다. 시서화의 매체로만 생각했던 한지가 조형예술로 재탄생한 것을 보고 감탄했다. 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원주한지테마파크를 찾아가 문화해설사와 함께 전시관을 둘러봤다. 원주에 닥나무가 많아 한지 문화가 발달했으며 지금도 곳곳에 관련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로 시작한 해설은 종이의 발명과 이동, 한지 공예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원주에 무형문화유산 한지장 보유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원주한지로 향했다.

닥나무로 담장을 세운 단층 건물로 들어서자 장응열 장인의 아내와 딸, 사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아내는 닥나무 섬유에서 불순물을 고르고, 사위는 쌍발뜨기(발틀 안에 물을 가두어 한지를 뜨는 방식)로 색지를 뜨고, 딸은 장작불로 데운 철판에 한지를 건조 중이다.

"한지를 백지라고도 해요. 흰 백(白)이 아닌 백 백(百)을 쓰는데, 백 번 손길이 닿아야 비로소 한지가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들려면 1년 내내 쉴 틈이 없다. 겨울이면 섬유질이 풍부해진 닥나무를 베어 물에 삶는다. 겉껍질인 피닥을 벗기고 흰 속껍질 백닥만 남긴 다음 잿물로 다시 삶으면 실 같은 섬유만 남는데, 이를 방망이로 찧어 만든 것이 닥죽이다. 지통에 물을 붓고 황촉규 뿌리에서 얻은 접착제인 닥풀과 닥죽으로 닥물을 만든다. 이제 한지를 뜰 차례다. 장응열 장인은 전통 방식인 외발뜨기를 고수한다. 대나무 발틀을 하나의 줄에 묶고 앞뒤, 대각선, 좌우로 흔들어 섬유를 건져 올리는 과정에서 섬유층이 쌓이며 고른 결이 만들어지는데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다. 이렇게 완성한 습지는 포개어 물기를 빼고 건조한 다음 두드리는 도침 과정을 거친다. 섬유 사이의 틈을 메우고 표면을 고르게 다듬는 작업이다.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종이는 이렇게 탄생한다.

장응열 장인 집안에서는 할아버지 대부터 한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가업을 잇기 싫었던 그는 전기 기술을 배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다 아버지의 부고를 접했고, '전통 한지의 맥을 이었으면 좋겠다'는 유지에 따라 원주로 돌아왔다. 그 무렵 원주한지 인근에는 한지 작업장이 열 군데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일이 워낙 고되고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기술을 꼭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장인의 시선이,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색지를 뜨는 사위를 향한다.


1

### 원주한지테마파크

종이의 발명부터 이동, 한지의 유래와 쓰임, 원주 지역의 한지 문화, 닥나무를 이용해 종이를 만드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질기고 보존성이 뛰어난 한지는 책과 문서뿐 아니라 창호, 생활용품, 장식품, 조형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했다. 원주한지테마파크의 전시를 따라가다 보면 한지가 단순한 종이를 넘어 한국의 미감과 기술이 축적된 문화유산임을 알게 된다. 예약하면 한지로 생활 소품을 만드는 공예 체험과 한지 뜨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여러 겹의 섬유가 만들어 내는 한지의 질감을 경험할 수 있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다.

**주소** 강원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문의** 033-734-4739



2


3

**1** 장응열 무형문화유산 한지장 보유자가 전통 방식인 외발뜨기로 한지를 뜨고 있다. **2, 3** 한지가 단순한 종이를 넘어 한국의 미감과 기술이 축적된 문화유산임을 보여주는 원주한지테마파크.

## 우리에겐 박경리가 있다

2026년은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인 해다. 얼마 전 박경리 작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작가의 서울 정릉 집터를 찾아갔는데, 잡초 속에 방치돼 있어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작가가 말년을 보낸 원주의 집들은 무사할까. 박경리문학공원으로 향했다. 박경리 작가가 1980년 서울을 떠나 1994년까지 살며 〈토지〉 4부와 5부를 집필한 옛집과 주변을 보존해 조성한 공간이다. 해설 시간에 맞춰 '박경리 문학의 집'에 들어서니 문화해설사가 반갑게 맞는다. 불행한 학창 시절과 짧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 김동리 작가의 눈에 들어 등단한 일, 김지하 시인과 딸의 결혼, 딸의 가족을 따라 원주에 정착한 이야기 등 작품 너머의 작가와 만날 수 있었다. 누구나 〈토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전시장과 육필 원고도 인상적이다. 박경리 문학의 집을 나와 옛집으로 향했다. 예약자에 한해 개방하는 곳이다. 야트막한 구릉 위 단아한 이층집이 눈에 들어온다. 안으로 들어서니 작가가 사용한 소파와 탁자가 놓인 거실부터 서재, 안방까지 시간이 박제된 듯하다. 서재 옆 집필실에는 옷장과 책상, 방석 하나가 전부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문호의 집필실이 그토록 소박했다는 게 놀랍다. 박경리 문학의 집과 옛집 사이에는 카페 '서희'가 있다. 2023년 TV 예능 프로그램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과 협업해 리모델링하면서 블루리본 스티커가 두 장이나 붙은 집이다. 박경리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군고구마 라테 '토지', 메밀과 쑥을 이용한 밀크 슈페너 '서희'가 인기 메뉴다.

박경리 작가가 머문 지역에는 그를 기억하려는 공간이 있다. 고향인 통영에는 묘지와 함께 박경리기념관이 있고, 〈토지〉의 주요 배경인 하동 평사리에는 박경리문학관과 함께 드라마 〈토지〉 세트장이 있으며, 원주에는 박경리문학공원과 박경리뮤지엄이 있다. 2021년 작가가 생애 마지막 10년을 보낸 집에 개관한 박경리뮤지엄으로 향했다. 내부에는 소박한 일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지하는 많은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왔고, 이를 생명 사상과 연민으로 체화했던 작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전시실로 꾸몄다. 박경리뮤지엄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 한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작가의 동상에 시선이 머문다. 같은 동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에도 있다. 한러대화(한국 러시아 간 민관 대화 채널)의 문화 외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알렉산드르 푸시킨 동상을 보내온 것에 대한 화답이다. 생각해 보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푸시킨의 문장과 "슬픔도 기쁨도 왜 이리 찬란한가"라는 박경리 작가의 문장이 닮은 듯하다. 삶의 고통과 기쁨을 모두 긍정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깊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고 위로하지 않는가.

**주소** 강원 원주시 토지길 1(박경리문학공원), 흥업면 매지회촌길 79-1(박경리뮤지엄)
**문의** 033-762-6843(박경리문학공원), 070-7734-2777(박경리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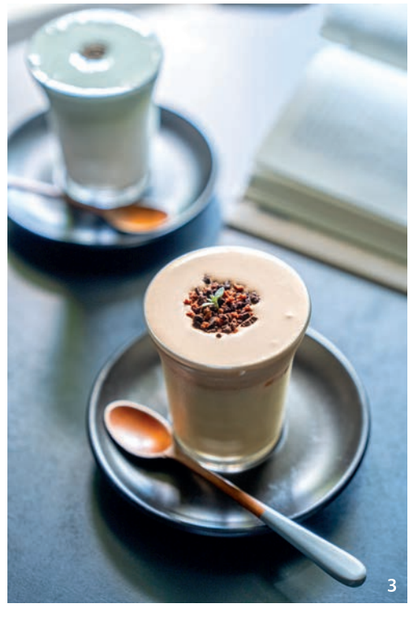


1

**1** 박경리 작가가 생애 마지막 10년을 보낸 집에 마련한 박경리뮤지엄. **2** 박경리문학공원 내에는 작가가 원주에 내려와 1994년까지 살았던 옛집이 보존돼 있다. **3** 박경리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카페 서희는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해 메뉴를 개발했다.



2



3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김세희**

**박경리뮤지엄을 둘러보니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 할머니가 형과 저를 많이 돌봐 주셨어요. 지금 박경리문학공원이 된 옛집에 대한 추억이 특히 많죠. 할머니는 비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은 제가 유령이 나타날까 무서워서 밤에 어두운 곳에 가기 싫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유령도 불쌍한 존재이니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자연의 모든 존재에 생명이 있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는 걸 다 자란 후에 알게 됐죠.

**이사장님이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저는 시를 더 좋아해요. 할머니의 시는 저를 포함한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산다는 슬픔>도 시집이에요. 토지문화재단 소장 자료에서 발굴한 미공개 시 47편을 엮었어요. 고도로 농축된 슬픔이 드러나 할머니의 인간적인 모습을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박경리뮤지엄 관람 포인트를 알려 주세요.**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유품을 둘러보면 할머니가 살아온 삶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근검절약하고 생명을 깊이 사랑했던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경리라는 한 작가가 남긴 문학적 업적, 후배들을 위해 일군 창작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거쳐 간 수많은 작가가 만들어 낸 한국 문학·문화의 위상은 단지 원주라는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가치가 아니에요. KTX를 타고 문학창의도시 원주를 지날 때,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함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 미술과 건축과 명상의 공명, 뮤지엄 산

미술품을 감상하는 일은 시를 읽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들여 꼼꼼히 살피고, 작품의 배경과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하며 상상의 퍼즐을 맞춰야 겨우 작가의 생각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 너머의 텍스트를 읽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시는 여백이 많은 매체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이 적극적이고 느린 호흡이 명상과 닿아 있다. 그래서 여행할 때마다 미술관을 일정에 포함시키는 편이다. 원주 여행에서는 뮤지엄 산을 추가했다. 작품 감상과 연계한 명상 워크숍이나 미술관 안팎의 정원을 거닐며 자연의 시간을 탐구하는 프로그램, 호흡을 의식하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낮추는 프로그램 등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노출 콘크리트의 간결한 선이 산자락에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뮤지엄 산에 도착했다. '소통'을 위한 단절을 슬로건으로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곳이다. 그중 명상관은 2019년,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추가했다. 돔 형태의 명상관에 들어서니 천장의 좁고 긴 틈새로 빛이 스며든다. 매트에 눕자 시선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모인다. 싱잉볼 연주자가 볼을 두드리며 소리를 낸다. 금속이 진동하며 만들어 내는 배음이 공간을 채운다. 소리가 몸을 통과해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 공간은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회차별로 쉼, 여유, 자연의 소리, 라이브 싱잉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명상관을 나와 스톤가든 끝자락으로 걸어가면 제임스 터렐관이 나온다. 안으로 들어서면 스카이스페이스, 스페이스 디비전, 호라이즌룸, 웨지워크, 간츠펠트 등 다섯 작품이 기다린다. 각각의 방은 빛과 공간의 착시를 이용해 보는 이로 하여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한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스카이스페이스. 천장에 뚫린 타원형의 구멍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공간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늘 색이 변하고 방 안의 벽과 바닥까지 물들인다. 수평선이 무한히 이어지는 착시를 만들어 내는 호라이즌룸은 어디가 벽이고 어디가 공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서 있었다.

안도 다다오와 안토니 곰리의 협업으로 탄생한 그라운드로 향했다. 돔 중앙에 원형 천창이 뚫려 있어 고대 로마의 판테온을 연상시킨다. 땅속에 묻힌 거대한 돔은 무덤처럼 고요하지만,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바람, 그리고 관람객의 숨소리가 공간을 살아 있게 만든다. 그라운드 곳곳에 놓인 안토니 곰리의 '블록 워크' 시리즈 역시 멀리서 보면 추상적인 기둥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 형상을 하고 있다.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웅크린 자세의 조각 사이사이를 거닐다 한참을 누워 있었다. 비움은 결핍이나 공백이 아닌 감정이나 욕망을 밀어낸 뒤 비로소 드러나는 감각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문의** 033-730-9000


1


2

**1** 뮤지엄 산의 명상관. 쉼, 여유, 라이브 싱잉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안도 다다오와 안토니 곰리의 협업으로 탄생한 전시관, 그라운드. **3** 명상관과 제임스 터렐관, 메인 전시관을 자연스럽게 잇는 스톤가든.


3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뮤지엄 산 치유 큐레이터 노은실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 공간도 늘었습니다. 뮤지엄 산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건강해지려면 계절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건강한 삶인 거죠. 하늘이 많이 높아졌네, 단풍이 지는구나, 가을볕이 이렇게 예뻤나 등 자연을 보며 계절 감각을 회복하면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객관화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또한 뮤지엄 산은 예술적 영감이 가득한 공간이에요. 예술가의 삶과 생각, 표현 방식을 탐구하며 내면의 감각을 깨울 수 있어요. 안도 다다오가 건축한 공간에서 계절 감각을 회복하고, 예술적 영감을 깨워 여유로운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뮤지엄 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뮤지엄 산에서 명상하기 좋은 계절을 추천해 주세요.** 꽃 피는 봄, 녹음이 짙은 여름, 단풍 든 가을, 눈 덮인 겨울 등 사계절 모두 감상이 달라서 계절마다 방문하길 추천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비 오는 날이에요. 높은 곳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운무가 멋들어지게 펼쳐져요. 한 폭의 동양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죠. 물의 정원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명상에 잠길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명상관 안에 들어가 보세요. 슬릿 창을 통해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휴식이 될 거예요. 맑은 날에는 정오즈음에 슬릿 창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와 바닥에 일직선으로 빛이 드는 시간도 좋아요. 저녁에는 문 닫힌 미술관 안을 거닐 수 있는데, 어둠이 감싸는 시간이어서 내면에 더 집중하게 돼요.




# 10월 원주는 즐거울 '만두' 하지

**100가지가 넘는 만두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원주만두축제가 열린다. 각종 재료를 감싸 만드는 만두처럼 다양한 입맛을 가진 식객들을 두루 보듬어 주는 축제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4회 원주만두축제가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원주천과 문화의 거리 일대가 축제장으로 변한다. 원주는 어떻게 만두의 성지가 됐을까. 한국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배급한 밀가루로 칼국수와 만두를 해 먹던 것이 시작이다. 특히 김치만두는 원주 최초의 청과물 도매시장인 도래미시장에서 남은 배추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빚어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 배추를 절여 고춧가루로 버무린 배추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41만 명이 방문한 원주만두축제는 올해 '시장에서 한판, 즐거울 만두'를 테마로 한다. 메인 축제장인 원주천에는 원주 시내 업체의 다양한 만두와 만둣국을 판매하는 원주만두존과 전통 시장 먹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마켓존을 설치한다. 또한 방문객의 발걸음이 만두 맛집이 모인 전통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두 로드'를 조성하고 '전통 시장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다. 원주천에서 축제를 즐긴 뒤 전통 시장에서 먹거리를 맛보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원주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에게는 원두만두축제의 귀여운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다. KTX

**기간** 10월 23일~25일 **장소** 강원 원주천 및 문화의 거리
**문의** 033-760-9863, mandufestival.co.kr






## KTX 타고 원주로 오세요!

### 2026 원주만두축제 총감독 유병훈

**감독님은 어떤 만두를 좋아하나요?** 김치만두, 고기만두, 튀김만두 등 종류를 가리진 않지만 시장에서 갓 쪄 낸 만두를 가장 좋아합니다. 만두는 피와 소의 조화가 맛을 결정하는 음식이에요. 원주만두축제는 여러 종류의 만두를 조금씩 맛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같은 만두라도 빚는 사람에 따라 식감, 재료, 간, 모양, 크기가 모두 다 달라요. 올해 원주만두축제에서는 원주 전통 김치만두부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색 만두, 세계 각국의 만두 등 다양한 만두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6 원주만두축제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만두 빚기 체험입니다. 만두는 직접 빚고 쪄서 먹을 때 가장 맛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라면 꼭 참여해 보세요. 아이에게는 즐거운 놀이가 되고,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생생한 현장감을 즐기고 싶다면 라이브 쿠킹쇼와 만두경연대회도 놓치지 마세요. 개성 있는 만두와 함께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를 만날 수 있답니다.

**축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팁을 귀띔해 주세요.** 화려한 축제 부스도 좋지만, 전통 시장 안쪽의 만두 노포와 원주만의 먹거리를 찾아보세요. 시장 골목을 거닐며 '무엇이 가장 맛있냐'고 상인들에게 묻다 보면, 온라인에 공유된 적 없는 숨은 맛집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맛집을 발굴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원주 사람들의 정을 느끼는, 특별한 축제 경험이 될 겁니다.




### 예진네김치만두의 김치만둣국



채식주의자 모여라! 3대째 손맛을 잇는 집으로 만두에 고기를 넣지 않는다. 김장김치로 빚은 칼칼한 김치만두가 주인공. 채수에 들깨를 넣고 끓인 뽀얀 국물을 더해 감칠맛이 일품이다.

**주소**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길 31-3
**문의** 033-748-5289

### 바불리옛날왕만두의 왕만두



옛날식 왕만두 전문점. 폭신한 반죽에 고기와 채소가 듬뿍 들어간 왕만두는 한두 개만 먹어도 든든하다. 고기만두, 김치만두에 찐빵까지 세 종류를 판매하며, 포장 전문점이라 좌석이 없다.

**주소** 강원 원주시 중앙로 135
**문의** 033-735-3666

### 오늘칼국수의 들깨만둣국



자가제면 칼국수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데, 원주문화재단이 주최한 웰만두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만두 맛집 타이틀도 따냈다. 껍질을 깐 들깨로 국물을 낸 들깨만둣국이 추천 메뉴.

**주소** 강원 원주시 만대공원길 14-5
**문의** 033-732-5559

### 동승루의 군만두



만두 전문 중식당으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군만두가 대표 메뉴다. 만두소에 돼지껍질을 넣어 육즙이 풍부하고 고소하다. 만두피를 반죽할 때 무즙을 첨가해 부드러우면서 소화가 잘된다.

**주소** 강원 원주시 이화4길 30
**문의** 033-742-8166

### 원주만두뱅크의 탕수만두



평범한 만두는 가라! 탕수만두, 왕새우만두, 메밀왕만두 등 다양한 찐만두를 선보인다. 원주만두축제 창업 1호점으로, 튀긴 만두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더한 탕수만두가 대표 메뉴다.

**주소** 강원 원주시 중앙로 91
**문의** 033-747-5633

제작 지원 원주시청

# Great Heritage

In a rapidly changing era, we set out to find people and places that steadfastly preserve their essence. From a traditional hanji workshop and the former home of a great Korean novelist to a museum dedicated to meditation, pause for a moment and encounter the great heritage held by Wonju.

## The Art of Hanji, Wonju Hanji Theme Park

This cultural complex explores the invention and spread of paper, the origins and uses of hanji, Wonju's hanji culture, and the process of making paper from paper mulberry. Following the exhibition, visitors come to understand that hanji is more than simple paper?it is a cultural heritage embodying accumulated ways of life, aesthetic sensibilities, and craftsmanship. With a reservation, visitors can participate in craft programs to make everyday items from hanji, as well as traditional hanji papermaking.

**Address** 151, Hanjigongwon-gil, Wonju-si, Gangwon-do

## The Former Home of a Great Korean Novelist, Pak Kyongni House

This space preserves and showcases the former home where novelist Pak Kyongni lived after leaving Seoul in 1980 until 1994, writing Parts 4 and 5 of The Land, as well as the surrounding area. It consists of the Pak Kyongni House, which presents the author's life through exhibitions organized by period; the former home where she lived; and Seohee, a caf? offering dishes inspired by her works.

**Address** 1, Toji-gil, Wonju-si, Gangwon-do

## A Museum for Meditation, Museum SAN

Designed by Tadao Ando, Museum SAN appears as though its simple lines of exposed concrete have gently settled into the mountain foothills. In 2019, it became the first museum to add a dedicated meditation center, where meditation programs are offered. The Ground Hall, which displays works by Antony Gormley, and the James Turrell Hall are also ideal spaces for slowing one's breathing, focusing on the present, and experiencing art in a meditative way.

**Address** 260, Oak valley 2-gil, Jijeong-myeon, Wonju-si, Gangwon-do



EDITOR 신송희 · PHOTOGRAPHER 김은주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풍류가 흐르는 고을, 영주

한국 전통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선비세상부터 고택 사이를 거닐며 사색에 잠기는 무섬마을, 황금빛 은행나무 길이 장관을 이루는 부석사까지. 경북 영주는 가을 여행지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인삼과 사과를 수확하는 10월에는 풍성한 축제도 열려 여행자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한다.



1

## 1

땅의 기운을 머금은
## 풍기 인삼

영주시 풍기읍은 세계 최초로 인삼을 재배한 고장이다. 산에서만 자라던 삼이 밭에서도 자라게 된 이유는 뭘까. 풍기역에서 차로 5분이면 닿는 인삼박물관에 그 답이 있다. 이곳에서는 풍기 인삼의 역사와 특징은 물론 생애 주기와 재배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풍기 인삼 재배의 시초는 15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풍기 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산삼 종자를 채취해 밭에 심으면서 인삼 재배가 시작됐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지나는 풍기읍은 인삼 재배에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 고원지대라 일교차가 크고 통풍이 잘되며, 토양이 비옥하고 배수가 원활해 인삼이 잘 자란다. 풍기 인삼은 향이 진하고 사포닌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촉진 등의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가 깊고 효능도 탁월한 풍기 인삼의 맛은 과연 어떨까. 영주시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주칠향계는 인삼을 비롯해 잔대, 하수오, 백봉영, 천초, 도라지, 생강 등 일곱 가지 약초를 넣은 칠향계를 선보인다. 손질한 닭을 찬물에 담갔다가 끓는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복하며 불순물을 걷어 낸 뒤 일곱 가지 약재를 넣고 12시간 동안 달인다. 덕분에 닭고기는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고 국물에서는 약초의 깊은 향이 배어난다. 인삼튀김도 이곳의 별미다. 깨끗이 손질한 6년근 수삼에 튀김옷을 얇게 입혀 바삭하게 튀겨 낸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식감 뒤로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번진다.

**주소** 경북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1378(인삼박물관), 풍기로 57-21(영주칠향계) **문의** 054-639-7681(인삼박물관), 054-638-7797(영주칠향계)





2



**1** 칠향계와 인삼튀김. 선비의 고장답게 닭 다리를 양반다리처럼 꼬아 칠향계를 완성한다.
**2** 풍기역 바로 앞 풍기인삼시장에서는 6년근 수삼을 비롯해 홍삼 캔디, 홍삼 절편, 홍삼 농축액 등 다양한 홍삼 가공품을 판매한다.
**3** 인삼박물관의 '풍기인삼사'. 인삼 담배, 인삼 화장품, 인삼 건빵, 인삼 껌 등 인삼 관련 옛 제품과 매장 풍경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 2026영주 풍기인삼축제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풍기인삼축제는 1998년부터 매년 10월 남원천 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개삼터 고유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개삼터 고유제는 주세붕이 처음 산삼 종자를 심어 가삼을 재배한 개삼터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인삼주 만들기와 인삼 깎기 경연대회 등 인삼을 주제로 한 체험을 비롯해 주세붕 군수 행차 재연 행사도 이어진다. 올해부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 시민이 '신(新) 주세붕 군수' 역할을 맡아 행렬을 이끈다. 풍기읍 곳곳에서는 풍기 인삼 갈비, 인삼 삼계탕, 인삼 돌솥밥 등 인삼을 활용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기간** 10월 3일~11일
**장소** 경북 영주 풍기인삼공원 및 남원천 일원
**문의** 054-630-8706




3


1


2



3

**1**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 영주 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이 또렷하다.
**2** 에이뮤즈먼트에서는 애플 갈레트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4** 밀라플라는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사과로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 선보인다. 못난이 사과 캐릭터를 활용한 아기자기한 굿즈도 판매한다.


4

## 2

달콤한 향기에 취해

### 영주 사과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물을 머금고 자란 영주 사과는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이 또렷하다. 영주는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답게 오랜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관리에도 공을 들인다. 비파괴 당도 선별기로 당도를 꼼꼼히 체크하고, 수확한 사과는 저온 저장해 신선한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 갓 수확한 사과를 맛보고 싶다면 영주 사과 축제로 달려 가자. 올해 축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석사 주차장 일원에서 열리며, 다양한 품종의 영주 사과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도 양재하나로마트 행사와 연계한 사과 판매와 타임 세일 및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영주 사과를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면 시내에 있는 로컬 카페 밀라플라로 향하자. 밀라플라는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사과를 음료와 디저트, 가공식품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대표 메뉴는 애플리카노. 쌉싸래한 아메리카노에 상큼한 사과즙을 더한 음료로, 첫 모금에는 익숙한 커피 맛이 스치고 뒤이어 사과의 산뜻한 향이 번진다. 이 외에도 사과 파이, 사과 크럼블 쿠키, 사과빵 등 수제 디저트와 사과 애사비, 사과 떡뻥, 애플라놀라(사과칩 넣은 그래놀라) 같은 자체 개발 가공식품까지 다양하다. 사과를 오감으로 만나는 공간도 있다. 사과를 매개로 한 다양한 체험과 함께 브런치를 즐기는 에이뮤즈먼트(A'musement)다. 이곳의 대표 프로그램은 애플 갈레트 만들기. 사과가 탐스럽게 익는 10월에는 베이킹 공간 바로 옆 농장에서 직접 사과를 따서 체험한다. 페이스트리 생지에 사과 잼을 얇게 펴 바른 뒤 가늘게 썬 사과를 빙 두르고, 가장자리를 접어 모양을 잡은 후 달걀물을 발라 오븐에 구우면 노릇한 애플 갈레트가 완성된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하게 부서지는 페이스트리 사이로 달콤새큼한 사과 향이 퍼진다.

**주소** 경북 영주시 원당로19번길 30(밀라플라), 봉현면 소백로1623번길 243-34(에이뮤즈먼트)
**문의** 054-633-1930(밀라플라) **인스타그램** @a.musement_(에이뮤즈먼트)


1

© 영주시청


2

© 영주시청

**1** 무섬마을은 내성천이 마을 삼면을 휘감아 돌아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는 물돌이 마을이다. **2**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무섬 외나무다리축제에서 전통 혼례 재현 행사, 무섬 놀음 한마당, 외나무다리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3**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누비며 저마다 고유의 역사를 간직한 40여 채의 고택을 만난다.


3

© 영주시청

## | 3 |

내성천 물 위에 핀 연꽃 마을

# 무섬마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에는 삼면이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 물길에 둘러싸인 마을이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섬을 뜻하는 '수도리'의 우리말 이름, 무섬이다. 예부터 무섬은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닮아 '연화부수'로 불렸다.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1666년(현종 7년). 반남 박씨 입향시조 박수가 무섬 서편의 건넛마을 머렴에 살다 무섬에 들어와 만죽재를 짓고 터전을 일구면서였다. 1757년(영조 33년)에는 그의 증손녀 사위인 선성 김씨 김대가 처가에 들어오면서 무섬은 반남 박씨와 선성 김씨의 집성촌을 이루었다. 무섬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두 갈래다. 현대식 콘크리트 다리인 수도교를 이용하거나 물 위에 놓인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수도교가 놓이기 전까지 외나무다리는 마을과 바깥세상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책보를 메고 학교에 가는 아이부터 장가가는 새신랑과 시집오는 새색시, 마지막 길을 떠나는 상여까지 모두 이 다리를 건넜다. 360여 년이 흐른 지금 외나무다리는 무섬마을을 찾은 여행자라면 사진을 찍기 위해 꼭 들르는 명소가 됐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폭이 좁아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중간에 놓인 '비껴다리'로 물러선다. 상대방은 가벼운 목례로 고마움을 전하고, 그 짧은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매년 10월이면 외나무다리를 중심으로 옛 무섬 사람들의 삶을 재현하는 무섬 외나무다리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며, 무섬마을의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겨메기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외나무다리를 건너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반남 박씨 입향시조가 지은 만죽재와 선성 김씨 입향시조가 지은 해우당,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아도서숙 등 저마다 고유의 역사를 간직한 40여 채의 고택이 자리한다. 고요한 적막이 이어져 민속촌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걷다 보면 문밖으로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정성껏 가꾼 텃밭도 눈에 띄며 사람 사는 집의 온기가 느껴진다.

**주소** 경북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8-3(무섬마을 관광 안내소) **문의** 054-636-4700(무섬마을 관광 안내소)



1

**1** 한옥촌 내 선비 다례원에서 다도 강사의 지도 아래 전통차 예절을 배운다. **2** 선비세상은 전통 건축양식과 현대적 조경이 어우러지며 탁 트인 전경을 선사한다. **3** 조선 선비들이 착용하던 장신구를 통해 복식 문화를 살펴본다.



2

## 4

선비처럼 입고, 먹고, 즐기는

# 선비세상

K-컬처 열풍 속에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약 96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선비세상도 그중 하나다. 선비세상은 선비처럼 입고, 먹고, 즐기며 선비 정신과 선비 문화를 경험하는 곳이다. 공간은 한옥촌, 한복촌, 한식촌, 한지촌, 한글촌, 한음악촌 등 여섯 개 테마촌으로 나뉜다. 선비의 마음가짐을 지니고 싶다면 한옥촌에서 다도 체험부터 시작해 보자. 전통차와 다기, 차 예절과 질서를 배우고 직접 차를 우려 마시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 다음은 한복촌에서 선비의 복식을 체험해 볼 차례다. 갓과 의복을 단정히 갖추고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다스리던 선비의 의관정제를 가슴속에 새겨 본다. 선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한식촌에서는 삼신상부터 제사상까지 전통 밥상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소반 모니터를 활용해 나만의 선비 소반을 차린다. 한지촌에서는 선비들이 시를 짓는 데 사용한 한지를 전통 방식으로 떠 보며 조상의 우수한 제지 기술을 엿본다. 한글촌에서는 놀이를 통해 한글의 원리를 익힌다. 자음과 모음 큐브를 조합해 단어를 완성하는 '스마트 한글 큐브', 외래어를 든 두더지를 잡으며 올바른 한글 표현을 배우는 '한글 꽃밭 가꾸기' 등 어린이도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습득할 수 있다. 마지막은 한음악촌이다. 빈백에 앉아 사계절의 정취를 담은 국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풍류를 즐긴다. 11월까지 매주 주말 오후 2시 한음악촌 한음악당에서는 타악 퍼포먼스, 어쿠스틱 국악, 전통 무용, 전통 액션 연희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

**주소** 경북 영주시 순흥면 선비세상로 1 **문의** 054-630-9700



3

| 5 |

극락에 이르는 길

## 부석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부석사는 676년(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화엄 사상을 펼치기 위해 왕명으로 창건한 절이다. 봉황산 중턱에 자리한 부석사는 계단식으로 지은 것이 특징. 최하단 일주문에서 최상단 무량수전까지 아홉 개의 석축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극락세계에 이르는 아홉 단계를 상징한다. 일주문, 천왕문, 범종루를 차례로 지나면 안양루(안양문)가 모습을 드러낸다. 극락을 뜻하는 안양(安養)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극락세계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 안양루다. 누각 아래로 몸을 낮춰 계단을 오르면 마침내 극락정토인 무량수전에 다다른다. 마당에 서서 바라본 무량수전은 몸체에 비해 지붕이 유난히 크지만 묘한 안정감이 느껴진다. 여기에는 과학적 건축 기법이 숨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흘림기둥이다. 일직선 기둥은 멀리서 볼 때 가운데가 음푹 파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기둥 중간이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가면서 점차 가늘어지는 형태의 배흘림기둥은 이러한 착시를 바로잡아 기둥이 곧아 보인다. 모서리 기둥을 중앙보다 살짝 높게 세운 귀솟음 기법도 건물 양끝이 처지거나 벌어져 보이지 않게 해 반듯한 인상을 준다. 법당 안에는 동쪽을 향해 봉안된 소조여래좌상이 자리한다. 국내 소조 불상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불상 앞에 서면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진다. 무량수전을 뒤로하고 정면을 바라보자 소백산 능선이 겹겹이 이어진다. 해가 지면 풍경은 한층 더 황홀해진다. 하늘에 주홍빛과 분홍빛이 번지고 경내에도 따스한 기운이 스며든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을 놓칠세라 마지막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KTX

**주소**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문의** 054-633-3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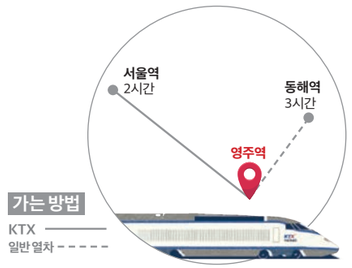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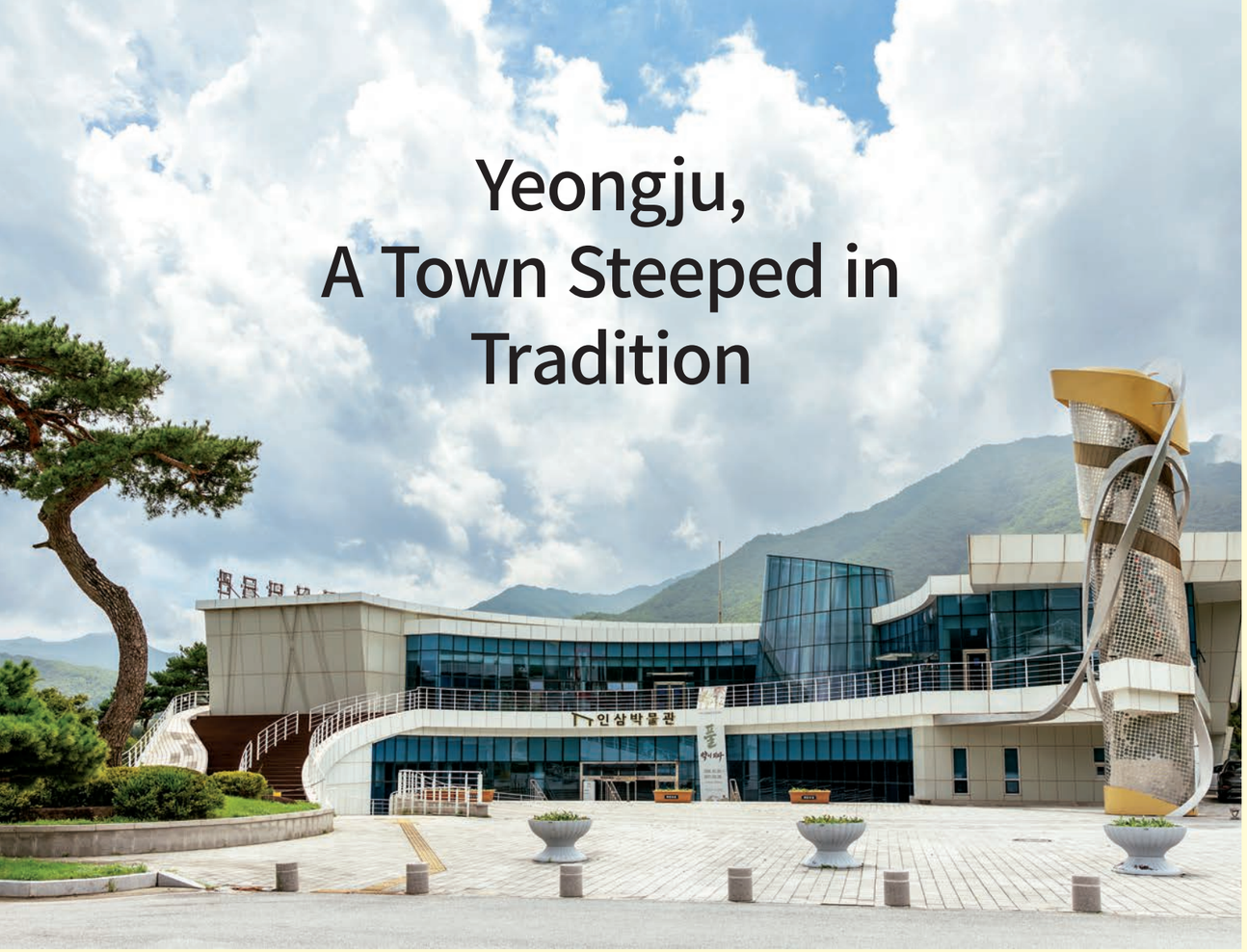

4

1 무량수전 앞에 서면 소백산 능선과 사찰 전각의 계단식 가람 배치가 한눈에 담긴다. 2 중간이 가장 굵고 위아래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은 건물이 안정적으로 보이게 한다. 3 무량수전 안에는 국내 소조 불상 가운데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소조여래좌상이 동쪽을 향해 봉안돼 있다. 4 2단으로 높게 쌓아 올린 석축 위에 안양루가 자리한다.




제작 지원 영주시청

# Yeongju, A Town Steeped in Tradition




From Seonbi World,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rough all five senses, to Museom Village, where a stroll among old houses invites quiet reflection, and Buseoksa Temple, where golden ginkgo-lined paths create a spectacular autumn scene. Yeongju, Gyeongsangbuk-do, is an ideal destination for an autumn trip. October brings a rich lineup of festivals celebrating the harvest of ginseng and apples, making Yeongju even more enticing for travelers.



## 1 Punggi Ginseng

Punggi-eup in Yeongju is the birthplace of ginseng cultivation, where ginseng was first grown in the world. How did a plant that once grew only in the mountains come to be cultivated in fields by human hands? At the Insam Museum, just a five-minute drive from Punggi Station, visitors can learn about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Punggi ginseng, as well as its life cycle and cultivation methods. Punggi ginseng is known for its strong aroma and high saponin content. It is also widely recognized for its benefits, including reducing fatigue, strengthening immunity, and promoting blood circulation. Yeongju Chilhyanggye, designated as a local traditional restaurant by Yeongju City, serves Chilhyanggye, a dish made with seven medicinal herbs, including ginseng, adenophora root, fleeceflower root, baekbongnyeong, whole herbs, balloon flower root, and ginger. The chicken is clean and mild in flavor, while the broth carries the deep aroma of the medicinal herbs.

**Address** 1378, Jungnyeong-ro, Punggi-eup, Yeongju-si, Gyeongsangbuk-do (Insam Museum), 57-21, Punggi-ro (Yeongju Chilhyanggye) **Contact** 054-639-7681 (Insam Museum), 054-638-7797 (Yeongju Chilhyanggye)

## 2 Yeongju Apples

Grown with abundant sunlight and clean water, Yeongju apples have firm flesh and a distinct sweetness. For a variety of ways to enjoy them, head to MelaFla, a local café in the city center. MelaFla gives cosmetically imperfect apples discarded by farms a new life as drinks, desserts, and processed foods. Its signature menu item is the Appleicano, a drink that combines the slightly bitter taste of an Americano with refreshing apple juice. The first sip brings a familiar coffee flavor, followed by the fresh aroma of apple. There is also a place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apples through all five senses. A'musement offers a variety of apple-themed activities along with brunch. Its signature program is apple galette making. Spread a thin layer of apple jam over pastry dough, arrange thinly sliced apples in a circle, fold the edges to shape the galette, brush with egg wash, and bake until golden.

**Address** 30, Wondang-ro 19beon-gil, Yeongju-si, Gyeongsangbuk-do (MelaFla) 243-34, Sobaek-ro 1623beon-gil, Bonghyeon-myeon (A'musement) **Contact** 054-633-1930 (MelaFla)
**Instagram** @a.musement_(A'musement)








## 3 Museom Village

Museom Village is located in Sudo-ri, Munsu-myeon, Yeongju, surrounded on three sides by the waters of the Naeseongcheon River, a tributary of the Nakdonggang River. Since ancient times, Museom has been known as *Yeonhwabusu*, meaning "a lotus floating on water," because its shape resembles one. There are two ways to enter Museom Village: via Sudogyo Bridge or by crossing the single-log bridge. Until Sudogyo Bridge was built in 1983, the single-log bridge was the only link between the village and the outside world. Children carrying school satchels, newlyweds heading to their weddings, and funeral processions all had to cross it. More than 360 years later, the bridge has become a must-visit photo spot for travelers to Museom Village. After crossing it and entering the village, visitors encounter more than 40 old houses, each with its own history, including Manjukjae, built by the founding ancestor of the Bannam Park clan in the village; Haeudang, built by the founding ancestor of the Seonseong Kim clan; and Adoseosuk, once a bas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ddress** 238-3, Museom-ro, Munsu-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Contact** 054-636-4700

## 4 Seonbi at Seonbi World

Seonbi World is a place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the spirit and culture of the seonbi by dressing, eating, and enjoying themselves like one. The space is divided into six themed villages: Hanok Village, Hanbok Village, Hansik Village, Hanji Village, Hangeul Village, and Traditional Music Village. To cultivate the mindset of a seonbi, begin with a tea ceremony experience in Hanok Village. Learn about traditional tea, tea utensils, and tea etiquette, then brew and drink tea yourself while calming the body and mind. In Hanbok Village, try on traditional seonbi attire. In Hansik Village, explore the meaning behind traditional meals, from *samsinsang* offerings to ancestral ritual tables. In Hanji Village, try making hanji using traditional methods, as seonbi once did when writing poetry. In Hangeul Village, learn the principles of the Korean alphabet through games. Finally, in Traditional Music Village, settle into a beanbag and enjoy traditional Korean music inspired by the changing seasons, taking time to savor the leisurely spirit of *pungryu*.

**Address** 1, Seonbisesang-ro, Sunheung-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Contact** 054-630-9700



## 5 Buseoksa Temple

Buseoksa Temple,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was built in 676 by the monk Uisang under royal orders to spread the teachings of Huayan Buddhism. From Iljumun Gate at the bottom to Muryangsujeon Hall at the highest point, nine stone embankments were constructed, symbolizing the nine stages leading to the Pure Land. Passing through Iljumun Gate, Cheonwangmun Gate, Beomjongru Pavilion, and Anyangnu Pavilion, visitors finally arrive at Muryangsujeon Hall, the Pure Land of Paradise. Viewed from the courtyard, Muryangsujeon has an unusually large roof compared with its body, yet the building feels remarkably stable. This is thanks to scientific architectural techniques, one of the most notable being the *baehullim* columns. From a distance, the columns appear so slender that they seem almost ready to break, but up close, their middles bulge outward, giving the impression that they are firmly supporting the roof. Turn away from Muryangsujeon and look straight ahead, and the ridges of the Sobaeksan Mountains unfold in layers. At sunset, the scenery becomes even more enchanting. Crimson and pink spread across the sky, while a warm red glow gently suffuses the temple grounds.

**Address** 345, Buseoksa-ro, Buseok-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Contact** 054-633-3464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KTX매거진> 도시재생 프로젝트 ❶

# 시간을 덧입은 도시 이야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래된 도시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KTX매거진>과 함께 3개월에 걸쳐 도시재생사업으로 달라진 지역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경북 경산 원도심과 경기 수원 행궁동이다.**


1

이병권 여행 작가

## 시간의 결을 품은 경산 원도심


2

KTX 경산역 너머 낡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시간의 속도가 달라진다. 고려시대부터 대구와 청도를 잇던, 경산의 종로라 불린 서상길이다. 한때 지역의 중심이었을 만큼 활기찼으나 세월의 흐름 속에 조용히 잊힌 원도심이 됐다. 이곳에 도시재생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래된 건물과 골목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공간으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낡은 지붕과 낮게 이어진 담장 사이, 시간의 결을 지켜 내며 다정하게 변모한 경산의 옛 거리로 골목 유람을 떠난다.

### 골목의 기억을 보듬는 정겨운 마중물, 경산이발테마관

경산역을 뒤로하고 고즈넉한 서상동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나지막한 지붕 아래 오래된 간판 하나가 눈에 띈다. 서상동 골목의 오랜 상징이자 주민들의 사랑방이었던 중앙이용원을 복원한 경산이발테마관이다. 경산에는 50년 넘은 세월 동안 사람들의 머리를 매만지며 골목의




3

1 경산 서상동 골목길 풍경. 2 중앙이용원의 옛 모습을 재현한 경산이발테마관. 3 경산웹툰창작소 외관. 4 서상카페 대표 메뉴 서상 샤인머스캣 에이드와 당근 케이크. 5 서상카페 대청마루에 테이블과 책장이 놓여 있다.


4

역사를 함께해 온 이발소 네 곳이 있었다. 그중 1956년 문을 열어 50년 넘게 자리를 지키다 2014년 문을 닫은 중앙이용원이 옛 모습 그대로 되살아났다. 안으로 들어서자 빨강, 파랑, 하양 띠가 빙글빙글 돌아가던 이발소 삼색등이 눈길을 끈다. 경산이발테마관에는 중앙이용원뿐 아니라 경산의 삶과 세월을 함께 걸어온 다른 세 곳의 이발소 이야기도 전시되어 있다. 사진 속 이발사와 옛이야기가 담긴 기록이 영상으로 아카이빙되어 골목길에 쌓인 세월의 무늬를 느낄 수 있다. 사각사각 가위질 소리와 함께 마을의 소박한 일상이 재생되는 듯하다.

전시관을 지나 중앙이용원 복원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수줍게 순서를 기다리던 동네 이발소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가죽 의자부터 손때 묻은 바리캉과 가위, 빛바랜 영업 신고증이 폐업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세월의 켜가 차곡차곡 쌓인 풍경 앞에 서자 가슴이 뭉글거린다.

### 오래된 시간 위에 포개진 젊은 상상력, 경산웹툰창작소

이발소에서의 여운을 뒤로하고 정겹게 이어진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조용한 옛 거리와 대비되는 반듯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담장 벽면 가득 채워진 알록달록한 캐릭터 벽화가 여행자를 반기는 경산웹툰창작소다. 2024년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은 조용하던 서상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적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경산웹툰창작소는 전시관, 공유 오피스, 스튜디오, 교육실, 특강실 등을 갖추고 웹툰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5

활동을 지원한다. 개인이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웹툰 전문 드로잉 장비를 보유하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만화와 웹툰을 배우고 그리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한다. 나아가 경산에 자리한 대학교들과 연계해 청년 작가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둥지 역할을 한다.

경산웹툰창작소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산 지역 어르신들이 주인공인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전시가 열린다. 청년 작가의 톡톡 튀는 감각과 시니어의 지혜로운 삶이 만나 완성된 작품은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한다.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젊은 에너지를 품어 내며 골목의 새로운 내일을 펼쳐 가는 도시재생의 감각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다.

### 한옥의 뼈대 위에 피어난 고즈넉한 휴식, 서상카페

경산웹툰창작소 건너편에는 서상카페가 자리한다. 멋스러운 기와지붕 아래 아늑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은 1916년에 지은 경산 최고 부잣집이었다. 100년 넘게 세월이 흘러 주인은 떠나고 한동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경산시가 방치된 이 집을 매입해 복원하면서 2024년 주민과 여행자 모두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카페로 탈바꿈했다. 전통 한옥 구조에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사랑채는 창문과 복도를 따로 두는 근대 한옥의 특징을 따랐다. 툇마루에 걸터앉아 한옥 너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100년 전 시간 속으로 느릿하게 빠져드는 듯한 평온함이 스며든다.

서상카페는 서상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한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정성껏 음료를 내리고 공간을 가꾸며 골목 전체에 온기를 채운다. 쇠퇴한 공가옥이 매력적인 카페로 변모하고, 그곳이 다시 주민들의 일터이자 사랑방이 된 것이다. 카페에서 생긴 수익은 운영비를 제하고는 고스란히 마을을 위해 쓰이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도시재생사업이 마을 환경뿐 아니라 주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1


2

1 '팔달산에 뜬 달'을 테마로 한 경관 조명. 2 행궁연가의 대표 전통 막걸리 '행궁둥이'와 'PMAK'. 3 수원화성 방화수류정에서 본 그림 같은 성곽 풍경. 4 북수동 낡은 한옥 네 채를 리모델링해 양조장과 주점으로 바꾼 행궁연가. 5 행궁어울림센터 1층 마을 카페에 전시한 엽서. 주민들이 그림을 직접 그렸다.


3


4


5

길지혜 여행 작가

# 수원 행궁동 성곽 마을에 되살아난 오늘

수원천 위로 긴 팔을 드리운 버드나무와 화홍문 일곱 수문 아래로 흐르는 물, 낡고 낮은 담장에 기대어 잠든 고양이와 새로 페인트칠한 대문의 문패까지. 겨울잠처럼 고요한 시간을 지나 행궁동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다. 인적 드문 골목에 여행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낡고 오래된 집 담장 너머로 술 익는 향이 번진다. 어쩌면 '도시재생'이란 지난 시간을 지우는 대신 그 위에 새로운 계절을 덧입히는 일인지도 모른다.

## 골목에 스며든 도시재생, 일상이 여행

수원화성 성곽으로 둘러싸인 행궁동의 다른 이름은 '성안(성곽 안쪽)마을'이다.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높은 건축물을 세우지 못하는 제약이 여느 도시와 다른 하늘지붕선을 이루면서 '요즘 행궁동'의 정체성을 만들었다. 행궁동은 느긋하게 걸으며 골목 곳곳에 숨은 재미를 발견하기 좋은 여행지다. 숨바꼭질하듯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힙한 동네 책방과 카페, 편집숍 등이 나타난다. 루프톱에 앉아 수백 년 전 정조가 세운 수원화성과 조우하고, 한옥과 옛 건물에서 레트로 문화를 경험한다. 여기에 팔달문까지 이어진 전통 시장과 1년 내내 열리는 축제의 향연까지, 행궁동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 고리처럼 느껴진다.

행궁동 여행은 화홍문에서 시작한다. 화홍사랑채를 지나 수원천 변을 따라 걷다 보니 주민들의 사랑방 행궁어울림센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주민 공동체의 거점 공간이다. 지상 2층 건물에 마을 카페와 공유 주방, 다목적실, 마을 음악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카페와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며 주민들은 공유 주방과 음악실, 프로그램실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주민의 일상과 이어지는 이곳은 주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능하며 살아 움직이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 오래된 건물에 들어선 마을 양조장, 행궁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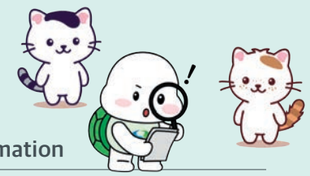
술 익는 냄새를 따라 행궁연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한옥을 손질해 수원양조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수원양조장이 자리 잡은 곳이다. 수원양조장은 일종의 공유 경제 공장으로, 양조장에서 만든 전통주를 시음하고 구매하는 공간과 안주와 함께 전통주를 즐기는 곳, 예술 체험 공간 등이 모여 있다. 도심 한가운데 전통주 양조장이 있다니! 수원양조장에서는 수수한주, 행궁둥이, 장안문별주, 수수미주, 샛별주 등의 전통주를 선보이는데, 수원 쌀로 빚은 막걸리 '행궁둥이'에 마음을 빼앗겼다. '~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의 접미사 '둥이'를 더해 '행궁동에서 태어난 술'이라는 의미로 '행궁둥이'라 이름 붙였다는데, 맛을 보니 궁둥이가 안 떨어진다는 뜻으로 붙은 이름 같다. 맛이 깔끔하고 부드러워 혀에 순하게 감긴다. 행궁동에 온다면 궁둥이를 붙이고 꼭 마셔야 할 전통주다. 막걸리 아이스크림 '수수께끼'도 빼놓을 수 없다. 은은한 막걸리 향이 일품인데 쫀득한 식감에 한 번, 부드러운 단맛에 한 번 감탄하게 된다.

행궁연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 새로운 문화와 경제활동을 일구어 낸 곳이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음식과 양조가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한 잔의 술에도 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이야기가 담긴 것이다.

## 타임머신 타고 시간 여행, 행궁동벽화마을과 왕의 골목

찾는 이가 드문 낡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지역 주민이었다. 노후한 건물과 마을을 보수하고, 담장을 캔버스 삼아 주민과 예술가, 시민단체가 벽화를 그렸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든 여행자들이 삭막했던 골목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꿨다. 전국의 수많은 벽화 마을 중 이곳이 유독 여행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벽화에 수원은 물론 수원화성과 연관된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행궁동 벽화 골목 주변으로는 왕의 골목을 조성했다. 정조가 행차하던 옛길과 주변의 역사 문화 공간을 연결한 테마 길이다. 왕의 골목을 따라 걷다 화성어차를 만났다. 임금이 타던 어차를 모티브로 만든 관광 열차로, 연무대를 출발해 화홍문, 장안문, 화서문, 매향교를 돌아 연무대로 다시 돌아온다. 화성어차에 탄 소년들이 왕처럼 손을 흔든다. 수원화성과 연결되는 왕의 골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한 길이다. 수원화성박물관을 지나 수원사 방향으로 가다 보면 '팔달산에 뜬 달'이 보인다. 수원화성 성곽 아래 노후 주택의 지붕을 정비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거듭난 곳이다.

해가 기운다. 행궁동에 뜬 달 옆을 지나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긴다. 골목마다 환하게 불이 켜지고, 불빛보다 반짝이는 오늘의 이야기가 더해진다. 그렇게 성안마을 행궁동에 새로운 시간이 쌓이고 있다.



more information

**2026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곳 중 매력도와 권역별 균형, 관광객 접근성 등을 고려해 13개 도시의 52개 장소를 선정했다. 스마트폰에서 '스탬프투어' 앱을 다운로드한 후 각각의 장소에서 위치 인증을 하면 스탬프가 적립된다. 미션 달성 후 리워드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기간** 8월 18일~11월 15일

제작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

WRITER 김진(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장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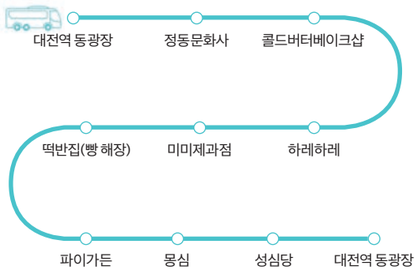
# 대전역에서 빵지순례를 떠나다

과학 도시, 연구 도시, 교통의 중심지…. 대전을 설명하던 딱딱한 수식어 사이로 흥미로운 단어가 붙었다. 바로 '빵의 도시'. 빵티칸 순례 버스에 올라타 빵집을 찾아다니며 대전의 골목을 누볐다.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대전 빵티칸 순례 코스




빵지순례(빵과 성지순례를 합친 말)를 이야기할 때 성심당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에서 '전국 방방곡곡 빵지순례' 부문 득표 1위를 차지한 곳도 성심당이다. 그럼 대전 여행은 성심당에 들러 빵을 사는 것으로 끝일까. 대전역에 내려 '빵티칸 순례' 버스에 올라타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 친절한 빵 투어, 대전 빵티칸 순례

대전 빵티칸 순례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안성우 가이드다. '빵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20여 년간 여행업계에서 일한 여행 기획자다.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일본의 우동 택시였다. 시코쿠 섬의 가가와현에는 우동 전문가인 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유명 우동 가게를 순례하는 관광 서비스가 있다. 대전에서는 무엇을 먹으러 다니면 좋을까 고민하던 안성우 가이드는 빵을 떠올렸다.

그는 대전 빵집 100여 곳을 발품 들여 찾아다녔다. 대표 메뉴를 맛보고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인기 메뉴의 품절 시간까지 살폈다. 이동 거리와 주차 여부, 대기 시간도 계산해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짰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빵 택시'다. 연예인들이 잇따라 빵 택시를 체험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고,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며 찾는 사람이 늘자 택시 한 대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올해 5월부터 빵 택시는 대형 버스를 이용한 빵티칸 순례로 확장됐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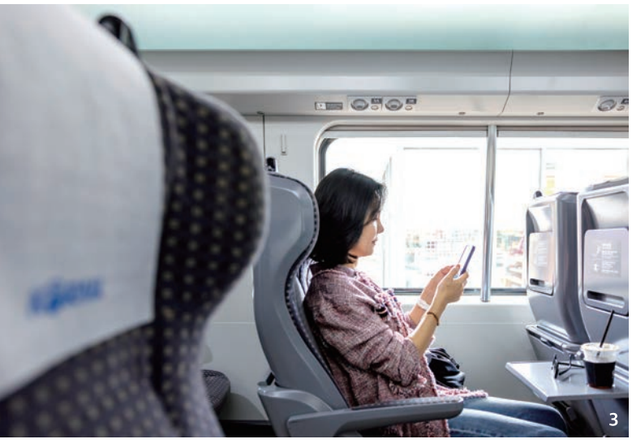


3

1 대전 빵티칸 순례의 안성우 가이드. 빵집이라면 뭐든 꿰고 있어 '빵저씨'로 통한다.
2 대전 빵티칸 순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빵티칸 순례 키트'.
3 대전 빵 지도를 펼치는 순간, 가고 싶은 곳이 더 많아진다.




1



3

**1** 정동문화사의 대표 메뉴는 12종의 다양한 맛을 선보이는 피낭시에다.
**2** 콜드버터베이크샵의 시그너처인 크랙소금빵.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다.
**3** 빵 투어를 하기 위해 대전행 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다.
**4, 5** 빈손으로 왔다가 두 손 가득 빵을 들고 돌아가는 것이 빵티칸 순례자들의 운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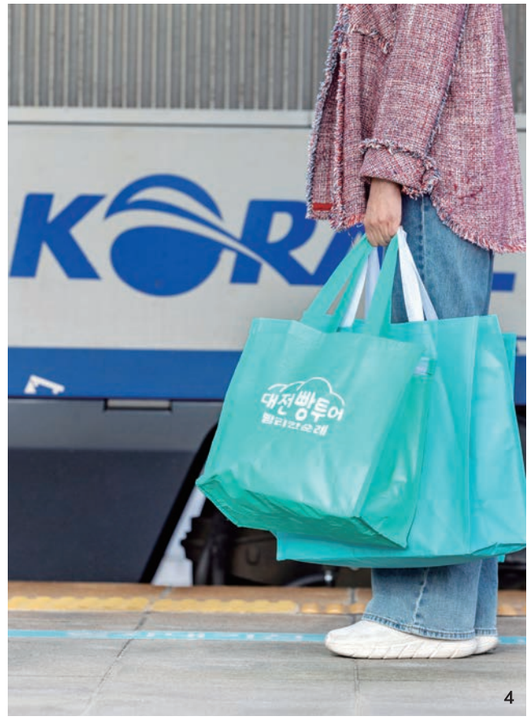


2

버스에 올라타면 일반 여행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버스 천장과 바닥에 온통 빵 그림이 가득하고, 커다란 식빵 인형도 자리한다. 참가자에게는 포크, 나이프, 잼, 물, 심지어 활명수까지(!) 담긴 대형 쇼핑백과 보랭 백을 나눠 준다. 잘 먹고, 잘 담고, 잘 소화하라는 뜻이다. 오늘은 빵집 일곱 곳을 들르고, 중간에 '빵 해장' 코스가 예정돼 있다. 해장이 필요할 정도로 빵을 먹는다고? 이때까진 예상하지 못했다. 해장 떡볶이가 신의 한 수였음을.

## 개성 강한 대전의 빵집들

첫 번째 순례지는 구움과자 맛집 '정동문화사'다. 이곳에서는 달걀흰자와 아몬드 가루로 피낭시에를, 달걀노른자로 에그 타르트를 만든다. 시그너처는 단연 피낭시에. 무려 12종의 피낭시에를 선보이는데, 꼭 하나를 맛봐야 한다면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 피낭시에를 추천한다. 한 입 베어 물면 버터와 아몬드 향이 조화를 이룬다. 시청역 부근의 '콜드버터베이크샵'에서는 16종의 소금빵을 만난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것이 특징. 빵 안쪽에 버터를 넉넉히 채워 넣어 고소한 풍미가 짙게 번진다. 담백한 크랙소금빵부터 달콤한 연유 소금빵, 짭조름한 명란소금빵, 알싸한 후추소금빵까




4

지, 한 가지 빵으로 다양한 맛의 변주를 보여 준다.

'하레하레'는 성심당 다음으로 규모가 큰 빵집으로 대전 지역에만 매장이 일곱 개다. 대표 메뉴는 쌀하레치즈. 쌀로 만든 치즈 카스텔라로, 마치 구름을 맛보는 듯 폭신한 식감 뒤로 치즈의 풍미가 진하게 번진다. 글루텐을 분해하는 유산균이 들어 있어 소화 부담을 줄인 것도 장점. 편백나무 틀에 중탕으로 굽는 방식은 하레하레만의 제조법이다. 대량생산이 어려운 데다 구워 내는 즉시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 일찍 방문하는 게 좋다. 다음 행선지인 '미미제과점'에 들어서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맛에 열광하는지 한눈에 알게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재빠르게 반영한 빵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기 메뉴는 망고요거트 왁뿌 소금빵. 생망고를 통째로 넣은 소금빵 안에 요거트 크림을 올린 뒤 화이트 초콜릿으로 코팅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초콜릿 코팅이 바삭하게 깨지고, 뒤이어 망고와 요거트 크림의 산뜻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네 곳의 빵집을 차례로 돌고 나면 슬슬 매콤한 맛이 그리워진다. 빵티칸 순례에는 '빵 해장 떡볶이'라는 재미있는 코스가 중간에 끼어 있다. 달고 고소한 빵 사이를 헤매다 만난 칼칼한 떡볶이가 어찌나 반갑던지. 단 몇 숟갈 만에 속이 개운해진다. 잠깐의 빵 해장으로 입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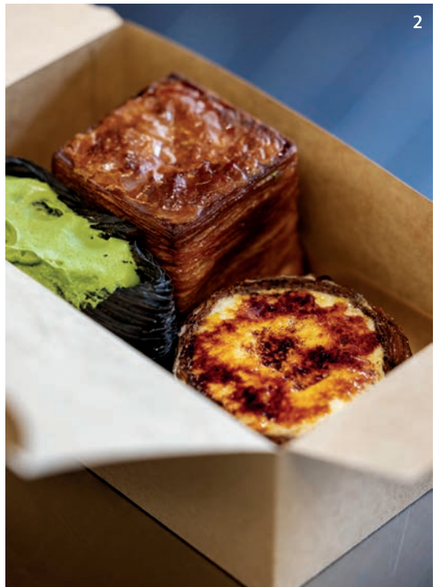


5




1

**1** 성심당 앞의 끝없는 대기 줄을 보면 늘 망설이지만, 어느새 줄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2** 유럽식 파이를 대전의 가격으로 즐기는 파이가든. **3** 몽심의 패키지엔 키치하고 귀여운 감성이 묻어 있다. **4** 빵티칸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인증서까지 받으니 뿌듯함이 밀려온다. **5** 두 손 가득 빵을 사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혈당 걱정은 접어 두자. 일단 오늘은 빵 부자니까.



2

을 환기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다시 빵집으로 향할 힘이 솟아난다.

### 다시 달콤한 빵의 세계로

다섯 번째 순례지는 이름부터 파이를 내세운 '파이가든'이다. 이곳은 유럽의 맛을 대전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 추천 메뉴는 크렘소쿠니, 먹물 말차, 크루아상. 특히 먹물 말차는 바삭하게 구운 먹물 페이스트리 겉면을 포크로 톡 깨뜨리는 순간부터 눈과 귀가 즐겁다. 파삭하게 부서지는 페이스트리 사이로 진한 말차 필링이 벨벳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린다.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대비를 이루는 사이 쌉싸래한 맛과 달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다음 목적지는 2022년과 2024년 대전빵축제 '빵 어워즈'에서 1위를 차지한 '몽심'이다. 2019년 한남대학교 창업존의 학생 창업 기업으로 시작한 몽심은 학생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어느덧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 성장했다. 스콘, 마들렌, 피낭시에 등 구움과자가 대표 메뉴다. 길쭉한 바 형태의 피낭시에는 버터의 풍미를 살려 진한 캐러멜 향이 나고,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대학생이 창업한 빵집답게 인테리어와 선물용 박스에도 재치 있고 귀여운 감성이 녹아 있다.

마지막 순례지는 대전 빵지순례의 상징과도 같은 '성심당'이다. 튀김소보로와 판타롱부추빵이 대표 메뉴지만 빵저씨가 강력하게 추천한 메뉴는 따로 있다. 바로 김치참쌀주먹밥. 매콤하고 짭조름한 김치볶음밥을 둥글게 뭉쳐 빵가루를 입힌 뒤 노릇하게 튀겨 낸 메뉴로,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 여기에 빵저씨가 한 가지 팁을 더 보탠다. 여러 라면을 곁들여 먹어 본 끝에 찾아낸 최고의 짝꿍은 바로 참깨라면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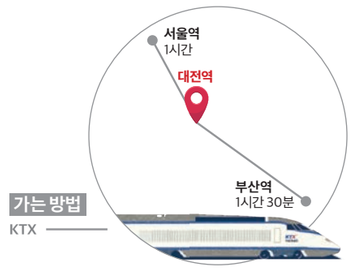

3



4

### 여행의 이유가 빵이어도 괜찮아

3시간 동안 최면에 걸린 것처럼 빵집 일곱 곳을 돌고 나니 두 손에는 어느새 커다란 쇼핑백이 한가득 들려 있다. 빵티칸 순례의 끝은 수료식이다. "귀하는 대한민국 빵 성지 대전 빵티칸 순례에 참가해 배불리 맛있게 먹으며 훌륭히 마쳤음을 인증합니다." 진지하게 읽어 보는데 피식 웃음이 난다. 오늘 내가 한 일이라곤 버스를 타고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먹기만 한 것뿐인데 순례 완주 인증까지 받으니 큰일을 해낸 것처럼 뿌듯하다. 여행을 하는 데 꼭 거창한 이유가 필요할까. 좋아하는 빵을 핑계 삼아 기차에 올라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때로는 이런 여행이 우리를 조금 더 달콤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니. KTX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5




### 대전 빵티칸 순례

대형 버스를 타고 대전의 유명 빵집을 찾아가는 가이드 투어다. 오전 투어는 9시, 오후 투어는 1시에 대전역 1번 출구 앞 호국철도광장(동광장)에서 출발한다.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빵집 대기 상황에 따라 종료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는 여유 있는 시간으로 예매하는 것이 좋다. 참가비는 성인 기준 주중 4만 원, 주말 4만 5000원. 영춘모찌, 파티세리 소신, 로로네 베이커리, 파이가든, 플래닛 에그타르트, 정동문화사, 콜드버터베이크샵, 미미제과점, 하레하레, 몽심, 성심당 중 일곱 곳을 방문하며, 당일 재고와 영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WRITER 이지혜(<헤이! 트래블> 기자) • PHOTOGRAPHER 봉재석 • ILLUSTRATOR 조성흠

# 나주 빛가람동 나들이

지역의 서사를 담은 수제 비누와 스페셜티 커피, 정직한 한우 다이닝과 맞춤 패브릭, 전통주 티하우스, 그리고 황홀한 야경이 펼쳐지는 전망대까지. 지금 전남광주 나주에서 가장 힙한 동네, 빛가람동의 여섯 공간을 찾았다.







나주역에서 161번 버스를 타고 이지더원아파트 정류장에 내리면 빛가람호수공원 초입에 닿는다.







차와 술이 있는 풍경
## 온기 티하우스

2022년 최예슬 대표가 문을 연 온기 티하우스는 차와 지역의 술, 그리고 몸에 이로운 디저트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공간이다. 최 대표는 차와 술의 경계를 허물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고요하고 따스한 시간을 선물한다. 계절에 맞춰 큐레이션하는 6대 다류의 깊은 차향을 음미하다 보면 나주를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 청년 양조사들이 빚은 전통주와 하이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온기 티하우스의 또 다른 매력은 지리산 가루쌀과 제철 농산물로 매일 구워 내는 비건 글루텐 프리 디저트다. 밀가루, 달걀, 버터, 유제품을 일절 쓰지 않아 알레르기나 소화불량에 대한 부담이 없다. 시그너처 메뉴 '할매 케키'는 쑥과 흑임자의 고소하면서 적당한 단맛이 특징으로, 깔끔한 차는 물론 의외로 정갈한 전통주와도 근사한 합을 이룬다. 최 대표는 매달 '심야다방'을 테마로 다양한 미식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제철 식재료로 건강한 식탁을 차려 내는 팜투테이블(farm-to-table) 다이닝 행사도 진행한다. 속도를 늦추고 오감을 열어 차 한잔, 술 한 모금의 온기를 더하는 시간이다.

**주소** 전남광주 나주시 배멧1길 30-1 **문의** 0507-1350-2458



다정한 온기가 흐르는
## 마콤

빛가람 호수공원 동쪽, 고즈넉한 거리 한편에 자리한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마콤에서는 다정한 온기가 흐른다. 마콤(Macomb)은 박혜원 대표가 대학 시절 어학연수를 하러 찾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작은 시골 마을 이름이다. 당시 홈스테이로 인연을 맺은 어르신 존과의 다정한 아침 식사가 박 대표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풍경으로 남았다. 마콤이 선보이는 메뉴에는 직접 소를 키우며 정육 유통 경험을 쌓은 박혜원 대표의 남편, 김유성 대표의 내공이 담겨 있다. 고품질 한우를 보다 친근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햄버그스테이크와 파스타, 리소토 등의 메뉴로 풀어냈다. 쌀과 고춧가루 등 기본 식재료도 어머니가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사용한다. 좋은 국산 재료로 정직하게 차려 낸 한 상은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 준다.

**주소** 전남광주 나주시 그린로 317-17 **문의** 0507-1326-1084







취향을 깨우는 시간
## 도하커피바

8년 동안 1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전문 로스터이자 교육자인 이도하 대표가 운영하는 도하커피바에선 매달 최고 등급의 하이엔드 커피를 소개하고, 2주마다 다채로운 스페셜티 원두를 선보인다. 덕분에 라즈베리와 자두의 산뜻한 과일 향이 매력적인 무산소 발효 커피부터 스페셜티 커피 4가지를 즐기는 도하커피 오마카세까지 매번 놀라운 커피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 대표가 지향하는 커피 맛의 중심에는 언제나 단맛이 자리한다. 원두 본연의 산미나 개성을 억지로 누르지 않으면서도 쓴맛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단맛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그만의 노하우다. 이를 위해 생두 선별부터 로스팅, 커피 추출 과정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섬세하게 접근한다. 커피가 가장 맛있게 추출되는 구간의 성분만 극대화해 마치 에스프레소처럼 농축된 에센스를 내리는 것이 특징. 물에 희석해 가볍게 즐길 수도, 진한 에센스 그대로 음미할 수도 있는 독창적인 방식이다. 한 잔의 커피가 주는 가장 깊고 정교한 경험을 제안한다.

**주소** 전남광주 나주시 그린로 339 **문의** 0507-1352-6075



향을 빚는 수제 비누 공방

## 125솝

"비누 한 덩이를 내 손으로 완성해 내는 일은 저에게 '작은 성공'이었어요. 그 성취감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낮아진 자존감도 되찾았죠." 부드러운 향이 문밖까지 풍겨 나오는 수제 비누 공방 125솝의 김수현 대표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던 음악 선생이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우연히 접한 천연 허브 향이 지친 마음을 달래 주었고, 취미로 시작한 비누 만들기는 삶의 전환점이 됐다. 125솝에선 피부 타입별 맞춤 오일과 인공 향료가 아닌 천연 에센셜 오일만 고집해 순하고 깊은 향을 전달한다. 공방 한쪽에는 나주의 대표 국가유산인 금성관과 남고문을 모티브로 한 비누, 나주산 배즙으로 만든 '나주 배 비누' 등 나주의 서사를 담은 특별한 비누들이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혼자만의 작업에 머물지 않고 원데이 클래스와 출강, 자격증반 수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단단하게 굳힌 125솝의 비누에는 바쁜 현대인에게 작은 성취감과 휴식을 선물하고 싶은 김수현 대표의 마음이 스며 있다.

**주소** 전남광주 나주시 교육길 13 **문의** 0507-1362-1094






삶을 짓는 정성

## 안다미로 바느질방

'안다미로'는 '그릇에 담은 것이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패브릭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작을 아우르는 작업실, 안다미로 바느질방을 이끄는 주인공은 김은숙 대표다. 서울에서 논술을 가르쳤던 그는 오랜 시간 독학으로 익힌 바느질을 전문적으로 배워 2017년 나주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안다미로 바느질방에는 정해진 규격이나 한계가 없다. 광목, 리넨, 거즈 같은 기본 원단을 구비해 놓은 것은 물론, 패딩 충전재를 넣은 특수 커버, 버려진 청바지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소품 등 패브릭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문 제작을 능숙하게 해낸다. 김 대표의 수강 방식 또한 특별하다. 초급, 중급 등의 천편일률적인 과정 대신 일대일 수업을 고집한다. 영상 매체에서는 생략되기 쉬운 기초 밑작업과 실전 바느질 팁, 재봉틀 다루는 노하우도 배운다. 공방 안에는 최신 트렌드인 거즈 소재 주방 소품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빨간 머리 앤' 소품, 그리고 손때 묻은 부자재가 어우러져 있다.

**주소** 전남광주 나주시 문화로 204





신도시의 초록 쉼표

## 빛가람호수공원 & 빛가람전망대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호수공원과 빛가람전망대는 도시와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휴식 공간이다. 해발 80미터의 야트막한 배메산과 52만여 제곱미터의 드넓은 수변 공원이 어우러져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기에 좋다. 공원 중심에 우뚝 솟은 빛가람전망대는 나주의 대표 특산물인 배의 곡선을 모티브로 탄생했다. 높이 20.7미터의 5층 규모로, 전망대에 오르면 360도로 탁 트인 파노라마 뷰가 펼쳐진다. 낮에는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과 수변 공원의 싱그러움이 빛을 발하고, 해가 지면 도심의 화려한 불빛과 수면 위로 산란하는 빛의 잔상이 뒤섞여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진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여정 또한 특별하다. 발아래로 아스라이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며 느긋하게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는 것. 내려올 때는 둥근 원통 속을 시원하게 내달리는 돌미끄럼틀이 짜릿한 스릴을 더한다. 1~2층 전시관에서는 나주의 오랜 역사와 혁신도시로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KTX

**주소** 전남광주 나주시 호수로 77(빛가람전망대) **문의** 061-339-2715(빛가람전망대)



EDITOR 최현주 · PHOTOGRAPHER 김은주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10월, 안동이 더 즐거워진다

##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월영가람길

올가을 경북 안동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관객을 맞고, 화려한 빛으로 새 단장한 와룡빛터널이 개장하며 총연장 2.6킬로미터의 월영가람길이 드디어 완성됐다.









흥이 넘치는 대동의 장

##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세계인의 흥과 신명을 하나로 모으는 탈춤 한마당,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가면의 기억, 모두의 춤'을 주제로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11일간 열린다. 축제의 무대는 중앙선 1942 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로 안동의 핵심 공간을 포함한다. 24개국 28개 팀이 참여해 세계 탈춤의 진수를 선보이는 해외 탈춤 공연, 세상에 하나뿐인 창작 탈 만들기 공모전, 축제 참여국과 하나 되는 문화 교류의 장인 주빈국의 날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세계탈놀이경연대회. 국내외 최고 명인들과 아마추어 팀이 참여해 화려하고 참신한 무대를 선보인다. 안동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한바탕 춤판을 벌이는 '탈놀이 대동난장'과 내 손으로 만든 탈을 쓰고 거리 곳곳을 누비는 퍼레이드는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간고등어, 찜닭 등 안동 대표 음식에 더해 명인이 빚은 안동소주와 청포도 와인 등 식욕을 돋우는 먹거리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9월 26일과 10월 3일에는 하회마을의 부용대 절벽과 만송림 숲 사이에 줄을 매달아 밤하늘에 불꽃을 흩뿌리는 하회선유줄불놀이가 펼쳐진다.

**1**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밤늦도록 탈춤공원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2, 3** 한국은 물론 외국의 이색적인 탈춤 공연도 펼쳐진다. **4** 원도심 거리 곳곳에서 탈을 쓰고 거리 공연을 한다. **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세계인의 흥과 신명을 하나로 모으는 대동의 장이다.



###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9월 24일~10월 4일
**장소** 경북 안동 중앙선 1942 안동역, 탈춤공원, 원도심, 하회마을 등
**홈페이지** www.maskdance.com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하회마을 서민들이 계급사회의 갈등과 희로애락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던 800년 전통의 '하회별신굿탈놀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을 맞이해 즐겁게 한 뒤 보내는 강신-오신-송신의 구조와 대동 정신이 축제의 기틀이 되었다. 안동에서 탈춤 축제가 처음 열린 해는 1997년. 안동시와 지역 문화인들이 힘을 합쳐 제1회를 개최했고, 이후 국제적 규모로 성장하며 안동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가장 큰 미덕은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어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자유와 해학의 장'이라는 점이다. 양반과 선비의 허세를 꼬집고 민중의 삶을 어루만지던 탈놀이의 정신은 오늘날 국적과 나이, 성별을 초월해 모두가 어우러지는 대동(大同)의 놀이판으로 확장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탈춤의 흥과 멋을 온몸으로 만끽하러 지금 안동으로 떠나자.



1 월영가람길에 놓인 성락하늘철교. 1941년 개통된 중앙선의 철도교였다. 2 중앙선 1942 안동역. 지금은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이용한다.

80년 전 철로 위를 달리는

## 월영가람길

지난 2024년, 옛 중앙선 철도 부지에 월영가람길이 조성됐다. 80여 년 전 기차가 다니던 철로를 도로로 새롭게 정비한 것. 총연장 2.6킬로미터의 월영가람길을 걷다 보면 임청각과 법흥사지 칠층전탑, 성락하늘철교, 와룡빛터널을 차례로 만난다. 주변 풍경을 보며 천천히 걸어도 좋고,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도 즐겁다. 월영열차를 타는 방법도 있다. 월영열차는 귀여운 외관의 레트로풍 미니 관광 열차로, 철로가 아닌 도로를 달리는 버스다. 월영열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창밖으로 느릿하게 흘러가는 낙동강과 월영가람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 느긋하게 시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월영열차 이용료는 성인 3000원이다.

월영가람길을 달리는 월영열차의 출발점은 임청각이다. 조선 시대 양반가의 건축미를 간직한 임청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의 생가로, 한 집안의 위대한 독립운동 역사를 품고 있다. 이상룡은 임청각을 포함해 전 재산을 바쳐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고 독립 투쟁에 한평생을 바쳤다. 그의 뜻은 후대에도 결연히 이어져 동생 이상동과 아들 이준형, 조카 이형국, 손자 이병화까지 독립운동가가 무려 열한 명이나 배출됐다. 일제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저택이라는 이유로 임청각을 훼손했고, 1942년 중앙선 철도를 놓으며 건물 일부를 철거했다. 한때 99칸에 이르렀던 집은 철길 때문에 크게 잘려 나가는 비운을 맞았다. 월영가람길은 당시 그 철길 위에 조성되어 마음이 저릿해진다.




1

임청각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탑을 마주하게 된다.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이다.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에 세워진 이 탑은 대한민국 국보로, 돌을 쌓는 석탑과 달리 흙을 구워 만든 벽돌, 즉 전(塼)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조성한 점이 특별하다. 멀리서 보면 육중한 구조물 같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작은 벽돌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쌓아 만든 섬세한 구조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에서 1.5킬로미터 정도 가면 성락하늘철교를 만난다. 한때 기차가 굉음을 내며 낙동강을 건너던 철교는 이제 안전하고 낭만적인 보행 전용 교량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1941년 개통된 중앙선의 철도교로 오랫동안 안동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던 철길의 일부였다. 해 질 녘 철교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주변의 산과 낙동강, 월영교가 어우러지며 황홀한 풍경이 펼쳐진다.

월영열차의 종착지는 와룡빛터널이다. 약 560미터 길이의 옛 와룡터널을 리모델링해 지난 9월 9일 개장했다. 터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사계절 내내 유지되는 쾌적하고 시원한 공기가 여행자를 반긴다. 조용하고 어둡던 콘크리트 터널 내부는 첨단 디지털 조명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로 수놓여 마치 시공간을 초월해 차원이 다른 세계에 진입한 듯한 느낌을 준다. 터널 벽면을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다채로운 빛의 터널과 환상적인 그래픽 연출은 특별한 사진을 남기기에 더없이 좋다. 와룡빛터널 이용료는 초등학생 10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성인 5000원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며,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첫 번째 평일에 쉰다.

월영열차를 타고 떠난 시간 여행을 마친 후엔 안동의 대표 명소인 월영교를 걸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월영교는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교로 낮에는 선이 고운 목조 다리의 기품을 자랑하고, 밤이 되면 다리 전체를 감싸는 조명과 수면 위를 둥둥 떠다니는 초승달 모양의 문보트(Moon Boat)가 낭만적인 야경을 완성한다. KTX


2

1 수많은 독립 열사들이 묵었던 임청각의 군자정.
2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이 사용한 의자. 임청각 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3 월영열차를 이용하면 월영가람길을 쉽게 오갈 수 있다. 4 국보인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5 첨단 디지털 조명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로 꾸민 약 560미터 길이의 와룡빛터널.



3


4


5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안동 반값여행

내가 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준다?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반값여행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행객이 안동에서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대상은 안동시와 인접한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국내 관광객이다. 일반 관광객은 인정 경비의 50퍼센트, 만 19~34세 청년은 70퍼센트를 환급받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여행 전에 안동 반값여행 홈페이지(andonghalftour.kr)를 통해 신청하고, 여행을 마친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10월 12일에 2차 사전 신청을 개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한다.

제작 지원 안동시청




월평균 800만 명이 보는 최고의 광고 효과

# 〈KTX매거진〉 광고주를 모십니다.

2004년 4월 1일, KTX 개통과 함께 창간한 <KTX매거진>은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 차내지로 22년 역사의 월간지입니다.
일평균 27만 명, 월평균 800만 명이 보는 고품격 문화 여행지,
<KTX매거진>이 광고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2-2276-1190, jony2@bandicom.com**

세계유산축전

# 2026 WORLD HERITAGE FESTIVAL IN ANDONG

##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made in ANDONG

no.22



#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올해 경북 안동은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사유의 세계유산, 통섭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지역이 품은 세계유산을 소개한다. 한국의 역사 마을인 하회마을, 한국의 서원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한국의 산지 승원인 봉정사에서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interview

##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류열하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은 국가유산진흥원과 안동하회마을보존회가 함께 주관한다. 류열하 안동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에게 축전에 대해 물었다.**

**2026 세계유산축전이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안동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 안동의 어떤 곳을 조명하나요?**
안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고장입니다. 한국의 역사 마을인 하회마을, 한국의 서원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한국의 산지 승원인 봉정사가 이번 세계유산축전의 무대가 됩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에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이 보유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유산을 새로운 미래지향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봉정사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인데요.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각 장소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각각의 문화유산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회마을은 '고택이 남은 마을'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온 마을이고, 공동체를 통한 생활 문화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애 류성룡의 학문과 덕행을 기린 병산서원, 퇴계 이황이 설계하고 후학을 양성한 도산서원에는 지금껏 안동의 유교문화를 지탱해 온 학자들의 열띤 학구열과 그 속에서 피어난 우정 어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천년 고찰 봉정사의 아름다운 벽화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세계유산을 색다르게 경험할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먼저 하회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만인소 18세기와 21세기> <징비록 16세기와 21세기> 상설 전시입니다. 문화유산 단체 아홉 곳이 마을의 고택 등에서 선보이는 '우리가 가꾸는 세계유산' 체험 프로그램도 새로운 시선으로 세계유산을 바라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축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병산서원에서 펼쳐지는 '풍류병산' 공연, 도산서원이 한글 문화 보급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조명하는 <도산서원의 한글사랑> 전시도 이번 축전을 빛내 줄 프로그램입니다. 봉정사의 회주 호성 스님과 오은영 박사가 소통, 공감, 화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도 야심 차게 준비했습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을 찾을 사람들을 위해 행사를 알차게 즐길 수 있는 팁을 알려 주세요.**
하루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체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곧 출시될 축전 연계 관광 상품과 투어 패스를 활용해 보다 알차게 축전을 즐겨도 좋습니다. 올가을에는 안동을 방문해 한국의 소중한 세계유산을 만나고, 지역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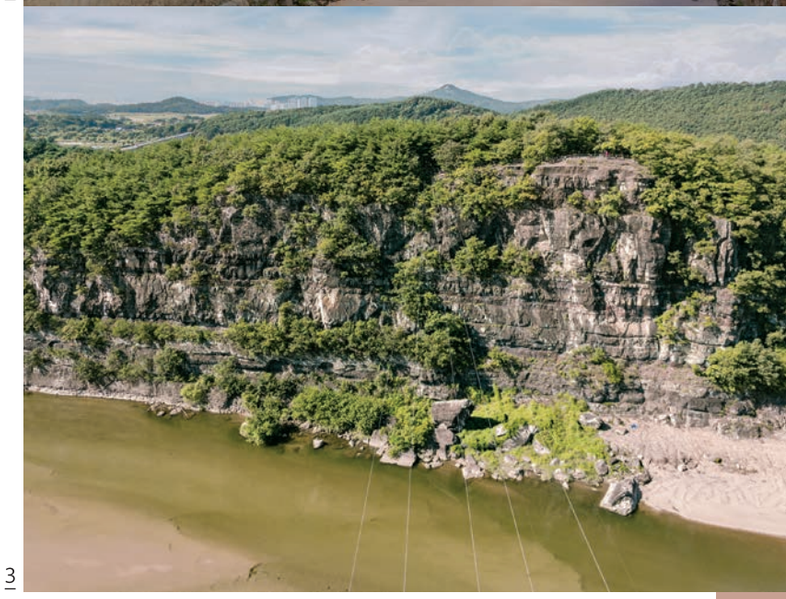


1

**1** 낙동강이 마을을 S자 형태로 감싸 흐르는 독특한 지형의 하회마을.
**2** 하회마을에는 기와집과 초가집이 조화를 이룬다.
**3** 하회마을 맞은편에 웅장하게 자리한 기암절벽, 부용대.



2



3

# 하회마을

세계유산축전 안동의 주무대

풍천면에 자리한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마을을 S자 형태로 감싸 흐르는 독특한 지형이다. 약 650만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 기와집과 초가집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국의 역사 마을'로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마을로 자리 잡았다. 풍산 류씨 집성촌이자 조선 시대 유학자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하회마을 맞은편에는 높이 60미터가량의 기암절벽이 우뚝 솟아 있다. 두 형제는 하회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 부용대 양쪽에 겸암정사와 옥연정사를 짓고 학문에 힘썼다. 부용대 건너편에 조성한 만송정 숲에도 류운룡의 손길이 닿았다. 풍수지리상 부용대의 기운이 세다 하여, 낙동강이 마을을 휘돌아 흐르며 생긴 넓은 모래 퇴적층에 1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이다. 여름에는 수해를 예방하고,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막아 주는 만송정 숲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는다.



1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송정 숲.
**2** 하회세계탈박물관에서
전 세계의 독특한 탈을 만날 수 있다.
**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별신굿탈놀이.

2



하회별신굿탈놀이가 하회마을의 대표 서민 놀이 문화라면, 하회선유줄불놀이는 양반 놀이 문화의 정수로 꼽힌다. 해마다 음력 7월 16일에 옛 선비들이 부용대 인근에서 즐기던 풍류 문화를 재현하는 전통놀이로 선유(뱃놀이), 줄불, 낙화, 달걀불 등으로 구성된다. 부용대와 만송정을 이으며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줄에 매단 숯 봉지가 화려한 불꽃을 내뿜으며 타들어 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불꽃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 감탄을 자아낸다. 하회마을 선비들이 밤의 풍류를 즐긴 것처럼 강물에 배를 띄워 시회를 열고, 하회선유줄불놀이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낙화야!" 하고 외치면 부용대 정상에서 절벽 아래로 불 붙인 소나무 단을 떨어뜨린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드라마 <악귀>의 최종화에 등장해 주인공은 물론 시청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강물 위에서 타오르는 화려한 불꽃과 함께 사람들의 사사로운 고민과 걱정도 재가 되어 사라진다. 하회선유줄불놀이는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의 개막식을 포함해 축전 기간 동안 총 세 번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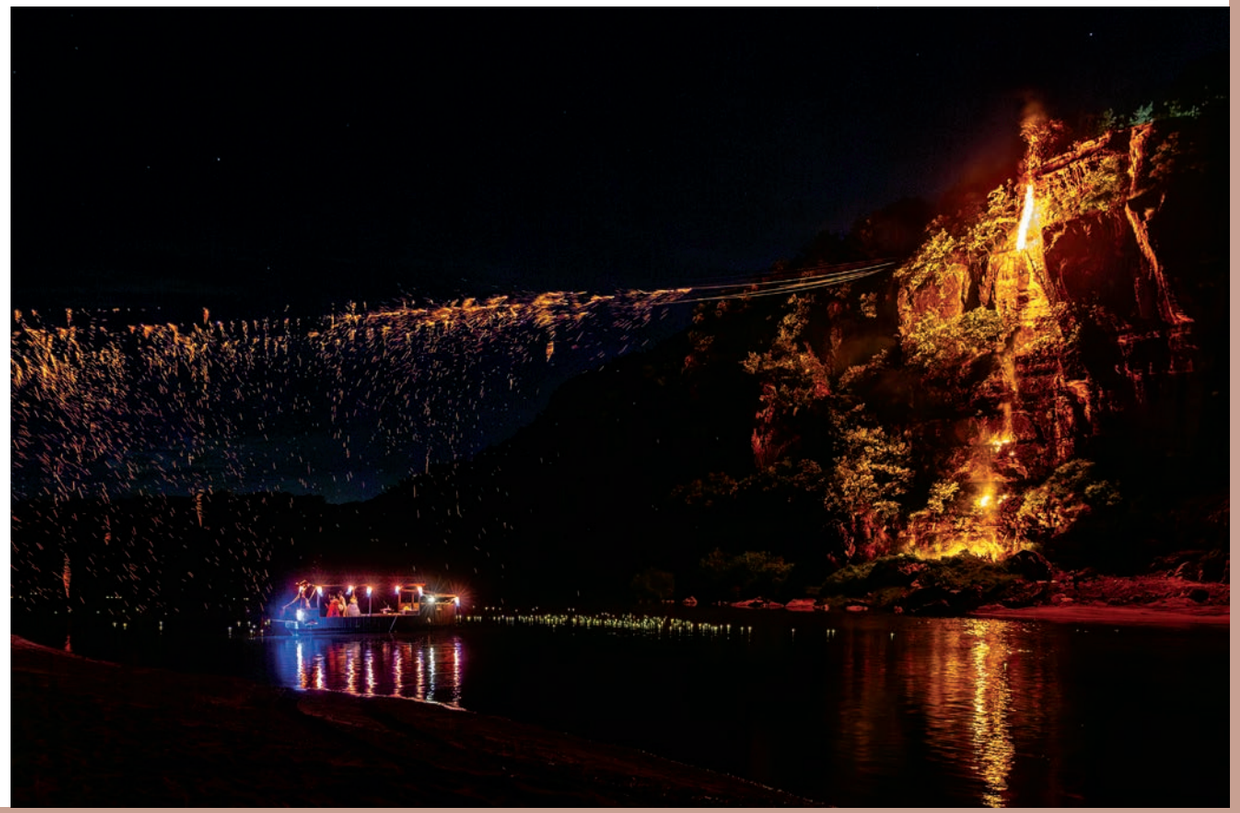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186

**4** 참가자들이 직접 만드는
하회선유줄불놀이에 사용할 숯 봉지.
**5** 선유(뱃놀이), 줄불, 낙화, 달걀불 등으로
구성된 하회선유줄불놀이.

4



5





3

하회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하회탈은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바가지나 종이를 활용해 일회성으로 제작한 대부분의 탈과 달리 하회탈은 나무를 깎아 만들고 여러 겹 옻칠을 해 별신굿에 다시 사용하곤 했다. 조형미가 뛰어난 하회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하회마을의 두 곳을 차례로 방문하길 추천한다. 먼저 하회세계탈박물관에서 하회탈 제작 방법과 종류에 따른 생김새를 익히고,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다. 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연희를 벌이던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이곳에서 매주 화~일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공연한다. 무동마당, 주지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 등 풍물꾼의 반주에 맞춰 여섯 마당의 탈놀이가 이어지는 동안 관객과 배우는 웃음을 주고받으며 공연을 함께 만들어 간다.




1



2

**1** 화산을 등지고 자리한 병산서원.
**2** 입교당에 앉아 만대루와 그 너머 풍경을 감상한다.
**3** 병산서원은 조선 철종 때 사액서원으로 승격됐다.

## 병산서원

만대루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풍류병산




3

하회마을에서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화산을 등지고 자리한 병산서원이 나온다. 1575년(선조 8년) 지금의 풍산읍에 있던 풍악 서당을 서애 류성룡이 현재 위치로 옮겨 와 제자들을 양성했고, 1863년(철종 14년)에 사액서원으로 승격됐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속에서도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조선 시대 유학의 전통과 건축양식이 잘 드러나는 문화유산이다. 2019년에는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을 포함한 아홉 개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등재됐다. 병산서원 정문인 복례문으로 들어서면 병산서원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만대루를 맞닥뜨린다. 자연의 경치를 빌려 경관에 활용하는 차경의 미학이 돋보이는 장대한 누각이다. 화려한 단청이나 장식을 절제한 정면 7칸, 측면 2칸의 건물에 오직 사계절의 풍경만 담긴다. 만대루 밑을 지나 계단을 다시 오르면 좌우로 유생들이 머물던 동재와 서재가 보이고, 맞은편에 강학 공간인 입교당이 방문객을 맞는다. 병산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존덕사에는 서애 류성룡과 아들 수암 류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음력 3월과 9월 초정일에 향사를 지낸다. 병산서원은 해 질 무렵까지 입장 가능하지만, 세계유산축전 기간에는 누구나 가을밤 서원의 정취를 누릴 수 있도록 야간에도 문을 연다. 또 류성룡이 후대에 남긴 <징비록>의 정신과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는 레이저 쇼가 병산을 배경 삼아 펼쳐진다. 주말에는 만대루 앞마당에서 국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한 공연 '풍류병산'이 열려 방문객의 흥을 돋운다.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1

**1** 도산서원의 시초인 퇴계 이황이 지은 도산서당.
**2** 이황의 건강 체조법인 활인심방을 태권도와 접목한 활인체조.
**3** 도산서원과 그 맞은편에 세운 시사단.

퇴계 이황의 한글 사랑을 조명하다

# 도산서원

도산서원의 시초는 1561년(명종 16년) 퇴계 이황이 고향 안동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도산서당이다. 이황은 건물 방향이나 세세한 수치까지 꼼꼼히 확인해 공간을 설계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서당의 크기는 3칸이 전부였다. 벼슬 자리를 마다하고 학문에 매진하며 검소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의 선비 정신이 이곳에서도 엿보인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문인과 유림들이 도산서당 뒤편으로 강학 공간인 전교당, 유생들의 기숙사인 박약재(동재)와 홍의재(서재), 이황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 등을 건립하면서 도산서원이 완성됐다. 정조는 이황의 학덕을 기리고자 도산별과를 만들어 지방의 인재를 선발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산서원 맞은편 과거 시험을 치르던 자리에 '시사단'을 세웠다. 세계유산축전 안동이 열리는 기간에 도산서원을 방문하면 이황의 삶이 담긴 각종 프로그램을 만난다. 이황의 장수 비결로 꼽히는 건강 체조법 '활인심방'을 배우며 그가 어떻게 심신을 단련했는지를 깨치고, 자연 속에서 학문과 삶을 성찰하며 지은 연시조 '도산십이곡'을 재해석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관람할 수 있다. 어둠이 내려앉은 낙동강과 시사단을 스크린처럼 활용해 선보이는 레이저 쇼도 이때만 열리는 특별 공연이다.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2



3



1



2

**1** 영산암의 봉황 벽화는
봉정사 창건 설화를 연상시킨다.
**2**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극락전.
**3** 산의 경사에 맞춰 건물을 배치하고
정원을 조성한 영산암.
**4** 보물로 지정된 덕휘루에 앉아
나누는 주지 두현 스님과의 대화.

3





4

## 봉정사

고요한 산사에서 즐기는 스님과의 명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등재된 사찰 중 한 곳이다. 한반도 남쪽 지방에 위치한 산지 승원 일곱 곳은 신앙과 수행,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역사적인 발전 모습을 보여 준다. 봉정사는 672년(문무왕 12년) 능인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능인대사가 접어 날린 종이 봉황이 앉은 자리에 절을 짓고 '봉정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봉정사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을 하나만 꼽는다면 단연 극락전이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정면 3칸, 측면 4칸의 작은 불전이다. 주심포 양식의 맞배지붕 건물로 고려 시대에 중창했지만 통일신라 시대 건축양식을 따랐다. 전란과 화재의 피해를 겪지 않아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이 잘 보존된 봉정사에는 눈길이 닿는 곳마다 국가유산이 자리한다. 산의 경사에 맞춰 건물을 배치하고 정원을 조성한 영산암은 경북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조선 전기 건축양식의 대웅전은 국보로 승격됐다. 올해 초 보물로 지정된 덕휘루에 앉아 눈앞에 떠다니는 구름과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 고요한 산사에서 내면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싶다면 봉정사에서 열리는 축전 프로그램이 제격이다. 봉정사 스님과 함께하는 명상·걷기 프로그램은 물론 하룻밤 머물며 일일 수행자가 되어 보는 템플스테이도 있다. 회주 호성 스님과 오은영 박사가 소통, 공감, 화합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한다.

**주소**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 한눈에 보는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리는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전시



**봉정사 사진전**
천년 고찰 봉정사가 지나온 시간을 사진으로 만난다.
축전 전 기간
봉정사 극락전 앞마당

**징비록 16세기와 21세기**
서애 류성룡이 저술한 <징비록>의 가치와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축전 전 기간
하회마을 화수당

**병산서원의 사계**
병산서원 진입로를 따라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을 전시한다.
축전 전 기간
병산서원 진입로

**도산서원의 한글사랑**
퇴계 이황의 '도산십이곡'을 비롯한 안동 지역의 한글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축전 전 기간
도산서원 마당

##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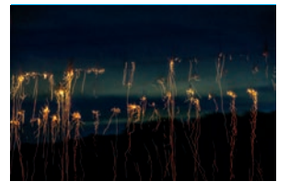
**활인심방**
퇴계 이황의 장수 비결로 꼽히는 건강 체조법으로 체조와 호흡법을 익히며 심신을 단련한다.
10월 9·10·11·17·18·24일
도산서원 일원

**우리가 가꾸는 세계유산**
고택에서 전통 음식을 시식하고 하회탈 비누를 만들어 보는 등 세계유산을 색다르게 경험한다.
축전 전 기간
하회마을 일원

**봉정사 명상 강의**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과 함께 고요한 산사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한다.
10월 11·18·25일
봉정사 일원

**병산서원 향사 체험**
병산서원 원생 및 유사들과 함께 선현을 기리고 제례 의식을 치른다.
10월 19·20일
병산서원 존덕사

## 공연



**하회선유줄불놀이**
선유(뱃놀이), 줄불, 낙화, 달걀불로 이뤄진 대규모 전통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10월 10·17·24일
하회마을 부용대 일원

**봉정사 음악회**
봉정사가 지향하는 개인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는 노래판이 벌어진다.
10월 9·17·24일
봉정사 덕휘루

**도산십이곡**
퇴계 이황이 지은 '도산십이곡'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열린다.
10월 9일
도산서원 마당

**풍류병산**
병산서원의 건축미를 예술 언어로 표현한 국악 퓨전극을 선보인다.
10월 10·11·17·18·24·25일
병산서원 일원

no.22

#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

KTX MAGAZINE

## 류열하 안동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인터뷰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마을**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도산서원**

한국의 산지 승원 **봉정사**

## 한눈에 보는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EDITOR** 김수아 • **PHOTOGRAPHER** 김은주

**제작 지원**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

2026 세계유산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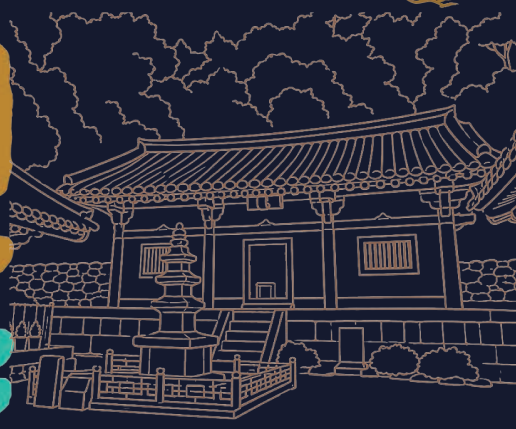
unesco World Heritage Site

2026 WORLD HERITAGE FESTIVAL IN ANDONG

#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사유의 세계유산, 통섭의 미래가치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
봉정사

10.9. ~ 10.25.



주최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안동시 주관 Korea Heritage Agency 국가유산진흥원 (사)안동하회마을보존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WRITER 오유리(문화 예술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서송이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집이 수단이자 계급이 된 시대. 이주와 유랑은 '홈'의 의미마저 다시 쓰게 만들었다.
지난 30여 년간 끝없는 탐구와 사유로 세워진 서도호의 세계는 묻는다.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 완벽한 집은 존재하는가.



전시장 입구 복도에 마련된 '시드 뱅크' 유년기의 드로잉과 조각, 학생 시절의 작업 등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초기 작품을 통해 서도호 예술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아카이브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현대미술의 거장 서도호의 세계가 펼쳐지는 〈서도호〉전을 보기 위해 모여든 다국적 관람객들이 온종일 길게 줄을 잇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 30여 년간 구축한 서도호의 예술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어린 날의 스케치부터 대학 시절의 초기작, '천으로 만든 집'으로 대표되는 주요작,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드로잉, 조각, 설치, 영상을 아우르는 500여 점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 움직이는 집

지금 현대미술계에서 서도호가 차지한 위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 다름 아닌 '서도호(Do Ho Suh)'인 것이 증명하듯 그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작가다. 동시대 미술의 주요 작가로 가장 빈번하게 호명되는 예술가이자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앞다퉈 소개하는 거장으로, 오늘날 현대미술의 한복판을 점령하고 있다. 해외에서 진행 중인 전시 소식을 듣고 런던으로, 워싱턴DC로, 베네치아로 날아갔던 미술 애호가들에게 이번 전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티켓 예매에 실패한 관람객들이 현장 발권 표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꺼이 줄을 서는 이유다.

전시는 외부 복도에 마련한 '시드 뱅크(Seed Bank)'에서 시작된다. 유치원 시절 그린 로봇과 캠핑 준비 그림부터 마당에서 주운 나뭇조각으로 만든 '죠스'(우리가 아는 그 죠스 맞다), 오랜 벗인 고 유재하를 위해 그려준 앨범 커버 등 내밀한 흔적들이 영화처럼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전시를 처음 공개하던 날 미디어 앞에 선 작가가 "어린 시절 작업을 공개하는 건 마치 옷을 홀딱 벗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 고백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 거장의 낡은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다.

작가는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서울대 동양화과 학부와 대학원을 거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



'캠핑 준비 그림표'라는 제목이 붙은 이 그림은 렌트로 출발해 한국 전도로 끝을 맺는 24컷 구성이다.
'글·그림 서도호 화백'이라는 천진하고 당찬 선언도 함께 적혀 있다.





'쫓아오는 집'(2023)은 실을 섬유 속에 매립하는 기법으로 평면에 물성과 깊이를 더한 실 드로잉 작업이다.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섬세한 공예적 기교, 독창적인 조형 감각이 응축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는 섬세한 실 드로잉부터 대형 실 드로잉, 탁본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200여 점의 드로잉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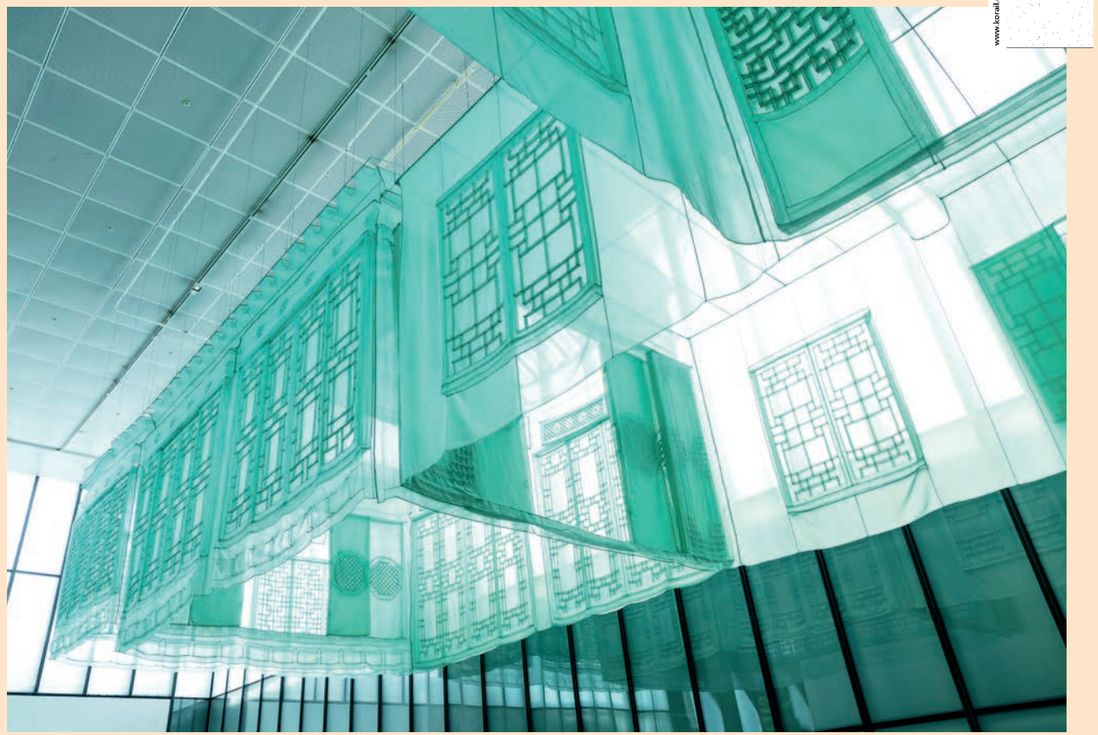
자인 스쿨(RISD) 회화과와 예일대 대학원 조소과에서 수학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 현대 수묵 추상의 선구자인 고 서세옥 화백이 그의 아버지다. 미술은 물론 문학과 철학, 건축, 조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정통했던 아버지의 학자적 면모는 그에게 일종의 예술적 세례와도 같았을 것이다. 아버지처럼 동양화를 전공한 그는 20대 후반, 뉴욕행을 택했다. 누군가의 아들로 살아가는 무게와 보이지 않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서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집을 나선 서도호는 30여 년간 빈틈없는 궤적을 그리며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서도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떠난 '집'을 이야기해야 한다. 접어서 가방에 넣고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유동적이고, 장소에 따라 변형 가능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 주는 집. 서도호의 집 기저에는 그가 열 살 때부터 살았던 성북동 한옥이 자리한다. 전국 곳곳에 서양식 아파트가 들어서던 1970년대, 서세옥 화백은 헐려 나가는 한옥의 자재를 사 모아 창덕궁 연경당 사랑채를 모델로 집을 지었다. 어린 서도호는 궁궐을 짓던 대목장 배희한이 도포를 입고 집 짓는 과정을 생생히 지켜보았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 살았다. 지금도 한국에 오면 그 집에 머문다. 이 집이 서도호 세계의 근간이 된 것은 필연이다. 작가는 집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 개인의 기억이 켜켜이 쌓이는 공간으로 바라보며 개인과 공동체, 집과 이동, 관계와 기억에 대한 탐구와 사유를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 서도호라는 미학

많은 관람객이 그 유명한 '천으로 지은 집'을 기대했겠지만, 첫 번째 전시실은 200여 점에 달하는 드로잉의 방이다. 서도호 특유의 유연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선 드로잉부터 다양한 실 드로잉, 탁본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오랫동안 구축해 온 상상과 조형의 세계를 온전히 들여다볼 기회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실 드로잉' 연작 앞에서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한다. 젤라틴 티슈와 수제 종이를 이용해 부조와 같은 깊이감을 만들어 내 평면 드로잉에 살아 숨 쉬는 듯한 물성과 입체감을 불어넣었다. 수만 겹 색색의 실이 회오리처럼 인물의 뒤를 쫓는 '쫓아오는 집'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실 끝에 매달린 것은 집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이자 기억, 어쩌면 벗어날 수

www.korail.com 한국철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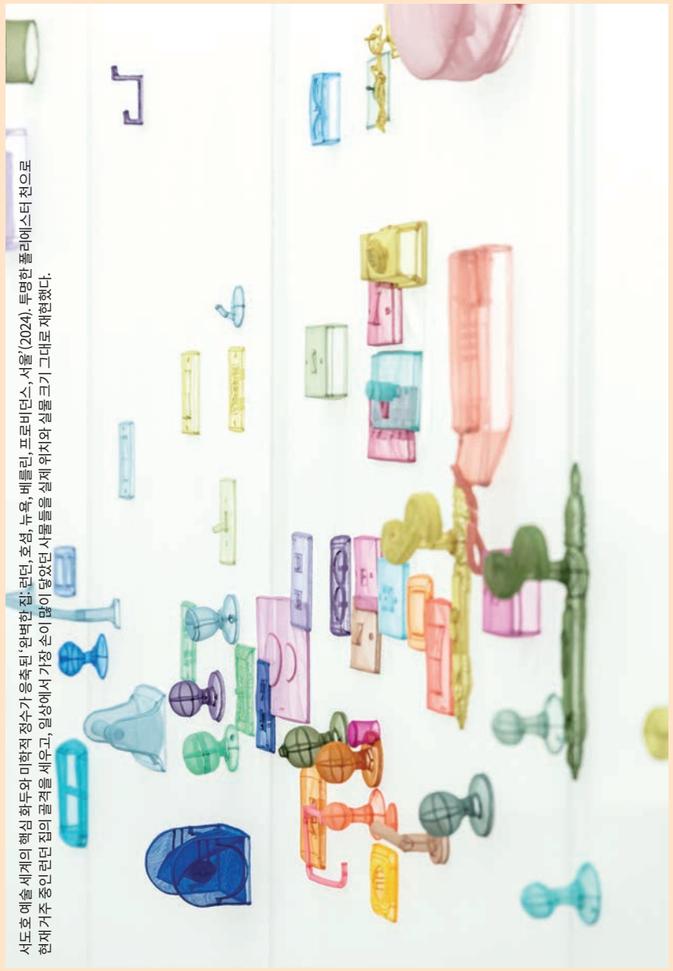
천장에 매달려 관람객의 시선을 허공으로 이끄는 '서울집/서울 집/가나자와 집/베이징 집/포항 집/광주 집/플라멜피아 집'(2012).
공중에 부 유하는 반투명한 한옥을 통해 고정된 창소가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을 품고 '이동하는 집'의 개념을 시각화한 대표작이다.



성북동 한옥에 닥지를 밀착시켜 흑연과 색연필로 오랜 시간 문질러 만든 탁본 작업 '러빙/러빙: 서울 집'(2013–2022).
단순히 집 형상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기억과 정체성의 축적이다.



서울, 뉴욕, 베를린, 런던 등에서 작가가 거주했던 집의 복도와 문,
방 같은 전이 공간을 하나의 연속된 건축으로 재구성한 '동지/들'(2024).



서도호 예술 세계의 핵심 화두와 미학적 정수가 응축된 '완벽한 집: 런던, 호섬, 뉴욕, 베를린, 프로비던스, 서울'(2024). 투명한 폴리에스터 천으로
현재 거주 중인 런던 집의 골격을 세우고, 일상에서 가장 손이 많이 닿았던 사물들을 실제 위치와 실물 크기 그대로 재현했다.

없는 카르마(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

두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면 2012년부터 이어 온 대표 연작 '러빙/러빙: 서울 집(Rubbing/Loving: Seoul Home)'과 마주한다. 서도호가 '아버지와 나의 자화상'이라 말하는 이 작품은 성북동 한옥의 벽과 바닥, 문틀, 창에 닥종이를 밀착시킨 뒤 흑연과 색연필로 오랜 시간 문질러 완성한 탁본 작품이다. "문지르는 행위(rubbing) 자체가 깊이 사랑하는(loving) 행위처럼 느껴져 두 단어를 연결했다"는 작가의 말은 작업 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들여다보는 순간 납득된다. 그야말로 집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열정과 끈기로, 마치 수행하듯 기억과 시간의 결을 더듬어 가는 작업을 지켜보는 동안 관객은 작가의 예술적 행위와 온전히 밀착되는 뭉클한 전율을 경험한다.

이어서 세 번째 공간으로 들어서면 가장 최근의 천 작업인 '완벽한 집: 런던, 호섬, 뉴욕, 베를린, 프로비던스, 서울'이 오감을 압도한다. 그동안 작가가 살아온 여섯 도시, 30여 개 방에서 본뜬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 문손잡이, 자물쇠, 보일러 조절기, 조명, 수도꼭지, 벽걸이 전화기가 한 공간에 다채롭게 펼쳐진다. 작가가 통과해 온 시공간이 응축된 그 투명한 공간을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관람객들이 거닐며 만들어 내는 이 풍경을 작가는 처음부터 의도했을까. 눈부시도록 흰 공간에서 세상의 모든 색을 끌어모은 듯한 사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아, 집이 이토록 황홀한 공간이었던가.

서도호의 작업은 아름답다. 새로울 뿐 아니라 매혹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그의 솜씨에 전 세계 관람객은 속절없이 매료되고 만다.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험 정신, 탁월한 미감과 위트가 깃든 작품은 현대미술을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이



아이들이 자라며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을 차곡차곡 겹쳐 놓은 '부성: 티셔츠'(2016-2026).

들의 의심과 경계를 단숨에 허물어뜨린다. 작가가 거주했던 여러 도시의 집 복도와 문, 방 같은 전이 공간을 연결한 '둥지/들' 속을 직접 거닐고, 옥색 은조사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부유하듯 흔들리는 한옥('서울 집/서울 집/가나자와 집/베이징 집/포항 집/광주 집/필라델피아 집')을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시각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오래 기다려 준 고국의 관객을 위한 선물일까. 전시 말미에 작가의 초기 작업들을 다시금 만나는 건 행운이다. 성별과 인종이 다른 수많은 인형이 받치고 있는 투명 유리판 위('바닥')를 걸으며 매 순간 고군분투하면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인간의 연대에 숙연해지다가도, 손톱보다 작게 인쇄된 졸업 앨범 속 얼굴들을 가만히 응시하노라면('Who Am We?') 억겁의 시간이 만들어 낸 인연으로 연결되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타인의 존재를 곱씹게 된다. 개인과 사회, 인간의 관계와 삶이라는 어마어마한 화두를 거대한 스케일로 풀어내되 명료하고 감각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거장의 솜씨는 이미 20여 년 전에 무르익었던 것이다.

## 여기, 따뜻한 세계

전시 마지막에는 '작가 서도호' 너머 '사람 서도호'의 면모가 엿보이는 특별한 공간이 자리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두 딸을 향한 사랑, 진한 가족애가 느껴지는 공간이다. '사랑의 기억(래코드 협업)'은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하는 작품이다. 어머니가 사 주신 재킷 안쪽에 가족의 옷에서 떼어 낸 주머니를 달고, 그 안에 소중한 기억이 담긴 사물을 넣어 완성한 작업이다.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 온 관계와 이동, 기억의 화두가 가족의 온기가 깃든 옷 한 벌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 아이들이 자라며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을 겹쳐 둔 '부성(Fatherhood)' 연작에는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애틋함과 소중함이 차곡차곡 담겨 있다. 서세옥 화백의 수묵 추상 속에 사람들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서도호의 후기 예술 세계에 가족이 들어와 자리 잡은 것에서 어떤 안도감이 느껴졌다. 예술가의 아들로 태어나 단독자로 존재하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공간을 통과해 온 작가의 여정, 치열하고 때로는 쓸쓸했을 그 길에 마침내 가족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쁨이랄까. BTS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딸을 유아차에 태우고 이동하며 다정한 대화를 이어 가는 영상을 보며 많은 관람객이 웃음 짓는 이유다.



작가의 코트 안쪽엔 가족들의 옷에서 뗀 주머니를 달고, 그 안에 함께한 시간을 품은 사물들을 담은 '사랑의 기억(래코드 협업)'(2026). 집과 이동, 기억과 관계를 탐구해 온 작가의 사유가 마침내 가장 근원적인 공간인 가족과 합일한 풍경이다.





1999년부터 이어 오고 있는 '다리 프로젝트'는 작가가 집이라고 느끼는 세 도시, 서울, 뉴욕, 런던을 연결하고 유동성에 대해 설계하는 상징과 사유의 여정이다.



2003년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첫 한국 개인전에서 국내 미술 애호가들에게 충격과 황홀감을 안겨 준 '바닥'(1997-2000). 관람객들은 다양한 인종과 성별, 표정을 지닌 인간 군상들이 투명 유리판 위를 가냘프게 걷는 바닥 위를 거닐게 된다.

작가는 "부제가 없는 이번 전시에 부제를 붙인다면 '회향(回向)'이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회향은 자신이 닦은 선한 마음과 공덕을 모든 생명에게 나눈다는 불교 용어다. "관객들이 제 작품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서도호의 집을 보는데 왜 내 집이 생각나지? 왜 내 인생이 생각나지?' 하고요. 작품의 긍정적 부분을 많은 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친구와 연인, 가족들은 작품을 보는 내내 이야기를 나눈다. 옛집의 냄새를 떠올리고, 유년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성장과 이별 그리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들을 추억한다. 사적인 공간에서 공통의 기억을 떠올리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미래의 풍경을 만들어 내며, 마침내 '나'인 동시에 '우리'인 존재를 자각하게 만드는, 서도호의 따뜻한 세계다. KTX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전시장을 가득 채운 친구와 연인,
가족들은 작품을 보는 내내 이야기를
나눈다. 옛집의 냄새를 떠올리고,
유년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성장과 이별 그리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들을 추억한다.

### 관계라는 자아, 자화상

서도호는 작품 앞에서 홀로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작품 앞에 선 관람객은 작가 한 사람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하나의 아이디어가 온전히 실현되기까지 전 과정에는 수많은 이들의 참여와 헌신이 깃들기 때문이다. 그는 2009년 작 '인과(Cause & Effect)'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담은 책 <인연>을 펴내기도 했다. 이번 전시 도록에도 '감사한 인연/들'이라는 페이지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오랜 시간 소중한 인연을 맺어 온 개인, 기업,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인사로 시작되는 이 지면에는 엔지니어, 제작자, 큐레이터, 기술자, 건축가, 연구자, 설치 작업자의 이름이 빼곡히 담겨 있다. 그가 스스로 '자화상'이라 이름 붙인 작품들을 홀로 선 개인이 아니라 무수한 타인과 맺어 온 관계의 풍경으로 다시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자화상, 2021 / 러버메빈, 비토리아미술관 제공 ©서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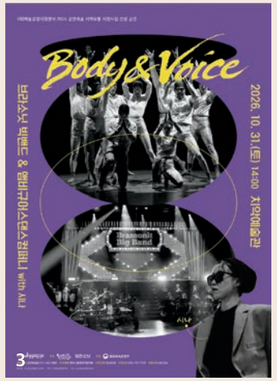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1



2



3

**1** 첼리스트 양성원과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비올리스트 이수민이 만드는 '강원의 사계' 세 번째 시리즈 <가을>. **2** 생명 존중 뮤지컬 <109 합창단>은 익숙한 가요로 무거운 주제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담아낸다. **3, 4** 즉흥연주 장인 브라소닛 빅밴드와 한국적 흥의 정서를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앰비규어댄스컴퍼니가 <Body & Voice>에서 만난다.



4

#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연중

**임윤찬부터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까지 국가대표 아티스트들이 강원도로 총출동한다. 강원문화재단이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연중' 캠페인에 참여하는 다섯 편을 추천한다.**

'강원의 사계' 세 번째 시리즈 <가을>

## '보헤미안의 영혼-대지에서 예술로'

세계적인 첼리스트이자 대관령음악제 예술감독인 양성원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 비올리스트 이수민이 서로 다른 음색과 음악적 언어를 교감하며 밀도 높은 실내악 무대를 선보인다. 버르토크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루마니아 민속 춤곡 Sz. 56', 코다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주 Op. 7',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제1번 G단조, Op. 25'를 연주하며 민속적 색채와 낭만적 서정이 교차하는 작품을 섬세한 앙상블로 풀어낼 예정이다. 깊고 풍부한 음색으로 빚어낼 보헤미안의 자유로운 영혼과 예술적 울림을 속초에서 만나 보자.

**일시** 10월 15일 오후 7시
**장소** 강원 속초문화예술회관
**예매** 대관령음악제(mpyc.kr), NOL 티켓(nol.yanolja.com/ticket)
**문의** 033-240-1364

강원도립극단 뮤지컬

## 〈109 합창단〉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109 합창단>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합창이라는 공동체적 형식으로 무대화한 작품이다. 좌충우돌 늘 소란스러운 한동아파트를 배경으로, 자살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주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창작한 넘버와 더불어 익숙한 대중가요를 활용해 무거운 주제를 친근하게 풀어내며 삶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전달한다. 제목의 '109'는 실제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로, '단 한 명(1)의 생명도 자살하지 않도록(0) 구하자(9)'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시** 11월 24일(고성), 27일(태백) 오후 2시 · 7시
**장소** 강원 고성군문화복지센터, 태백문화예술회관
**예매** 네이버 예약
**문의** 033-255-0496

브라소닛 빅밴드 &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 〈Body & Voice〉

예술성을 강조한 무대는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편견을 깬 두 팀이 만난다. 브라소닛 빅밴드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Body & Voice>를 공연한다. 독창적인 사운드와 즉흥성이 돋보이는 브라소닛 빅밴드의 라이브 연주에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만의 개성 있는 움직임을 더해 음악과 춤의 경계를 허문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 춤은 움직임을 넘어 하나의 언어가 된다.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놓치지 말자. 이번 공연은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인 시나(Sina)가 함께한다.

**일시** 10월 31일 오후 2시
**장소** 강원 원주 치악예술관
**예매** 원주 통합예약플랫폼(yeyak.wonju.go.kr)
**문의** 033-760-9885


1



2

**1** 십이지신의 탄생을 신나는 음악과 놀이로 풀어낸 강원 아트박스 공연단의 <띠띠~씽! 12동물>. **2** 아이들 곁으로 찾아가는 강원 아트박스 공연단의 2026년 포스터. **3** 강원 아트박스 공연단이 선보인 폐쇄를 앞둔 간이역과 길고양이의 이야기를 담은 <간이역 칸타빌레>. **4** 춘천을 탱고 리듬으로 물들일 아르헨티나 탱고 오케스트라 '탱고 바르도'.


3


4

강원 곳곳의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 강원 아트박스 공연단

어린이들이 공연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강원 아트박스 공연단이 강원도 곳곳을 누빈다. 올해는 전통 창작 음악극, 사물 인형극, 국악 뮤지컬, 놀이극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폐쇄를 앞둔 간이역과 길고양이 이야기를 담은 <간이역 칸타빌레>, 십이지신의 탄생을 신나는 음악과 놀이로 풀어낸 <띠띠~씽! 12동물>, 사물 인형극 <토끼로 사는 아홉 가지 어려움>, 전래 동화를 재해석한 창작 국악 뮤지컬 <반쪽이의 대모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공연과 체험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예술을 만나고 상상력과 감성을 키우는 시간을 선물한다.

**강원 아트박스 공연단**
**일정은 강원문화재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gogwcf)에서**
**확인하세요.**

춘천에서 선보이는 정통 탱고

## 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의 본고장 아르헨티나에서 건너온 오케스트라 두 팀이 춘천의 가을 밤을 물들인다. 200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창단한 미스테리오사 부에노스아이레스는 1940년대 탱고의 전통을 계승하는 오케스트라로 클래식과 모던을 동시에 구사한다. 2013년 창단한 탱고 바르도는 탱고 콰르텟 악단으로 전통 레퍼토리부터 현대, 누에보를 아우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강렬한 사운드가 매력적이다. 개성 강한 두 팀의 연주에 탱고 댄서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보컬이 더해진다. 사랑과 이별, 그리움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탱고의 리듬을 만나러 춘천으로 떠나 보자.

**일시**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강원 춘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예매** 춘천문화재단(cccf.or.kr), NOL 티켓(nol.yanolja.com/ticket)
**문의** 033-259-5822

# 강원특별자치도는 계속, 공연 중!

**문화 예술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계절에 강원도 16개 지역에서 80여 개 공연이 열린다. 강원문화재단의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연중' 캠페인과 함께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고 새로운 감동을 발견해 보자.**

연극
### 양구씨 백자를 만나_ 백자 한 상!
**일시** 10월 23일 오후 7시 30분, 24일 오후 3시
**장소** 강원 양구문화복지센터


양구

연극
### 아버지
**일시** 11월 27일 오후 7시 30분, 28일 오후 3시
**장소** 강원 양구문화복지센터



양구

뮤지컬
### 명태랩소디
**일시** 11월 27일 오후 7시 30분, 28일 오후 4시
**장소** 강원고성군문화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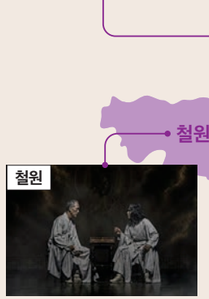

고성

연극
### 선녀씨 이야기-속초 외전
**일시** 11월 26일~27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강원 속초문화예술회관


속초

클래식
###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11월 27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강원 강릉아트센터


강릉


철원

전통 무용음악극
### 패왕찬가
**일시** 11월 20일~21일 오후 7시
**장소** 강원 철원 화강문화센터


춘천

4色 콘서트
### 수퍼 브라스 스타즈
**일시** 10월 2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강원 춘천 백령아트센터


영월

뮤지컬
### 방절리 영웅들
**일시** 10월 3·10일 오후 2시
**장소** 강원 영월관광센터


정선

뮤지컬 퍼포먼스
### 아리아라리
**일시** 10월~11월
2·7·12·17·22·27일 오후 2시
**장소** 강원 정선아리랑센터


정선

토요 상설 공연
### 정선아리랑 뗏꾼
**일시** 10월 3일~11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강원 정선아리랑센터

제작 지원 강원문화재단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연중' 캠페인 공연 전체 일정은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gwcf.or.kr)에서 확인하세요.**



1

# 가을 미식 여행
# 제5회 강릉국수축제

**구수하고 칼칼한 장칼국수부터 새콤하고 짭짤한 팟타이까지, 면 요리 애호가들의 눈이 번쩍 뜨일 축제가 10월, 강원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린다.**

연중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강릉 월화거리에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5회 강릉국수축제가 열린다. 이름처럼 축제의 주제는 '국수'. 하지만 장칼국수, 짬뽕, 막국수 등 강릉을 대표하는 국수를 넘어 전 세계 면 요리를 총망라한다. 한 그릇씩 맛을 비교하며 축제를 즐기다 보면 국수에 담긴 역사와 조리법도 저절로 알게 된다. 국수를 주제로 한 요리 콘테스트와 국수 빨리 먹기 대회 등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국수를 매개로 강릉의 맛을 더 깊이 알고 관광객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려 흥겨운 한때를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축제가 열리는 월화거리는 강릉 원도심의 풍경을 천천히 즐기기 좋은 곳이다. 건너편에 자리한 중앙시장은 강릉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 닭강정, 길감자, 호떡, 오징어순대 등 군침 돌게 하는 강릉표 먹거리가 가득해 여행의 맛을 담아 갈 선물을 고르기에도 좋다. 국수와 간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웠다면 월화거리를 산책해 보자. 월화거리는 강릉역에서 부흥마을에 이르는 2.6킬로미터 구간에 조성한 거리 공원. 말나눔터공원과 힐링숲길, 임당광장, 역사문화광장, 느티나무 길을 차례로 지나면 월화교에 닿는다.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월화교는 저녁 무렵이 특히 아름답다. 총연장 160미터의 분수 조명에 116개의 분수 노즐과 빔 프로젝터, 무빙 라이트 등이 더해져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국수로 시작한 강릉의 가을 미식 여행은 커피로 이어진다. 강릉국수축제가 막을 내린 뒤 사흘 후인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강릉커피축제가 열리는 것. 강릉커피거리는 물론 중앙시장, 주문진, 오죽헌, 옥계 등으로 축제 무대를 넓혀 강릉 전역이 고소한 커피 향으로 가득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2


3

**1** 축제 기간에 강릉 월화거리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면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2, 3** 불 향 가득한 짬뽕과 구수하고 칼칼한 장칼국수는 강릉 대표 면 요리다. **4** 축제가 열리는 월화거리 끝에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월화교가 자리한다. 해 질 녘에 가야 제격이다.


4

**제작 지원** 강릉시청



EDITOR 김수아 • PHOTOGRAPHER 김은주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낯설게 듣기

심이다은 작가는 다른 존재로 변신하며 두 귀를 스치는 소리를 채집한다.
최근 선보인 <보편타당한 당신-심이다은>전에서는
서울 노원구를 배회하는 길고양이의 하루를 담았다.



1 고양이의 시선으로 노원구 일대의 환경음을 재해석한 실시간 사운드 설치 '보편타당한 당신'.
2 고양이가 가장 선명하게 인식하는 노란색, 연두색으로 천에 소리 기호를 새겼다.
3 작가의 소리 기록 방법을 따라 소리 기록지에 스티커를 붙이는 체험.
4 노원구 일대에서 채집한 자연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교체할 예정이다.

소리를 활용한 전시에는 언제나 호기심이 인다. 시각 예술이 주를 이루는 전시장에서 청각적 요소를 소재로 한 시도는 눈에 띄기 마련이다. 작품의 메시지를 단번에 파악하기 어려워 오감을 동원해야 하지만, 그래서 더 탐구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유휴 공간에서 열리는 〈보편타당한 당신-심이다은〉전의 작가 인터뷰 영상을 집중해 봤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이 전시를 기획한 심이다은 작가는 필드 리코딩을 중심으로 사운드 및 조형 작업을 구현하는 창작자다. 독립 기획자 겸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던 그는 제주 대형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 사업 기획팀 근무를 계기로 작업 세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야생동물이 사는 곳에서 공사가 시작되자 매일 보던 동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감췄고, 어느 날은 흔한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사라진 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무작정 소리를 찾아 나선 그는 야생동물과 멸종 위기 동식물의 발자취를 따라 현장에서 소리를 채집했고, 2023년부터 소리를 중심으로 한 생태 연구 설치 프로젝트 연작 〈보편타당한 소리〉 〈보편타당한 동물〉 〈보편타당한 숲〉을 선보였다.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직접 구조물을 작동시키며 그동안 쉽게 지나쳤을 다른 존재의 소리를 온몸으로 감각했다. '과연 소리는 보편적일까?' '인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소리를 다른 존재도 똑같이 느낄까?' '그들에게 익숙한 소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전시장에 울려 퍼지는 진동을 따라 작가가 건네는 질문이 관람객에게 전해졌다.

## 고양이 A 씨의 감각을 따라가다

〈보편타당한 당신-심이다은〉은 '보편타당한' 시리즈의 네 번째 전시이자 다른 존재의 감각으로 도시의 소리를 듣는 참여형 사운드 전시다. 인간 중심 사회에서 소외되는 존재들에 주목해 온 심이다은 작가가 이번에는 길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길고양이는 도심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쉽게 지나치고 때론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길고양이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더라도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다. 전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인간의 감각을 잠시 내려놓고 북서울미술관 일대를 배회하는 상상의 존재 '고양이 A 씨'가 되어 본다.

미술관 2층 유휴 공간의 라운지 3에 들어서면 나무로 된 커다란 구조물에 눈길이 간다. 고양이 A 씨의 시선










1

KOR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다른 떨림을 감각하는 것은 다른 세계를 감각하는 것과 같다. 소리를 만나기 위해 가만히 서서 기다리다 보면, 다른 영역에 사는 존재에게 긴 직선의 손을 뻗어 서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으로 노원구 일대의 환경음을 재해석한 실시간 사운드 설치 '보편타당한 당신'이다. 마들상상놀이터, 중랑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미술관 인근에서 발생하는 환경음이 미술관 안으로 실시간 송출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관람객이 손잡이를 돌리면 나무 기어의 삐걱임과 천의 마찰음이 외부 환경음과 합성되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낸다. 이 소리는 고양이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되어 흐른다. 천에 새긴 소리 기호는 고양이가 가장 선명하게 인식하는 노란색, 연두색으로 설정했다.

옆방 라운지 2에서는 잠시 길고양이의 시선을 빌린다. 전시장에 놓인 70여 개 서랍에 고양이 A 씨의 하루를 상상할 단서가 들어 있다. 낙엽, 이끼, 돌멩이 등 작가가 노원구 일대에서 채집한 자연물을 살펴보다가 고양이의 일기에서 발췌한 듯한 문장에 시선이 멈춘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이면 물가의 돌멩이들은 조금씩 다른 자리에 놓여 있다" "눈이 오면 익숙한 냄새들이 모두 사라진다" "바람은 도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 주는 전달자다" 같은 문장에서 날씨와 계절의 변화가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렴풋이 짐작된다. 고양이 A 씨는 몸을 둥글게 말고 앉아 도심 풍경을 느긋하게 감상하고, 아이와 어른이 술래잡기하는 걸 지켜보거나, 햇바닥으로 털을 고르면서 비릿하고 달큼한 꽃가루 맛을 느끼기도 한다. 고양이 눈에 비친 세상을 떠올리니 눈높이가 점점 땅에 가까워진다.

## 오늘 당신을 스쳐 간 소리

심이다은 작가는 '닫힌 귀에 균열을 내는 사람'이다. 그에게 소리를 듣는 일은 인간 중심 사회 너머로 향하려는 생태적 실천이다. 도심 속 자연을 걸으며 소리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워크숍도 연다. 미술관에 방문하기로 한 날, 그에게 중랑천 산책을 제안한 건 일상을 다르게 감각하고 싶어서였다. 정확히 말하면 귀를 열고 싶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묻기도 했다. 하천을 돌아다니다 눈을 감고 청각적 자극에 집중했다. 앉았다 일어나며 높이에 따른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해 보기도 했다. 두 손을 양쪽 귀에 갖다 대자 소리가 한곳으로 모아졌다. 바람 소리는 베이스 연주 같고, 새소리는 캐스터네츠가 내는 효과음 같았다.

심이다은 작가는 지난 전시에 사용한 워크숍 책자를 건네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라고 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다양한 질문이 말을 걸어왔다. 어젯밤 잠들기 전 가장 마지막에 들은 소리, 오늘 아침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들은 소리, 약속 장소로 가면서 들은 소리…. 소리에 관한 여러 질문의 답변을 떠올리다 보면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하루 일과가 그려진다.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한 소리는 무엇인가?' 어떤 질문 앞에서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오로지 듣기에 열중인 그에게 낯설게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난 몸으로 평생을 살잖아요. 고집 아닌 고집도 생기고, 내 의견이 맞다는 생각이 강해지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낯선 방식으로 보고 들으면 다른 존재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소리를 놓쳤을까. KTX



2

1 전시장에 놓인 70여 개 서랍에 고양이 A 씨의 하루를 상상할 단서가 들어 있다. 2 눈을 감았다 뜨거나 앉았다 일어나며 소리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한다.

# ·Information·

제17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오늘을 잇는 빛' ⓒ 장준수

#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 더 똑똑해진 철도 통합 앱 '코레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 철도 통합 앱 코레일+가 출시됐다. 간편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고, 예매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UI·UX를 개인화한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모바일 앱 '삼성 월렛'과도 연동했다. 역 창구에서 삼성 월렛으로 결제할 경우 디지털 승차권이 자동 발권돼 승차권을 분실할 위험이 없고 승강장 번호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 13개 언어 음성인식 지원하는 AI 통번역기 개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특화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다국어 번역 시스템'을 개발했다. 매표창구에 투명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를 설치, AI가 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번역해 외국인 고객과 역무원이 따로 보는 양쪽 화면에 각각의 언어로 자막을 표시한다.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철도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AI에 학습시켰다.

## 올여름 휴가철 철도 이용객 730만 명 돌파



올 하계 휴가철(7월 25일~8월 10일)에 하루 평균 43만 명, 총 730만여 명이 철도를 이용했다. 지난해 하계 휴가철 철도 이용객 대비 4.6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노선별로는 부산, 여수, 강릉 등 여행지를 중심으로 KTX 장거리 이용객이 많았다. 이 기간 인구 감소 지역과 연계한 '지역사랑 철도여행' 이용객은 9200여 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고속철도 통합 기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출시




지난 9월 1일부터 고속철도 통합 기념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 카드는 KTX와 SRT가 하나로 이어진 중련 열차의 모습과 두 열차의 상징 색을 담은 디자인을 적용했다. 4종의 카드와 전용 케이스로 구성된 세트 상품으로, 2만 6000원에 901개 한정 판매한다. 서울역, 수서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광주송정역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AIL 한국철도

여행가는달




41개 인구감소지역
기차 자유여행상품
열차 운임 전액 증정
관광지 방문 인증시 열차 운임 전액 할인 쿠폰으로 환급
* 해남·함평·장성·태백·보성·임실·강진·군위·괴산·봉화·장흥·의성·무주 여행시
선착순 2,000명 대상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2만원 증정

테마열차 50% 할인
동해산타 · 서해금빛 · 협곡 · 남도해양 · 정선아리랑

내일로패스 2만원 할인
연속 7일권, 선택 3일권 모든 권종

##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 좌석 간격
Seat Space



KTX는 **930mm**,
**KTX-산천**은 **98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960mm**입니다.

###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 좌석 간격
Seat Space



**KTX**와 **KTX-산천**은 **112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1060mm**입니다.

###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

### 신문
Newspaper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계좌 이체 신청

##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 앱 〉 하단 전체 메뉴 탭 〉 전체 서비스 중 혜택·정기권 〉 N카드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편의 시설
Amenities

### 화장실
Restroom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 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2호차**(4량: 1-2호차 사이, 6량: 2-3호차 사이),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2호차** 또는 **2·3호차**, **KTX-청룡 1·2·4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호차** 또는 **2·3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 열차 내 휴대품 기준 (2026년 7월 1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기준)

### 위험물



철도안전법 제42조,
제43조의 위해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 위해 물품: 무기, 화약류,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 동물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 등에
넣은 경우 동반 가능**

### 이동 수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분해 후 전용 가방에 넣은 자전거

단,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 불가**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제외)

### 기타 물품



기타 불결하거나
안 좋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반입 금지**

**리튬 배터리 제한**
**Lithium Battery Restrictions**

**대용량 리튬 배터리(160Wh 초과) 열차 내 휴대 제한**
Restrictions on carrying high-capacity lithium batteries (over 160 Wh) on trains

##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는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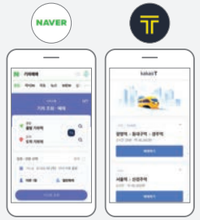

'코레일+'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T' 스마트폰 앱

##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구분 | 1개월~ 출발 2일 전까지 | 출발 1일 전까지 | 출발 당일 | |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 | |
|---|---|---|---|---|---|---|---|
| | | | 3시간 전까지 |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 시각 전까지 | 20분까지 |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 60분 경과 후~ 도착 시각 전까지 |
| 월~목요일 | 무료 | | | 5% | 15% | 40% | 70% |
|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 400원 | 5% | 10% | 20% | 30% | | |



KORAIL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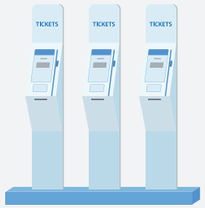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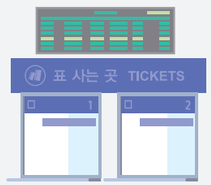
KORAIL Website(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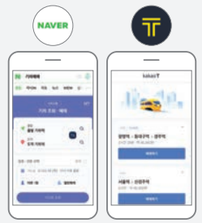

KORAIL +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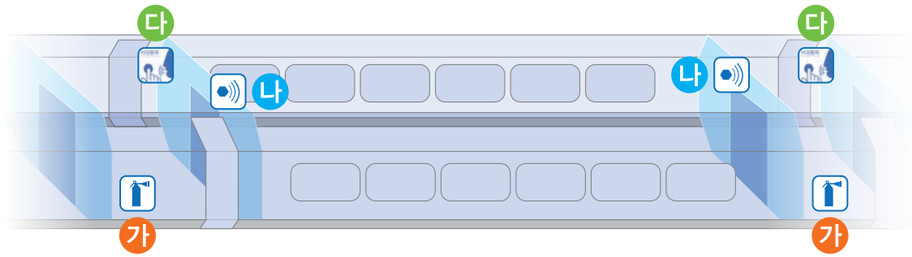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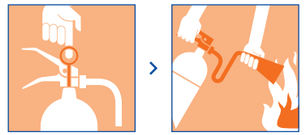
| Classification | 1 month- 2 day prior to departure | 1 day prior to departure | Day of departure | | After Departure (Request a refund at the station ticket office) | | |
|---|---|---|---|---|---|---|---|
| | | | 3 hours prior to departure |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 Up to 20 minutes | 20-60 minutes | 60 minutes- arrival time |
| Mon-Thu | Free | | | 5% | 15% | 40% | 70% |
| Fri-Sun, holidays | KRW 400 | 5% | 10% | 20% | 30% | | |

# 비상 상황
##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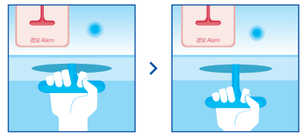

### 가 소화기 사용 요령
###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1.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 나 비상 알림 장치
### Emergency Alarm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 다 승무원 통화 장치
###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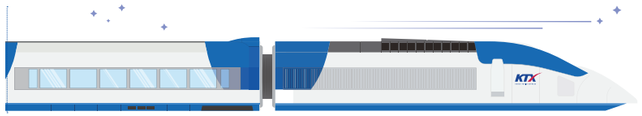
1.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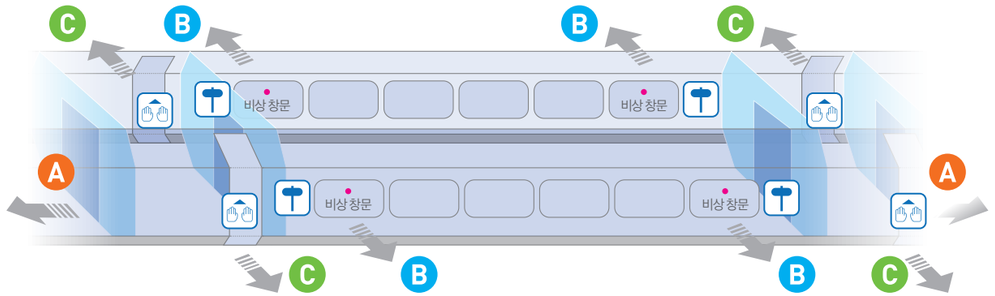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2.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상 탈출
## Emergency Escape Route




### A 다른 객차로 대피
###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 A 터널 탈출 요령
###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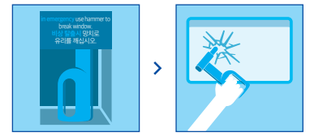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 A 비상 사다리 위치
###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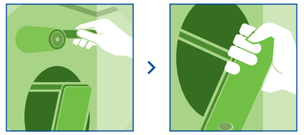
1.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2.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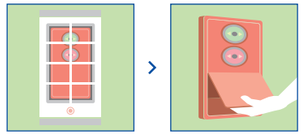
KTX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2.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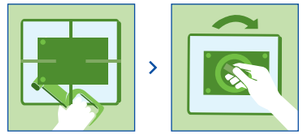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2.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1.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깬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2.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DITOR 김수아

음악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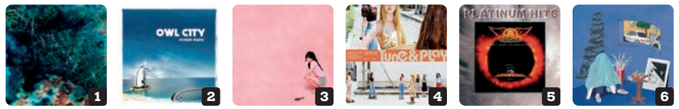
# 윤마치와 떠나는 음악 여행

어떤 여행은 음악과 함께 시작된다.
싱어송라이터 윤마치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꿔 줄 노래 한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다.



**윤마치**
청량한 음색과 강렬한 밴드 사운드, 무대를 가득 채우는 에너지로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2019년 EP 앨범 <Let's March!>로 데뷔해 일상의 감정을 자신만의 언어로 노래한다. 섬세함과 폭발력 사이를 오가는 라이브 퍼포먼스로 수많은 관객을 사로잡으며 인디 신에서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10월 초에 열리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11월 말 개최 예정인 원더리벳 2026에 참여한다. 대표곡으로 '다큐멘터리' '초록' '항복' 등이 있다.




## 여행이 시작되는 듯한 플레이리스트

**1 Same Blue** 오피셜히게단디즘
얼마 전 잠실에서 열린 오피셜히게단디즘 내한 공연에 다녀왔는데, 이 곡이 오프닝으로 나올 때의 전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기차 안에서 들으면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행을 시작할 때 설렘과 생동감을 더해 주는 곡입니다.

**2 Fireflies** 아울 시티
어릴 적부터 기차를 탈 때면 습관처럼 듣는 곡입니다. 눈앞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인트로가 매번 마음을 부드럽게 간질여요. 창밖으로 아스라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들으면, 그 순간이 동화 속 한 장면 같을 거예요.

**3 둥근노래** 윤마치
저마다 사연을 품은 승객들이 함께 기차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노래의 동글동글하고 다정한 멜로디는 객실 내 서먹함을 한결 부드럽게 녹여 주는 듯해요. 우리 모두 둥글둥글하게 웃으며 행복한 여행길에 오르길 바라요.

**4 Sun Kiss** 튜이드
최근에 데뷔한 신인 그룹의 곡이에요. 처음 듣자마자 특유의 감각적인 분위기에 반했습니다. 곡 전반에 은은하고 입체적으로 깔리는 백 보컬이 이국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을 살려 줘요.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들으면 당장이라도 낯선 휴양지로 떠나고 싶을 거예요.

**5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에어로스미스
명곡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노래예요. 도입부의 웅장한 사운드가 흐르고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 때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만큼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행의 단 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게 하는 묵직한 힘을 가졌어요.

**6 Let's Go Picnic** 죠지
제목이 주는 직관적 이미지 그대로, 듣자마자 마음속에 산뜻한 바람이 부는 곡입니다. 만약 '행복'이라는 감정을 소리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덜컹거리는 기차의 리듬에 맞춰 가볍게 박자를 타다 보면 복잡한 생각은 금세 사라지고 설렘만 남을 거예요.

©디즈니 픽사



# 풍류가 흐르는 고을, 영주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내려앉은 경북 영주 부석사 경내.

광고문의 02-2276-1190